

Bookie

부키

부·키

부·키

·이다새

B-side

도서목록 2019

부키 직거래 서점

- 전국 대형 서점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서울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 도매 및 총판 북센 북플러스 출판협동조합 만나서적 서당 자유서적 책이랑
- 서울 지역 노원문고 홍익문고
- 인천·경기 지역 경인문고 경인문고(인천공항점) 대동서적
- 대전·충청 지역 중부서적 대구·경북 지역 한일서적
- 부산·경남 지역 영광도서 북부총판 광주·전라 지역 중앙서적

IDASAE

037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길 15 산성빌딩 6층
 전화 02-325-0846 팩스 02-3141-4066
 이메일 webmaster@bookie.co.kr
 홈페이지 www.bookie.co.kr 블로그 blog.naver.com/bookieimb
 트위터 @bookiepub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ookie_pub
 페이스북 www.facebook.com/bookiepub

부·키

부키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건 작은 씨앗 하나라도 뿌리는 책,
 머리맡에 책상위에 가방 안에, 가까이 두고 싶은 책,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집어 들게 되는 책,
 책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원래대로 꽂아두게 되는 책,
 그런 책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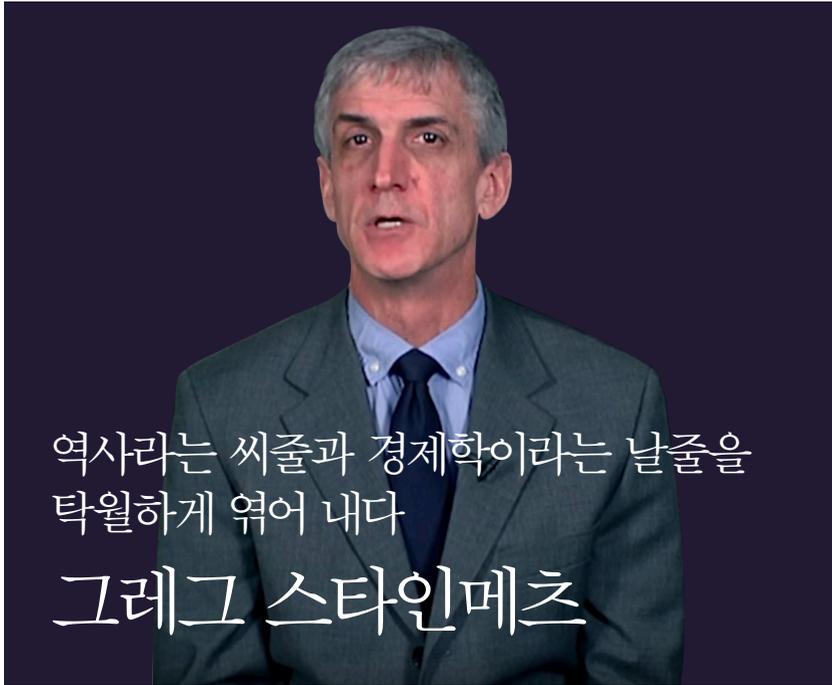
부키 bookie 의 의미

흔한 영한사전 : 사설 마권업자

좀 충실한 영한사전 : 상업적 출판인

부키만의 영한사전 : book(책) + ie('귀여운',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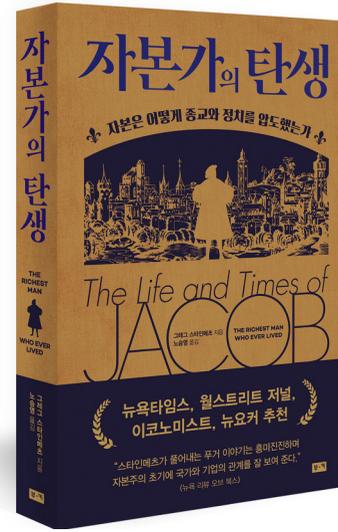
| □ page | □ Bookie | □ B-side |
|-----------|---------------|----------|
| | □ IDASAE | |
| 5 | 새로 나온 책 | |
| 25 |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 |
| 35 | 경제 경영 | |
| 45 |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 |
| 49 | 인문 베스트셀러 | |
| 61 | 인문 | |
| 64 | 남회근 저작선 | |
| 69 | 인문학 브런치 | |
| 71 | 사회 베스트셀러 | |
| 77 | 사회 | |
| 84 | 과학 베스트셀러 | |
| 89 | 과학 | |
| 93 | 자기계발·실용 베스트셀러 | |
| 95 | 자기계발·실용 | |
| 101 | 문학 베스트셀러 | |
| 103 | 문학 | |
| 107 | 부키 전문직 리포트 | |
| 115 | 이다새_어학·학습 | |
| 118 | 코르넬젠 시리즈 | |



역사라는 씨줄과 경제학이라는 날줄을
탁월하게 엮어 내다
그레그 스타인메츠

미국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서 태어나 콜게이트대학을 졸업했으며 노스웨스턴대학 메릴 저널리즘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15년 동안 《사라스타 해럴드 트리뷴》 《휴스턴 크로니클》 《뉴욕 뉴스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독일 지사와 런던 지사의 책임자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뉴욕에 있는 자산관리사에서 증권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본가의 탄생》은 야코프 푸거가 그 중요성에 비해 영어권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쓴 그의 첫 저서다. 그의 책은 야코프 푸거의 역사적 의의를 일반 독자에게 가장 잘 소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푸거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그의 열망과 가차 없음과 탐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코노미스트』 자본주의가 통제되지 않을 때, 특히 독재적인 지도자가 통치하는 경제에서 그러할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흥미롭게 잘 보여준다. 『뉴욕타임스』 스타인메츠는 근대 비즈니스와 유럽의 경계를 조형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탁월하게 풀어낸다. 『뉴욕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재미있다. 저자의 탄탄한 조사와 맛깔난 글 솜씨도 일품이다. 야코프 푸거는 먼 과거의 사업가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 더 잘 어울린다. 『로저 로렌스타인, 《천재들의 머니게임》 저자



자본가의 탄생

자본은 어떻게 종교와 정치를 압도했는가

그레그 스타인메츠 지음 | 노승영 옮김 | 신국판 | 384쪽 | 18,000원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자본주의의 토대를 놓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가의 대담한 여정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가를 한 명만 꼽는다면 누구일까? 미켈란젤로를 후원한 메디치? 국제적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 음모론의 단골손님 로스차일드? 석유왕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 이들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부자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축적한 부로도, 역사에 끼친 영향으로도 이들을 넘어서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야코프 푸거다.

군소 가문에 불과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부상, 가톨릭교회의 대금업 금지 철폐, 면죄부 판매와 종교개혁, 한자 동맹의 붕괴, 복식 부기의 전파, 경제 강국의 판도 변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격화. 15~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점차 유럽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사업가가 있었으니 바로 야코프 푸거다. 야코프 푸거는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는 물론이고 영어권에서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고 있다. 격동의 시대에 세계 최대의 부를 쌓았던 한 자본가의 삶과 시대를 잘 담은 평전이자,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근대 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역사서다. 영어권에서 푸거의 삶과 시대를 충실하게 소개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6년 출간 당시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뉴욕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등 각종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플랫폼을 뛰어넘는 궁극의 비즈니스 솔루션

티엔 추오·게이브 와이저트 지음 | 박선령 옮김 | 신국판 변형 | 364쪽 | 18,000원

사지 않아도 잘 살고, 팔지 않아도 잘 버는 시대,
‘구독 경제’를 만든 남자의 구독 사업 최신 현장 보고서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MS오피스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셔츠와 양말, 면도기와 생리대, 자동차와 항공기, 병원과 은행까지 구독하는 세상, ‘제품 경제’와 ‘공유 경제’를 지나 ‘구독 경제’ 시대다. 그런데 구독 경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 책은 구독 모델로 운영되는 기업 주오리의 최고경영자이자 ‘구독 경제 Subscription Economy’라는 용어를 창시한 티엔 추오가 자신의 지식과 통찰을 집대성한 탁월한 구독 경제 사용설명서다. 구독 모델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생하게 그릴 뿐만 아니라 책의 후반부에는 구독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까지 제시하고 있다.



비커밍 페이스북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플랫폼 제국의 미래가 되기까지

마크 회플링거 지음 | 정태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60쪽 | 17,000원

플랫폼 제국 페이스북의 역사와 현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최신 내부 평가서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와 함께 일하며 페이스북이 수년간 치른 경쟁과 실패와 재탄생의 험난한 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저자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의 사업적 도전과 거기서 얻은 교훈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마크 저커버그와 허버드대 친구들이 대학생을 위한 소셜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그 실험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공격에 나섰을 때, 기업공개가 실패로 돌아간 2012년에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커버그와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을 더 강하고 더 튼튼하며 사람들의 삶에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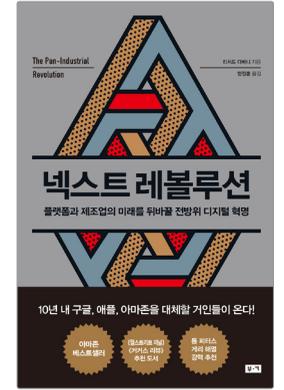
넥스트 레볼루션

플랫폼과 제조업의 미래를 뒤바꿀 전방위 디지털 혁명

리처드 다베니 지음 | 한정훈 옮김 | 신국판 변형 | 416쪽 | 18,000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생존 바이블
플랫폼 제국을 뒤엎을 디지털 제조 혁명이 시작된다!

HP, GE, 지멘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AM 기술의 도입 등 ‘제조 디지털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는 중이다. 그 결과 산업 플랫폼의 완성과 보급이라는 혁신이 가능하다. AM 기술과 산업 플랫폼의 결합에 성공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결합을 통해 ‘전방위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여 향후 20~30년 이내에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기업은 오늘날 대기업이 안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너지, 다각화, 효율성, 수익성을 달성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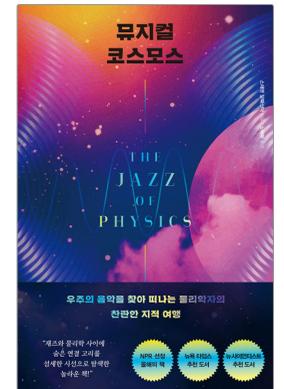
뮤지컬 코스모스

우주의 음악을 찾아 떠나는 물리학자의 찬란한 지적 여행

스테판 알렉산더 지음 | 노태복 옮김 | 신국판 변형 | 312쪽 | 16,000원

우주와 음악의 경이로운 유사성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

물리학자이자 재즈 음악가인 저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주의 음악’ 또는 ‘음악적 우주’에 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음악과 우주 사이의 관련성을 간파한 인물들, 즉 피타고라스,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의 발자취를 좇아 음악과 물리학의 보편적인 관련성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등의 옛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의 사상과 실천이 케플러와 뉴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노력을 거치면서 어떻게 끈과 파동의 역학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낳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리학과 음악이라는 두 분야를 ‘유비’라는 개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리를 통해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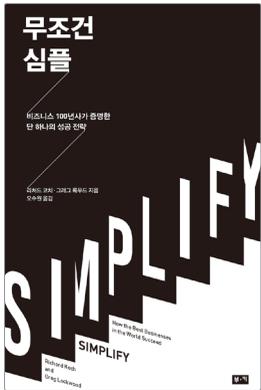
존 나이스비트 미래의 단서

글로벌 메가트렌드 최종 결정판

존 나이스비트·도리스 나이스비트 지음 | 우진하 옮김 | 신국판 변형 | 360쪽 | 18,000원

**최초로 메가트렌드를 발견한 세계적 미래학자의
최후의 세계 트렌드 예측 보고서**

1982년 정확한 예측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전 세계 57개국 1400만 독자를 사로잡았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 반세기에 걸친 그의 메가트렌드 연구를 집약하여 2020년 이후의 미래를 예측한다.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향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들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대가의 필체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미래의 큰 그림을 한눈에 살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무조건 심플

비즈니스 100년사가 증명한 단 하나의 성공 전략

리처드 코치·그레그 룩우드 지음 | 오수원 옮김 | 신국판 변형 | 392쪽 | 18,000원

**《80/20 법칙》의 리처드 코치가
40년 동안 모색한 비즈니스 전략의 정수**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 승차 공유와 숙박 공유라는 새로운 시장을 각각 창출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이후에도 173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이케아의 성공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비즈니스와 사업을 '심플'하게 만드는 '단순화 전략'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최근 100년 동안 비즈니스 역사 속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단순화 기업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 책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화 전략의 정의와 방법,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자의 비즈니스가 단순화 실행에 적합한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일지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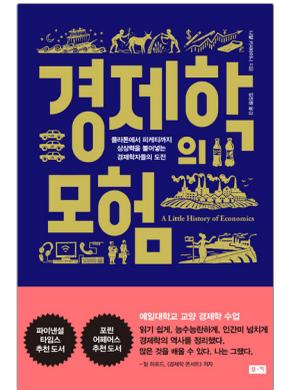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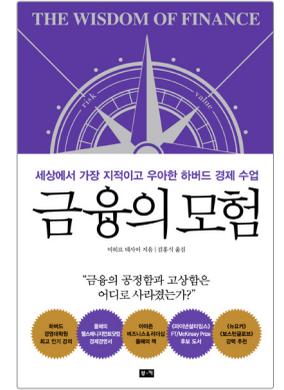
금융의 모험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한 하버드 경제 수업

미히르 데사이 지음 | 김홍식 옮김 | 신국판 변형 | 364쪽 | 18,000원

**하버드경영대학원 최고의 경제 수업
인문학으로 되살려 낸 금융의 공정함과 우아함!**

금융은 과연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빼앗아 가기만 하는 사악한 것일까? 금융에는 어떤 삶의 지혜도 없는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무지와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 인문학의 눈으로 금융을 통찰한다. 실용주의의 창시자 찰스 퍼스가 금융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준다. 《성경》속 달란트의 우화가 가치 창출의 논리를 담아내고, 식민지 시기 미국 최고 갑부의 몰락과 그리스 비극이 파산과 회생의 원리를 들려주며, 조지 오웰과 현대 미술의 거장 제프 쿤스가 레버리지의 위력과 그것이 가진 함정을 보여 준다.



경제학의 모험

플라톤에서 피케티까지 상상력을 풀어놓은
경제학자들의 도전

니알 키시타이니 지음 | 김진원 옮김 | 신국판 변형 | 432쪽 | 20,000원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쉬우면서도 의미 있게
맛보는 경제학 거장들의 사상**

경제학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시대. 경제학은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필체로 독자들을 다채로운 경제학의 세계로 초대한다. 스미스, 마르크스, 케인스와 같은 거장에서부터 아서 루이스나 윌리엄 비크리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제학자까지, 수요·공급·성장 같은 전통적인 주제에서부터 빈곤·불평등·페미니즘 같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주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독자는 저자가 차려 놓은 40점 밥상을 한입씩 맛보는 과정에서 지금의 경제 문제를 생각할 풍부한 자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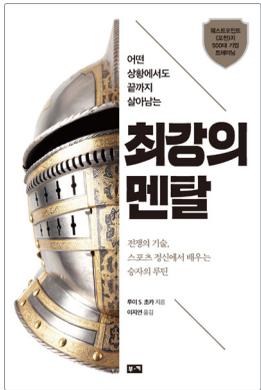
FBI 비즈니스 심리학

속지 말고 간파하라

조 내버로 외 지음 | 장세현 옮김 | 신국판 변형 | 360쪽 | 15,000원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심리 도구와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몸짓언어 활용법**

25년 동안 FBI 수사관 겸 세계 최고의 행동 분석 전문가로 활약하며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는 별명을 얻은 저자는 심리 해독·행동 분석 기술을 회의·미팅·협상·프레젠테이션·면접 등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29개국에 출간된 《FBI 행동의 심리학》의 비즈니스 결정판으로서 상대의 몸짓과 표정을 읽고 진심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말투, 옷차림, 매너, 주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어필하고, 상대방부터 호감과 신뢰를 얻으며, 상황과 분위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최강의 멘탈

루이 S. 초카 지음 | 이지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4,500원

**운동선수들과 특수작전부대가 승리로 증명한
'최강의 멘탈' 관리법**

어느 분야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압박감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맡은 일을 유능하게 해내고 뛰어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멘탈 관리법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능력향상센터에서 개발되었고 스포츠 선수에게도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맞춤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 책은 독자들이 5가지 멘탈 스킬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멘탈을 완전히 정복하여 여기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준다.

디자이너 사용설명서

싸우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을 얻는 45가지 방법

박창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344쪽 | 16,800원

오늘 읽고 내일 써먹는 '디자이너와 일 잘하는 법'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 편집부터 사내 워크숍 포스터 기획, 회사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 비딩 등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하루 한시도 디자인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디자인과 밀접하다. 《디자이너 사용설명서》는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해 디자이너와 일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상대의 욕망을 구현해 내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소통해야 하는 디자이너 모두를 위한 비즈니스 실무서이다. 비전공 디자이너로 업계에 뛰어들어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 양쪽 역할을 모두 경험해 본 저자는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줄이고 '체대로' 디자인 작업을 구현하는 실무 중심의 가이드를 안내한다.



GDP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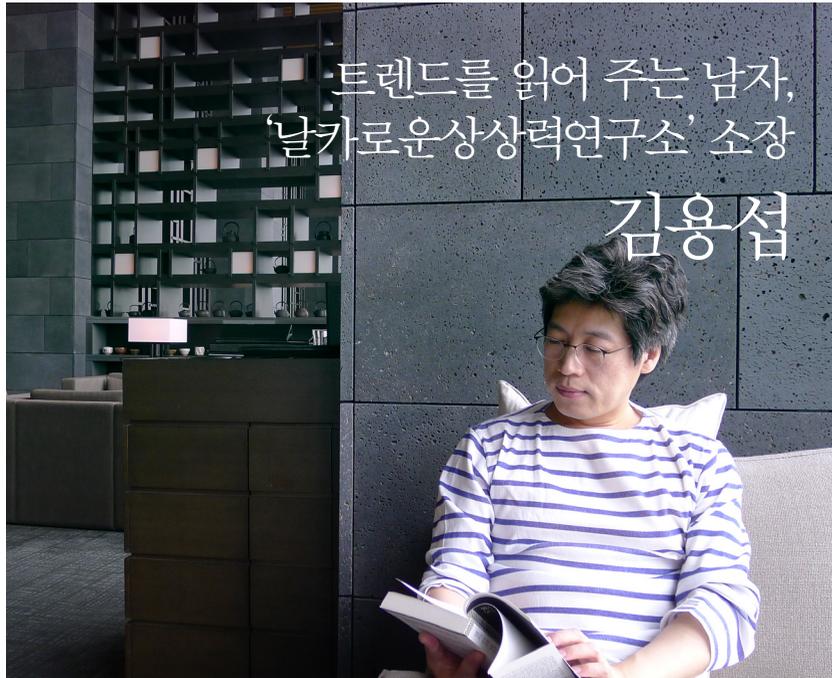
변영과 몰락의 성적표

다이앤 코일 지음 | 김홍식 옮김 | 국판 | 240쪽 | 16,000원

**현대 경제를 읽기 위한 최소한의 교양
GDP에 대한 친절하고 간결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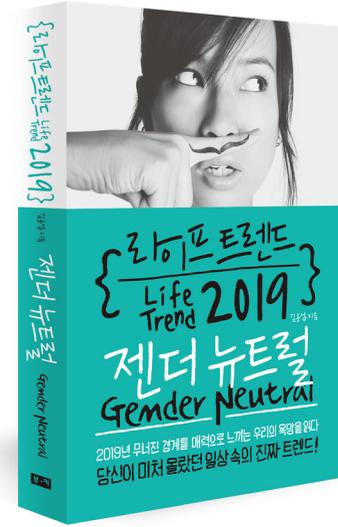
우리는 GDP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표피적인 정의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의 중요한 속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GDP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라의 번영과 몰락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개념 설명을 통해 GDP가 왜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하는지, 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친절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현대 경제사에 대한 교양과 경제 뉴스를 읽는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 상상력연구소' 소장.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GS, CJ, SK, 한화,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서 1500회 이상의 강연 및 비즈니스 워크숍을 수행했고, 15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간동아》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국제신문》 《비즈한국》 등 다수 매체에 칼럼을 연재했으며, KBS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생방송 오늘〉 〈성공에 감〉 〈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KBS월드라디오 〈생생코리아〉 〈한민족 네트워크〉, CBS라디오 〈뉴스로 여는 아침〉, SBS CNBC 〈경제, 굿엔노컷〉, 평화방송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TBS FM 〈유쾌한 만남〉 〈김갑수의 마이웨이〉 등의 프로그램에서 고정 코너를 맡아 방송했다. SERICEO에서 트렌드 브리핑 〈트렌드 히치하이킹〉을, 휴넷CEO에서 〈트렌드 인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CEO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읽어 주고 있으며, 다수 기업을 위한 자문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18: 아주 멋진 가짜 Classy Fake》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이프 트렌드 2017: 적당한 불편》 《당당한 결별》 《라이프 트렌드 2016: 그들의 은밀한 취향》 《라이프 트렌드 2015: 가면을 쓴 사람들》 《라이프 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완벽한 싱글》 《라이프 트렌드 2013: 좀 놀아 본 오빠들의 귀환》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엄마의 상식》 《트렌드 히치하이킹》 《페이퍼 파워》 《디자인 파워》(공저) 《소비자가 진화한다》(공저) 《날카로운 상상력》 《대한민국 디지털 트렌드》 등이 있다.



라이프 트렌드 2019

젠더 뉴트럴 Gender Neutral

김용섭 지음 | 신국판 변형 | 452쪽 | 17,000원

- 라이프 트렌드 2013 좀 놀아 본 오빠들의 귀환
- 라이프 트렌드 2014 그녀의 작은 사치
- 라이프 트렌드 2015 가면을 쓴 사람들
- 라이프 트렌드 2016 그들의 은밀한 취향
- 라이프 트렌드 2017 적당한 불편
- 라이프 트렌드 2018 아주 멋진 가짜 Classy Fake



당신이 미처 몰랐던 일상 속의 진짜 트렌드

2019년 타인의 기준보다 자기다움을 선택한 이들의 욕망을 읽다

- ★ 남자들이 레깅스를 입고 클러치백을 든 이유는?
- ★ 스탠딩석이 좌석보다 비싸다?
- ★ 빨래방이 살롱과 카페처럼 변하고 있다?
- ★ 간 양파는 무엇이 문제인가?
- ★ Z세대는 왜 유튜브에 열광하는가?
- ★ 독립 서점과 편집숍이 흥하는 이유는?
- ★ 대기업 회장님이 생전 장례식을 치른 까닭은?
- ★ 우리는 왜 자동차를 사지 않고 빌리는가?

딱딱한 지표와 복잡한 통계를 나열하는 대신 독자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익숙한 사례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생활·문화 전용 트렌드서 《라이프 트렌드 2019》가 나왔다. 이번 책에서는 '젠더 뉴트럴' '뉴 살롱 문화' '싱글 오리진' '취향 큐레이션' 등 키워드와 타인의 기준과 사회가 정해 놓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취향과 자기다움에 집중하는 사람들, 오리진에 눈뜨고 경험을 소비하며 공유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을 한 걸음 앞서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컬처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와 소비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들에 대한 남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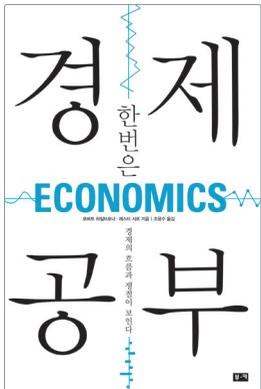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신자유주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 신국판 변형 | 400쪽 | 15,000원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10년, 그 후...
한국과 세계의 신자유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위험성을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 대중 경제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10주년 특별판. 2007년 출간 이후 한국 사회와 세계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더욱 악화되었다. 저자는 특별판 서문에서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의 희생자로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번은 경제 공부

경제의 흐름과 쟁점이 보인다

로버트 하일브로너·레스터 서로 지음 | 조윤수 옮김 | 신국판 | 360쪽 | 16,000원

경제학이 아닌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두 대가의 강의

판매 누적 1000만 부 책들의 저자 로버트 하일브로너와 '미래를 이끌어 갈 200인의 지도자'로 꼽힌 레스터 서로가 저술한 쉽지만 깊이 있는 경제 입문서다.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기업, 가계, 정부를 소개하며 경제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지 설명하고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다룬다. 이런 독특한 구성 덕분에 현대 경제의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최소한의 전문 용어로 그 쟁점들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들은 우리 앞에 닥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런 문제 해결의 원동력인 비전을 품은 경제학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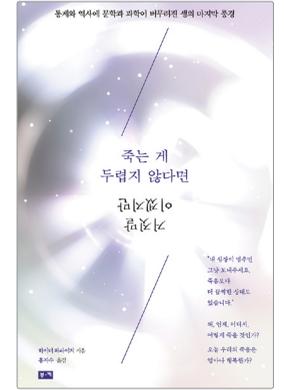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통계와 역사에 문학과 과학이 버무려진 생의 마지막 풍경

하이더 와라이치 지음 | 홍지수 옮김 | 신국판 변형 | 476쪽 | 18,000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마지막 풍경은 무엇인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전염병들을 퇴치했으며, 심폐소생술과 뇌전도는 죽음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반면 사람들은 병원과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고,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연명치료를 의존하고, 막대한 의료비와 힘겨운 병간호에 허덕인다. 저자는 세포에서부터 중환자실, 법정, 사회 제도, 인터넷 세상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무엇이 환자에게 정말 해로운지, 어떻게 하면 환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치료와 임종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생이 끝날 때까지 잘 사는 법'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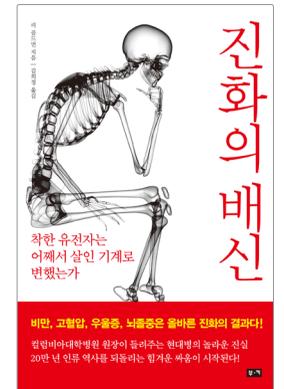
진화의 배신

착한 유전자는 어떻게 살인 기계로 변했는가

리 골드먼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560쪽 | 22,000원

유전자가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다
인류 진화의 역사로 현대병의 해결책을 제시하다

인간이 멸종을 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어 두고, 소금을 원하며, 불안과 우울 전락과 신속하게 혈액을 응고시키는 보호 체계를 발달시킨 덕분이다. 그런데 이 형질들이 주요 현대병의 원흉으로 돌변했다. 저자는 역사와 진화의 맥락 속에서 유익한 유전자들이 어떻게 자연 선택 되고 실제로 작동해 왔는지 그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불안과 우울증,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부르는지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 보인다. 나아가 유전자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류 역사상 이 초유의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한다.





어중간한 나와 이별하는 48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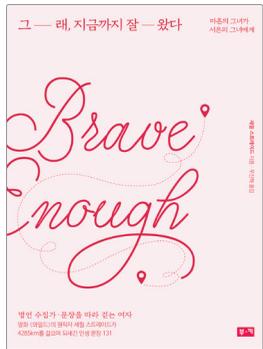
노력보다 타력, 의지보다 행동, 열심보다 계속

쓰루타 도요카즈 지음 | 하진수 옮김 | 신국판 변형 | 228쪽 | 13,000원

오늘부터 굿바이 작심삼일!

어중간한 나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의 기술

누구나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조차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언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친구와 내기를 하든 여러 사람과 모임을 하든 '타력他力'을 빌려 지속해야 한다. 타력이란 다른 사람의 힘뿐 아니라 시스템, 환경, 정보 등도 포함한다. 이 책은 어중간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행동 심리 방법을 알려준다. 타력에 의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소한 생각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기' '하루에 사용할 의지력 낭비하지 않기' '실현하고 싶은 일은 완료형으로 암시해 보기' '하루에 사용할 의지력 낭비하지 않기' 등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셀프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쳐 준다.



그래, 지금까지 잘 왔다

마흔의 그녀가 서른의 그녀에게

세릴 스트레이드 지음 | 우진하 옮김 | 사륙판 변형 | 244쪽 | 14,000원

세계적 베스트셀러 《와일드》의 작가, 세릴 스트레이드의 서른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용기의 문장 131가지

4,285km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완주 경험을 담은 에세이 《와일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저자는 여덟 살 때 외할머니가 말해 준 속담 "항상 친절하되 사람을 가려 대하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결 하라"를 시작으로 좋은 글귀를 발견하면 닥치는 대로 옮겨 적는 '명언 수집가'가 되었다. 세릴은 힘겨운 서른을 지나고 있는 그녀들을 위해 평생 수집한 명언들을 한데 묶기로 결심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조언부터 책에서 얻은 빛나는 글귀, 그리고 자신이 '슈거'라는 필명으로 상담해 준 글에서 뽑아 낸 보석 같은 문장들을 담았다.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

크리스텔 프리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국판 변형 | 316쪽 | 14,800원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왜 자꾸만 이용당하는 걸까?”

크리스텔 프리콜랭 '심리 처방'의 결정판

놀랍게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영리한 사람일수록 심리 조종에 빠지기 쉽다. 역설적이지만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상대의 관점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에 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자신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거짓말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일부러 갈등을 조장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측은지심을 '약용'하여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 능하다. 심리 조종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빠도 못 추릴 만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이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의 삶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심리 조종자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왜 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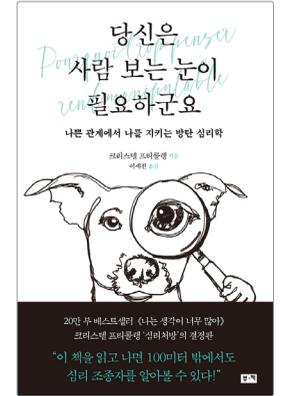
더 괜찮은 나를 위한 마음 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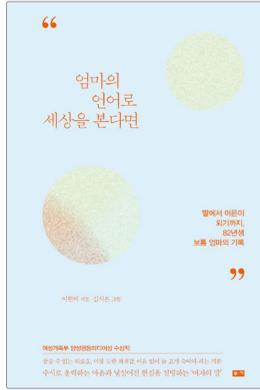
크리스토프 앙드레 외 지음 | 이세진 옮김 | 사륙판 변형 | 540쪽 | 15,000원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마음의 문제

프랑스 최고 심리 컨설턴트들의 명쾌한 심리 처방전

“걱정이 많아요.”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직장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요.” “쉽게 포기해요.” “매번 비슷한 연애를 해요.” 이런 문제들은 매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극복하기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왜 이러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이 책은 180여 명의 심리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성별, 세대, 직종을 아우르는 100가지 마음의 문제를 선별했다. 그리고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심플하면서도 명쾌한 솔루션을 마련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 행동, 감정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정과 의도가 숨어 있다. 이 책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준다.





엄마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딸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82년생 보통 엄마의 기록

이현미 지음 | 김시은 그림 | 국판 변형 | 336쪽 | 14,800원

아이를 키움으로써 다시 만난 세상, 그 시간에 대하여

이 책은 30대를 살고 있는 '보통 엄마'의 흔한 일상을 그린 에세이인 동시에 결혼으로 '여자의 현실'에 직면한 30대 기혼 여성의 인생 현장 보고서다. "우리는 왜 아이를 낳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 1부 엄마(모성신화), 2부 나(성장과정, 가정환경), 3부 아이(양육 태도, 육아 고충), 4부 고양이(육아와 육묘), 5부 남자(성역할, 가부장제), 6부 세상(맘충, 노키즈존, 약자 배려)으로 질문과 고민을 확장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라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2018 세종도서 문학나눔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

이수희 지음 | 신국판 변형 | 264쪽 | 13,800원

세상의 무례함에 맞서는 아이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

자녀 없는 많은 부부와 여성들은 '이기적인' '철이 안 든' '어딘가 좀 모자란' '비정상' 취급을 받고 있다. 정말 그럴까? 이 책은 n포 세대, 저출산, 울로, 당크, 모성애 강요, 난임 시장의 폐쇄성, 어르신들의 언어폭력, 국가 시스템의 한계 등 한국의 가족주의 사회에서 아이 없이 사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또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사회에서 직면하는 일들에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 준다. 결혼·출산·모성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아이 없는 삶을 택한 여성들이 오롯이 자신을 마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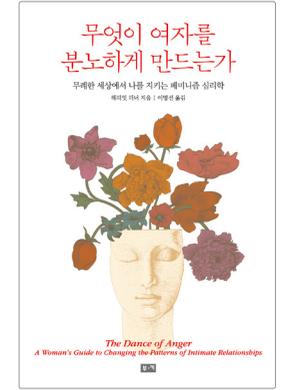
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페미니즘 심리학

해리엇 러너 지음 | 이명선 옮김 | 신국판 변형 | 312쪽 | 15,000원

세대를 거듭하여 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여성학의 교본

"분노는 어떤 신호,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신호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분노는 다른 감정들처럼 관심과 존중을 받아 마땅한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분노하는 대신 침묵하고, 분노를 부인하라고 가르친다. 분노를 드러내면 '여자답지 못하다' '이기적이다' '공격적이다'는 비난을 듣는다. 그러므로 화를 내면서 싸우는 대신, 분노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자기(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 바람, 신념)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여성들은 삶에서, 특히 인간 관계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독립과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1년만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완벽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불안한 그녀의 인생 새로고침

손다 라임스 지음 | 이은선 옮김 | 사륙판 | 432쪽 | 15,800원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을 찾은 40대 싱글맘 이야기

TV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범죄의 재구성> <스캔들>의 작가 겸 제작자 손다 라임스는 성공한 흑인 여성이다. 모두가 그녀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손다 역시 순도 100퍼센트의 행복을 즐기며 사는 것은 아니었다. "너는 뭐든 좋다고 하는 법이 없지." 언니가 우연히 내뱉은 이 한 마디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마음속 울림이 그녀를 깨웠고 그날 이후 손다 라임스는 1년 동안 자신 앞에 놓인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무게부터 인생관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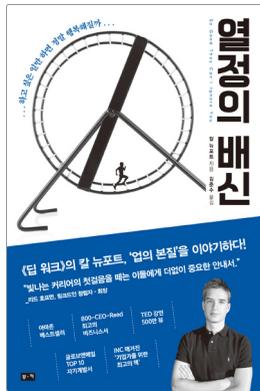
클래식 브런치

원전을 곁들인 맛있는 인문학

정시몬 지음 | 신국판 변형 | 488쪽 | 18,000원

여유와 격조의 향연,
클래식 음악의 명장면으로 음미하는 '음악의 맛'

철학, 세계사, 세계문화에 이은 네 번째 브런치 시리즈. 음악이란 의미와 가치를 따지기보다 우선 그 맛을 느껴야 한다는 기치 아래 '대책 없는 간서치毒書癡' 정시몬이 클래식 음악의 향연을 맛깔나게 차렸다. 이 책은 바로크 시대를 연 비발디, 바흐, 헨델,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낭만주의 음악을 전개한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등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러시아와 미국에서 활동한 20여 작곡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들이 이룩해 낸 걸작들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열정의 배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칼 뉴포트 지음 | 김준수 옮김 | 신국판 변형 | 272쪽 | 15,000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열정론'은 틀렸다
'업의 본질'에 대한 탐구 끝에 얻은 일의 절대 원칙

저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성공한다는 열정론과 "열정을 따르라"는 조언은 틀렸으며 위험하기까지 한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될까? 저자는 "열정을 따르지 마라"는 대원칙 아래 벤처 투자자, 방송작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뮤지션, 과학자 등 자신의 일에 크게 만족하는 직업인들의 경험담과 다채로운 연구 자료를 통해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라" "지위보다 자율성을 추구하라" "작은 생각에 집중하고, 큰 실천으로 나아가라"는 원칙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매력적인 커리어를 성취할 수 있는 로드맵을 소개한다.

지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가장 완벽한 삶의 공간을 향한 7가지 인생 질문

모나 솔레 지음 | 박명숙 옮김 | 신국판 변형 | 496쪽 | 19,000원

'사는(居) 곳'에서 '파는(賣) 곳'이 되어 버린 시대에
'집'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우아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

이 책은 고시원에서 세어하우스까지, 탄력 근무제와 재택근무까지 주거의 시공간적 기준이 달라진 시대에 집이라는 '공간',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서의 '노동', 궁극적인 '이상향'에 대한 철학적·사회적 통찰이 엮이는 에세이면서 '집에 대한 가장 지적이고 집요한 탐구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 인터넷과 SNS의 폐해, 집값 폭등과 경제 문제, 집안일과 여성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로운 가족 모델, 주거 형태의 미래 등의 주제를 《오디세이아》 《공간의 시학》 《해리 포터》 《하울의 움직이는 성》 《스타워즈 4》 등 고전과 대중문화와 접목시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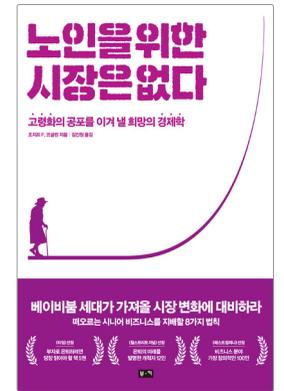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고령화의 공포를 이겨 낼 희망의 경제학

조지프 F. 코글린 지음 | 김진원 옮김 | 신국판 | 488쪽 | 20,000원

장수 경제 시대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
떠오르는 시니어 비즈니스를 지배할 8가지 법칙

203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은 24%에 이를 것이며, 평균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할 것이다. 바야흐로 장수 경제 시대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인 오늘날의 노년층은 예전의 노년층과 확연하게 다르다. 단순히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으며 자립적이고 품격 있는 삶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은 점차 커질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이가 여전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기회와 가능성을 놓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순한 신체적 필요를 넘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대기업과 협력해 온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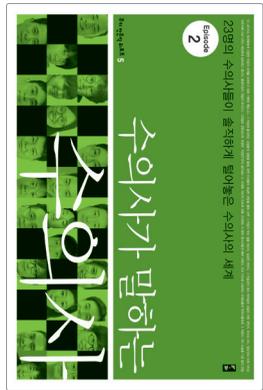
구마라집 평전

한역 불경의 역사를 새로 쓴 푸른 눈의 승려

공빈 지음 | 허강 옮김 | 신국판 변형 | 704쪽 | 25,000원

역경가 겸 사상가 구마라집의 일대기, 불경 전래사이자 실크로드를 둘러싼 문화사

불경 번역의 새 역사를 쓴 위대한 역경가, 동아시아에 대승 중관학의 공 사상을 전파한 사상가, 지혜 제일의 사리불이 재현했다고 일컬어 지던 천재적 고승. 이 책은 4세기 중앙아시아 구자에서 태어나 5세기 중국 장안에서 300여 권의 불경을 한역하고 3,000여 명의 제자를 키우며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구마라집의 일대기다. 이 평전은 정대(正大)하고 숭고(崇高)했던 고승의 일대기를, 《진서》(위서) 《자치통감》 등 역사적 전거를 싸줄로, 《고승전》(출삼장기집) 대소승경전 등 불교 전적을 날줄로, 그 사이를 문학적 상상력과 불학 사상으로 점점이 수놓으며 완성했다.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Episode 2

23명의 수의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수의사의 세계

이학범 외 22인 지음 | 신국판 | 336쪽 | 14,800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수의사 진료 가이드

동물병원, 수족관과 동물원, 한국마사회, 야생동물구조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현직 수의사 23인의 일과 일상, 보람과 애환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 동물 전문 치과·안과 병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수의 전문 변호사 등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다채로운 직업군을 업데이트하였다.

비사이드 B-Side

Always B-Side You

비사이드는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의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부키의 새로운 출판 브랜드다. 성별과 세대를 아울러 가볍게 즐기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독자에게 선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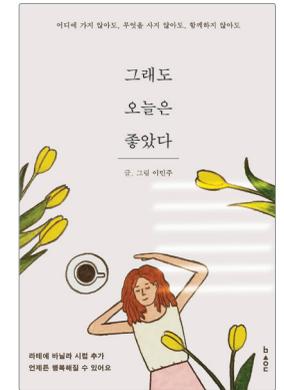


어디에 가지 않아도, 무엇을 사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은 좋았다

이민주(무궁화) 지음 | 사륙판 변형 | 208쪽 | 14,000원

'아무 일' 없던 날에도 '특별한 순간'은 있다 스물다섯, 방구석 일러스트레이터의 일상 수집 에세이

대학 재학 시절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첫발을 내딛은 작가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활동한다. 누군가 정해 준 룰도, 기준도 없는 게 불안한 나날 속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발견한 '어렵듯한 행복'을 그림 속에 담아낸다. 남을 의식할 필요 없는 행복의 순간들, 오로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서툴지만 진심어린 필치로 그리고 쓴다. 청춘들은 매일 같이 특별한 일상을 사는 듯한 SNS 속 사람들을 흉내 내는 것조차 벅차다. 그런 그들에게 작가의 글과 그림은 '무언가를 사거나 어딜 가야만 행복한 건 아니야'라고 말해주며 자극적인 행복에 가려 우리가 잊어 온 행복의 순간으로 안내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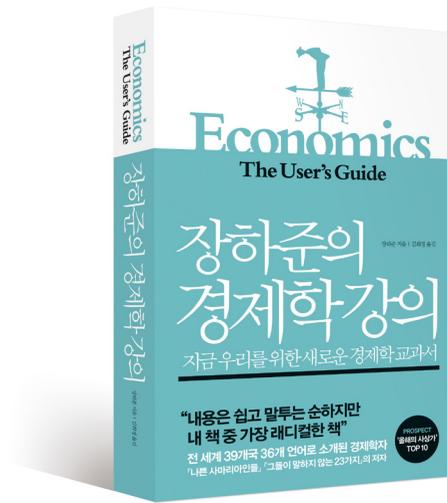




시장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되기도 하고 악똥이 되기도 한다

장하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에 《사다리 건너가기》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뮌헨 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하며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개발도상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기보다는 기간산업을 보호·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 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저작을 통해, 성장을 이룬 뒤 '사다리'를 건너치는 선진국의 행태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자문에 응하고 있는 그는 현재 한국의 경제학자 중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로 꼽히고 있으며,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 Prospect》가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장하준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최고의 비평가이지만 반(반)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_옵서버
장하준은 새로운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다. _캐나다 작가협회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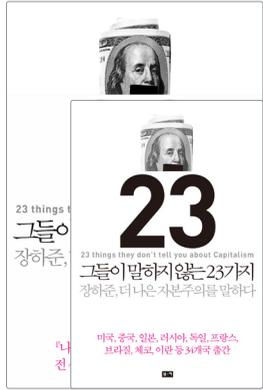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96쪽 | 16,800원

- 2014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 2014 한겨레가 뽑은 '올해의 책'
- 2014 예스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14 인터파크 골든북 자기계발 분야 올해의 책
- 2014 중앙일보·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좋은 책'
- 2014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선정 '올해의 비즈니스 북 10선'
- 2014 책과 함께 떠나는 서울시민 여름휴가 추천도서
- 2015 매일경제 선정 '2015년을 여는 책 50'
- 2015 북모닝 CEO 선정 '직장인 필독서'

금융 위기 이후 세계가 기다리던 경제학 입문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이 쓴 '지금 우리를 위한' 경제학 사용 설명서. 금융 위기 이후 누군가가 꼭 써 주기를 기다려 왔지만 아무도 선풍 총대를 메지 않던 바로 그 작업을 장하준 교수가 흔쾌히 맡아 나섰다. 30여 년간 유일한 경제학적 진리로 군림하면서도 금융 위기에 아무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소개하여 경제와 경제학을 새롭게 보여 준다. 이 책은 새뮤얼슨, 맨큐 등 경제학자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하나의 경제학 입문서가 아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아니 현실을 호도해 온 경제학을 근본에서부터 뒤집는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이자, 일부 경제학자들의 전유물이나 지적 유희 대상으로 전락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생산과 경제 활동의 주역인 평범한 시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되돌리려는 노력이다.

경제학 입문서이자, 참고서이자, 간략한 세계 경제사, 과학이라 자처하는 경제학에 날리는 강력한 보디블로! _《가디언》
무엇이 경제를 움직이며 금융 위기는 왜 닥치는가, 경제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경제를 보는 눈을 키워 준다. _《조선일보》
주류 경제학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부추긴 주류 경제학의 사고 구조와 이론적 문제점을 파헤친다. _《동아일보》
경제를 몰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 사용 설명서'다. _《한겨레》
한마디로 어렵지 않고 잘 읽히는 경제학 입문서다. _《매일경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가치중립적으로 경제 현상을 꿰뚫어 설명한다는 점이다. _《서울신문》



장하준 지음 | 김희정·안세민 옮김
신국판 368쪽 | 14,800원
페이퍼백 400쪽 | 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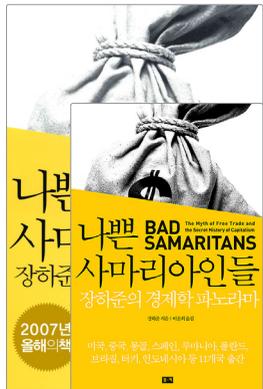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경제 문제를 말하는 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기업은 소유주 이익만 고려하면 되는 걸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까? 미국에서 보듯이 경영자들의 보수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을 보이기 때문일까? 기업에 유리한 정책은 국가 경제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확대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까? 교육을 많이 시키면 나라가 더 부유해질까? 이 책은 우리가 무심코 볼까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경제 문제 23가지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주변 사례를 가지고 그 이면을 짚어 준다.

2011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추천도서 / 2011 인터파크 예스24 '올해의 책' / 201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1월의 읽을 만한 책' / KBS1 '책읽는 밤' 주제 책 선정, 추천도서(77회) / 2010 알라딘 종합 1위 11주 / 2010 알라딘·교보·인터파크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 2010 교보문고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도서 / 2010 매경 이코노미 18개 서점 베스트셀러 집계 최초 500점 만점 / 2010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시사인, 프레시안 선정 '올해의 책' / 34개국 출간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신국판 384쪽 | 14,000원
페이퍼백 432쪽 | 9,800원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50만 독자가 선택한 장하준의 경제학 특강

《사다리 건너치기》《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장하준 교수가 보통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본격 교양 경제서. 자유 무역이 진정한 개발도상국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를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가 정말 늘어나는지, 공기업 문제가 과연 민영화로 해결 가능한지, 지적재산권이 실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경제 발전에 적합한 문화나 민족성이 있는지 등 우리 시대의 현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나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하게 답해 준다.

2008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2008 예스24·알라딘·교보·인터파크 선정 '올해의 책' / 48회 한국출판문화상 인문교양부문 수상 / 2007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 2007 조선·중앙·동아·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 2007 TV 책을 말하다 선정 '올해의 책' / 문화일보 한국인이 사랑하는 스테디셀러 10 / 미국·영국·루마니아 등 총 16개국 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지음 | 신국판 변형 | 424쪽 | 14,900원

장하준, 독자에게 묻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7년 만에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세 사람이 한국 경제 정밀 진단을 위해 다시 뭉쳤다. 대담집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에서 세 저자는 오늘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책임은 주주 자본주의화, 금융 자본주의화를 '시장 개혁' 내지는 '경제민주화'라고 착각한 일단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해결책은 '스웨덴식 생산적 복지국가'에 있다고 말한다. 스웨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까지 지닌한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복돋는다.

2012 6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2012 예스24 올해의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 / 2012 중앙일보&교보문고 선정 '올해의 좋은 책' / 2012 한겨레가 뽑은 '올해의 좋은 책' / 2012 한국경제신문 경제경영분야 '올해의 책'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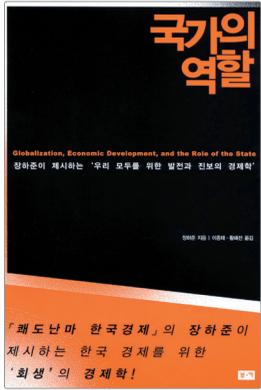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 이종태·황해선 옮김 | 신국판 | 280쪽 | 13,000원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국가의 역할》 등의 저작을 통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의 경제 정책 매뉴얼. 신자유주의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실증적인 반박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담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금융 산업 재편, FTA 등의 문제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책 외에 어떤 것이 있으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활용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

2008 한겨레 선정 '올해의 책'





국가의 역할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 이종태·황해선 옮김 | 신국판 | 496쪽 | 16,000원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논박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대안은 최종적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이다. 장하준은 우리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07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06 출판편집자가 뽑은 ‘올해의 책’
2006 한겨레·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패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의 정승일의 걱정대화

장하준·정승일 지음 | 이종태 엮음 | 신국판 | 240쪽 | 9,800원

경계선 없는 뜨거운 토론! 장하준, 정승일의 한국 경제 진단과 해법!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386세대 학자인 정승일 국민대 겸임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장하준과 정승일은 대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 및 보수와 진보의 해묵은 이념 대립을 넘어, 좌우를 포함하는 다이나믹한 주장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편입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21세기 한국 경제에 화두를 던져 준다.

2005 TV 책을 말하다 단독 방영
2005 중앙·한겨레·경향·교보문고·네이버 선정 ‘올해의 책’
46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 형성백 옮김 | 신국판 | 328쪽 | 12,000원

뮌헨 상 수상 영광을 안겨 준 세계적인 경제 비평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고발한 경제 비평서. 역사적 사실과 통계를 기반으로 재산권 보호와 경제 발전과의 연관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실효성 등 그간 통념이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문제들에 대해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뮌헨 상 수상 영광을 안은 역작이다.

200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04 한겨레가 뽑은 상반기 10권의 책
2003 뮌헨 상 수상
한국일보 선정 ‘우리 시대의 명저’



개혁의 뒀

장하준 지음 | 신국판 | 252쪽 | 9,800원

‘개혁’에 사로잡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을 반박한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경제 흐름을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게 할 방법은 없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자유롭게 써 나간 경제 에세이. 장하준은 현재의 우리 경제를 ‘개혁’이라는 ‘뒀’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른바 진보 세력이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신자유주의자들과 아합함으로써 성장은 없이 빈곤층만 양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200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대학신입생권장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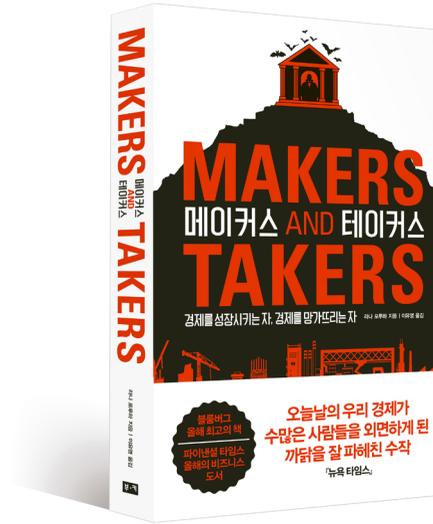




내부자적 '식견'과 탄탄한 '팩트'로 무장한 최강의 경제 평론가, 라나 포루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글로벌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이자 부주필이며, CNN의 글로벌 경제 애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1992년 컬럼비아 대학교 바너드 칼리지를 졸업하고, 《뉴스위크》에서 13년을 일하면서 경제 및 국제 부장, 유럽과 중동 특파원을 역임했다. 당시 유럽 문제 보도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마셜 기금의 피터 와이츠 상을 수상했다. 이후 《타임》지에서 6년간 편집차장 및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이스트 웨스트 센터 같은 여러 기관에서 각종 상과 펠로십을 수여받았다. 미국 외교협회 종신 회원이다.

포루하는 심층 취재 및 월가 및 워싱턴 고위급 인사들과의 독점 인터뷰를 바탕으로, 금융화 추세가 저성장과 임금 정체, 빈부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경제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태를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에 담았다. 지난 100여 년간 진행된 금융화의 중심에 자리했던 로버트 맥나마라나 잭 웰치 같은 실존 인물과 시티그룹, 포드, 화이자 같은 기업들에 얽힌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사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월가와 워싱턴의 밀월 관계에서부터,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세법, 1970년대 말부터 40여 년에 걸쳐 누적된 여러 정책적 실책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린 까닭을 살핀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를 뒤집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과제를 알려 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바로 금융과 실물 경제, 즉 '거저먹는 자'와 '만드는 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찾는 것임을 역설한다.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경제를 성장시키는 자,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

라나 포루하 지음 | 이유영 옮김 | 신국판 | 532쪽 | 18,000원

비즈니스 저널리즘의 최고봉에 오른 라나 포루하가 쓴 실로 강력한 책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치유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다. 금융화란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되어 버린 현상을 뜻한다.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드는 자 maker'들은 '거저먹는 자 taker'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만드는 자'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일군의 사람, 기업, 아이디어다. '거저먹는 자'는 고장 난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로, 여기에는 다수의 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CEO, 정치인, 규제 담당자까지 들어간다. 월가와 워싱턴의 밀월 관계,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세법, 1970년대 말부터 누적된 여러 정책적 실책을 살피는 이 책은 금융과 실물 경제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찾을 것을 역설한다.



플랫폼 레볼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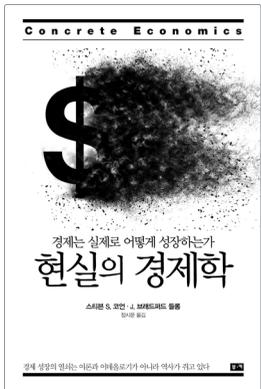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터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 지음 | 이현경 옮김 | 신국판 변형 | 512쪽 | 22,000원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개설서이자 스터디 케이스 북.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석학 마셜 밴 앨스터인 보스턴 대학 교수, 상지트 폴 초더리 플랫폼 싱킹 랩스 설립자, 제프리 파커 다투머스 대학 교수가 공동 저술했다.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플랫폼 디자인, 기존 기업의 대응 방법, 론칭 방법, 수익 창출에 대한 고찰, 일반 비즈니스와 차별화되는 경영 지표와 경영 전략, 효과적인 규제,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회생양 등을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케이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2018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현실의 경제학

경제는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스티븐 S. 코언, J. 브래드퍼드 들롱 지음 | 정시문 옮김 | 국판 | 264쪽 | 15,000원

**경제 성장의 열쇠는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역사가 쥐고 있다**

경제 불황의 시대, 모두가 다시 묻기 시작한 질문. 경제는 언제 성장하는가?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미국 경제사에 정통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스티븐 S. 코언과 J. 브래드퍼드 들롱이 미국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대답한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인 미국조차 비교적 최근까지 시장의 힘에만 경제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고, 그랬기에 경제 성장에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혁신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불황의 이유는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 통찰할 수 있다.

직업의 종말

불확실성의 시대 일의 미래를 준비하라

테일러 피어슨 지음 | 방영호 옮김 | 신국판 변형 | 263쪽 | 15,000원

**전문직 신화가 종말을 고하는 시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책의 저자는 안드레센-호로위츠 공동 설립자 마크 안드레센의 말을 빌려 직업 경력을 계획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인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결국 좌절감만 안겨 주는 무의미한 행위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기회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바로 앙트레프레너십, 즉 창업가정신을 구현하라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찾기보다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을 만들어 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헤매느냐, 자기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2018 세종도서 교양 부문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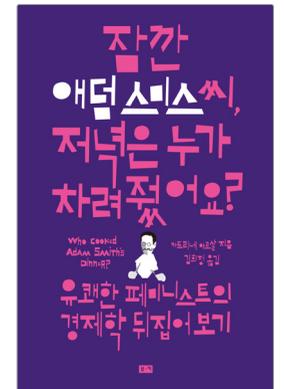
유쾌한 페미니스트의 경제학 뒤집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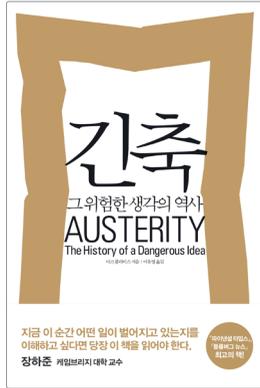
카트리네 마르살 지음 | 김희정 옮김 | 국판 변형 | 328쪽 | 15,000원

**애덤 스미스의 저녁을 차린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그가 잊은 게 있다. 바로 '사랑'으로 저녁을 차려 준 그의 어머니다. 잊힌 것이 그뿐이겠는가? 푸줏간·양조장·빵집 주인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했던 그들의 부인이나 누이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그가 구상한 세상은 단 하나의 경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남성만이,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만이 의미를 갖는 경제.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초기 사상부터 현대 여성들이 직면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뿐 아니라 현대 금융 위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날카롭게 풀어 나간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 2018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마크 블라이스 지음 | 이유영 옮김 | 신국판 | 544쪽 | 22,000원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을
경제학과 경제정책의 역사를 넘나들며 파헤치다**

긴축은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친숙한 단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다. 그러나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터진 나라들은 한국과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는 기존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주택 담보대출 같은 금융상품으로 떠받쳐진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문제들을 배경으로 재정 위기가 터져 나왔다. 유럽이 겪고 있는 높은 실업률과 정치적 불안정을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경험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크 블라이스의 이 책은 바로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 '긴축'을 키워드 삼아 2008년 이후의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명쾌하고 짚음으로써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제시해주고 있다.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직접 출원에서 창업까지 특허 달인의 실전 가이드

허주일 지음 | 사륙배판 변형 | 240쪽 | 18,000원

**평범한 아저씨에서 '특허의 달인'으로
온몸으로 배운 달인의 노하우 대공개!**

엔지니어 출신도 아니고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닌, 평범한 아저씨가 3년간 100건의 특허를 직접 출원하며 '특허의 달인'이 되기까지, 맨땅에 헤딩하면서 온몸으로 배운 특허 실전 노하우를 모두 담았다.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 발상법과 특허 수익화 방법은 물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요 팁과 각종 지원 정책 정보까지, 특허를 직접 출원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당신도 특허 달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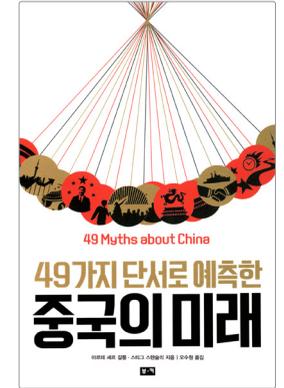
49가지 단서로 예측한

중국의 미래

마르테 세르 갈통·스티그 스텐슬리 지음 | 오수원 옮김 | 신국판 | 352쪽 | 16,000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이 전 세계를 사들일 것이다? 중국인들은 돈만 밝힌다?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호전적인 독재 국가이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예측은 왜 늘 극단적인 걸까. 우리는 편견 없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저자들은 중국의 경제부터 정치, 국민, 외교, 역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정설'로 알려져 왔던 통념과 신화를 날카롭고 유쾌하게 깨부숨으로써 중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확한 현실 인식으로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공백을 하나씩 채워 나감으로써 중국의 미래를 발견해 나간다.



불곰의 주식투자 불패공식

60개 매도종목 평균 수익률 62%

불곰, 박선목 지음 | 신국판 변형 | 376쪽 | 16,000원

**잘못된 주식투자 습관을 버리고
절대로 지지 않는 투자법을 체득한다**

2010년 8월에 문을 연 이래 71개월간 60개 매도종목으로 평균 수익률 62퍼센트를 달성한 불곰주식연구소의 투자 노하우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1부 '불곰의 가치투자 이론'에서는 '시황분석'과 '단타매매' 등 사람들이 흔히 빠져드는 나쁜 습관을 버릴 것을 강조하고 나서, 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무제표 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 2부 '불곰의 가치투자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불곰주식연구소 추천 종목 15개의 실 제 투자 과정을 함께 분석해 본다. 재무제표와 아이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것을 권하는 이 책은 매일의 주가 등락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여유롭고 행복 한 가치투자법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마흔 넘어 창업

뒤늦게 창업해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원칙

린 베벌리 스트랭 지음 | 정주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272쪽 | 16,000원

나이 들어 창업해 성공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오히려 마흔 넘어 창업하는 게 유리한 점이 많다. 풍부한 인생 경험이 사업의 부침을 건디게 하고 남다른 고객 서비스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분야에 진출했지만 성공을 거둔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전의 업무 경험보다는 사업가적인 자질과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성공한 늦깎이 창업자들은 큰돈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다.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아껴서 종자돈을 마련하고 연 매출 500만 달러에 이르는 기업을 일구어냈다. 그들의 구체적인 조언과 풍부한 사례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 창업의 8가지 원칙과 함께 충실히 담겨 있다.



난생처음 사장

지지만 받다 지사하는 날이 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린지 폴락 지음 | 한유선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4,800원

난생처음 리더가 된 젊은 당신을 위한 실전 리더십 가이드

첨단기기와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고 YOLO(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와 FOMO(fear of missing out,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젊은 세대. 이 책은 이 젊은 세대 리더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상황과 고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극복에서부터 나이 많은 직원관리, SNS 인맥관리,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드 구축 등에 관한 조언뿐 아니라 다양한 통계자료와 미래 분석까지, 젊은 리더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과 다양한 사례는 창업자와 기업의 관리자, 나아가 미래에 리더가 되고 자 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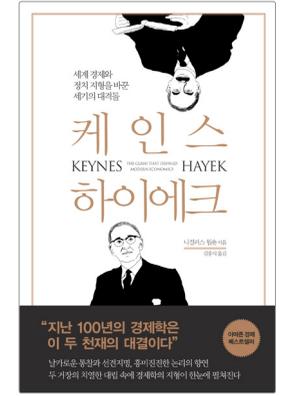
케인스 하이에크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격돌

니컬러스 윌스 지음 | 김홍식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632쪽 | 25,000원

경제학의 오늘을 만들고 세계 정치 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결!

오늘날까지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경제학계 숙명의 라이벌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100년에 가까운 대격돌을 담았다. 논쟁의 세부적인 정황들과 전개 과정, 개인사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부터, 둘의 대결이 경제 사조를 형성하고 시대의 사상과 정치관으로 확산되는 큰 흐름까지, '케인스 vs 하이에크의 미사사와 거시사'를 한데 아우른 책이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저자는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원전들을 충실히 분석해 두 사람의 대결을 훌륭하게 재구성한다. 균형 있는 관찰자의 시각을 시종일관 유지하면서도, 논쟁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 인물 심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까지 곁들여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생생하게 재현해 낸다. 이 책은 출간 직후 화제를 뿌리며 미국 아마존 경제 부문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다.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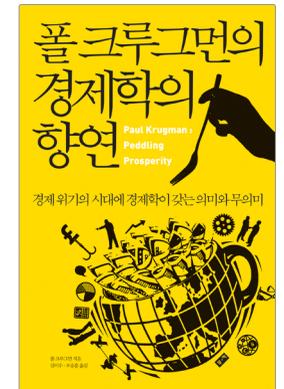
경제 위기의 시대에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무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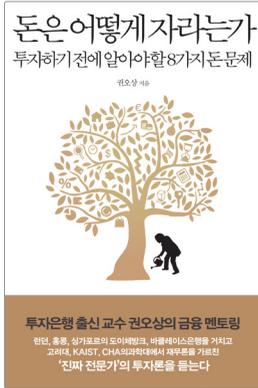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이수·오승훈 옮김 | 신국판 | 388쪽 | 16,000원

경제사상과 정치권력의 상호 작용을 규명한 현대 경제학의 지성사!

현대의 경제학 이론이 현실 경제 및 정치권력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경기 순환·통화·성장·생산성·조세·예산 적자·산업 정책·무역 등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적절한 사례와 사고 실험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학이 현실 경제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 현실과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안목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2012 10월 복리펀드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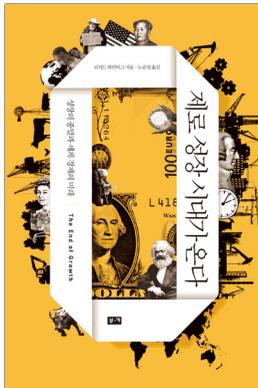
돈은 어떻게 자라는가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8가지 돈 문제

권오상 지음 | 신국판 변형 | 272쪽 | 15,000원

투자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최소한의 금융 지식

투자은행 출신 교수 권오상의 금융 멘토링. 현장과 학계를 두루 경험한 저자는 현실 세계의 돈과 학문 영역의 돈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실감 하고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현실의 돈에 관한 기초 지식부터 투자 이후의 위험 관리까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돈이 자라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조심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쉬운 비유와 재밌는 사례로 소개한다. 중견 투자자, 초심자 할 것 없이 돈을 모으고 불려가야 할 모든 현대인에게 유용한 책이다.



제로 성장 시대가 온다

성장의 종말과 세계 경제의 미래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노승영 옮김 | 신국판 | 448쪽 | 17,000원

성장이 멈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탁월한 안내서

'석유 정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저자가 성장에 기반한 경제학이 적시하지 못하는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탁월한 전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원 고갈, 환경 재앙, 부채 급증에 직면한 경제가 더는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또한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평형 경제' 속에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한다.

'분명'하고 '당연'한 경제적 진실을 가리는 왜곡된 통념을 몰아내는 아주 중요한 책. _빌 매키번, 《자원의 종말》 저자

2013 환경정의 선정 '다음 100년을 살리는 환경책'

중국의 슈퍼 컨슈머

13억 중국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사비오 첸·마이클 자쿠어 지음 | 홍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20쪽 | 15,800원

중국 소비자 전략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 슈퍼 소비자의 모든 것

거대 소비군단으로 떠오른 중국인 그리고 중국. 덩샤오핑이 '개혁과 개방'을 외친 지 30년 만에 세계 최대 시장으로 거듭난, 이 혁명과도 같은 성장의 동력은 무엇일까? 중국의 소비 현황과 함께 탄생한 슈퍼 소비자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매할까? 스티브 잡스를 도와 아이폰의 중국 진출을 성공시킨 마이클 자쿠어와 미중 협력체결 및 중국 명품 소비 전문가 사비오 첸이 근대적 개념의 소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중국과 중세 그리고 공산주의 시대를 거쳐 소비 현황기를 맞은 중국 경제와 중국의 슈퍼 소비자를 집중 분석한다.

서울경제 선정 '2015 올해의 책'(경제경영)



G2 전쟁

슈퍼 달러의 대반격

레이쓰하이 지음 | 허유영 옮김 | 신국판 | 384쪽 | 14,800원

현대 통화 전쟁의 본질과 정수를 요약한 결정판

이 책은 향후 몇 년간 G2의 금융 전쟁과 대결 양상을 예측한 전망서이 기도 하지만, 통화 패권의 본질과 달러 자본의 속성을 과감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국제 금융론 텍스트로서도 읽을 만하다. 달러가 세계 통화 패권을 차지하는 과정, 유로달러와 CDS(신용 부도 스왑)이라는 금융 무기의 위력, 또 미국이 환율을 이용해 어떻게 세계적인 부의 재편을 달성했는지를 리드미컬하게 보여 줌으로써 현대 통화 전쟁의 거시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전 세계의 부가 블랙홀처럼 미국과 달러 자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원리와 기제를 쉽고 명료하게 묘사 하고 있어, 통화나 금융 용어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유행처럼 무분별하게 통용됐던 화폐 전쟁 개념을 밀도 있게 정제한 '화폐 전쟁' 담론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경제학자의 영광과 패배

케인스에서 크루그먼까지
현대 경제학자 14명의 결정적 순간

히가시타니 사토시 지음 | 신현호 옮김 | 신국판 변형 | 416쪽 | 16,000원

한 권으로 만나는

20세기 대표 경제학자 14명의 삶과 이론

케인스, 프리드먼에서 크루그먼, 스티글리츠까지 내려라하는 20세기 경제학자 14명의 삶과 이론을 고스란히 담은 현대 경제학 입문서. 그 간의 경제학 입문서에서 만날 수 없었던 베커, 포스너, 드러커, 실러 등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그래프나 수치를 활용한 난해한 설명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제학자 개인의 인생 속 명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약탈적 금융 사회

누가 우리를 빚지게 하는가

제윤경·이현욱 지음 | 신국판 변형 | 264쪽 | 13,800원

못 값을 줄 알면서도 빌려준 약탈적 금융을 고발한다!

가계 부채 1000조, 집에 과도한 빛이 떨어진 하우스 푸어가 150만 가구, 대한민국 가계의 60퍼센트가 빚을 진 시대. 저자들은 약탈적 금융 시스템을 배후로 지목한다. 외환위기 직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하에서 약탈적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금융권이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소비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왜 금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낱알이 고발한다.

2012 시사인 '독서리더들이 꼽은 올해의 책'

20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11월 이달의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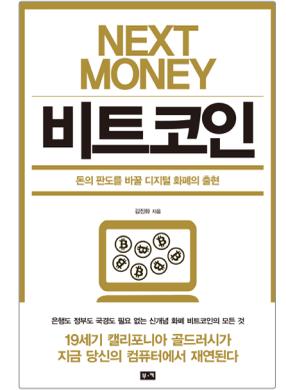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

돈의 판도를 바꿀 디지털 화폐의 출현

김진화 지음 | 신국판 변형 | 280쪽 | 16,000원

디지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소개한 국내 첫 책

코빗거래소 공동설립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김진화가 세계 최초 P2P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 금융 거래 시스템인 동시에 중앙 정부나 발행 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 구조의 글로벌 전자 화폐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담은 입문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베일에 싸인 설계자의 이야기부터, 발행 방법과 유통과정에 관한 기술적인 설명이 들어 있으며, 비트코인 등장 시작하기, 주요 거래소 및 사이트 안내,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등 실용적인 정보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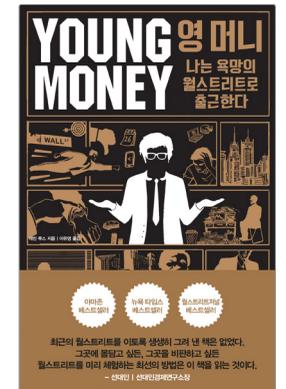
영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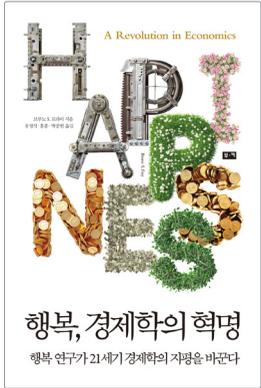
나는 욕망의 월스트리트로 출근한다

케빈 루스 지음 | 이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416쪽 | 14,800원

연봉 15만 달러짜리 미생,
월가 신입사원들의 고군분투와 고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A급 전범'인 월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기독교 대학의 이면을 파헤친 《이질적 사도 The Unlikely Disciple》를 통해 탁월한 잠입 취재 능력을 인정받은 저자가 월가의 신입사원들을 취재한다. 일주일에 100시간씩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와 약탈적 자본 놀이 에 동참하고 있다는 도덕적 회의감에 시달리는 월가의 생활. 저자는 2년에 걸친 취재 기간 동안 8인의 신입사원과 고락을 함께하며 금융위기 이후 월가 신입사원들의 고뇌와 좌절, 욕망을 그려낸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의 지평을 바꾼다

브루노 S. 프라이 지음 | 유정식, 홍훈, 박종현 옮김 | 신국판 | 376쪽 | 18,000원

좀 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 행복 경제학

비용과 편익이라는 결과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춘 표준 경제이론으로는 경제적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이다. 이 책은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인간이 왜 행복을 느끼는지에서 시작하면 분명한 측정치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나아가 이 경제학의 혁명이 '지속 가능한' 행복의 요건을 밝히고, 더 나은 복지와 후생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6 세종도서 학술 부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2015년도 9월에 읽을 만한 책(사회과학)'



화폐 이야기

일곱 개의 키워드로 읽는 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송인창 외 6명 지음 | 신국판 변형 | 416쪽 | 15,800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화폐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다

이 책은 인류의 화폐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해 현대 사회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화폐에 대한 인류의 애증과 윤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 같은 선구자들은 화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 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관점을 제시한다.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대에 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묻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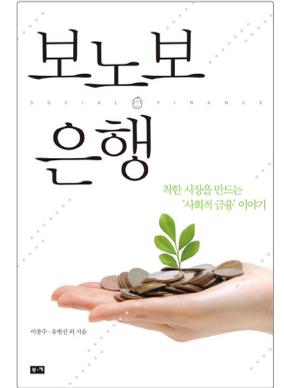
보노보 은행

착한 시장을 만드는 '사회적 금융' 이야기

이종수·유병선 외 지음 | 신국판 변형 | 288쪽 | 14,800원

사회적 금융 전문가 10인이 분석한 미국 및 유럽의 '사회적 금융' 사례 모음집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을 소개한 '착한 금융' 안내서.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시민 센터를 지원하는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 환경을 최우선하는 뉴리소스 은행, 무이자 예금·무이자 대출을 실천하는 스웨덴의 JAK 협동조합은행 등 사회적 금융의 태동기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고할 만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한국의 보노보들

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안치용 외 지음 | 신국판 변형 | 408쪽 | 14,000원

사회적 기업은 이웃과 환경, 문화와 고용, 참살이와 장애인을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36곳에서 만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 낸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한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0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2010 6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보노보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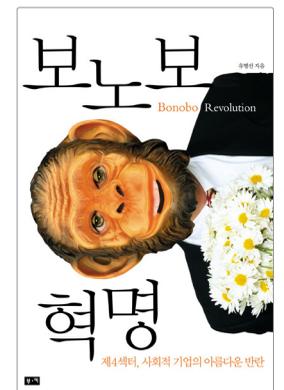
제4섹터,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유병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252쪽 | 12,000원

사회적 빈틈을 메우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보노보 경제학' 이야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던 기업 및 기업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보노보 혁명의 현장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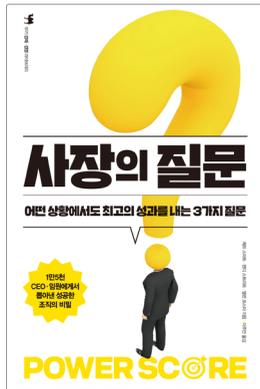
2008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는

-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목적으로 한다.
- 경제학 및 경영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석학들의 저작을 엄선하였다.
- 기존 경제학 및 경영학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라이브러리 시리즈를 읽고 나면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출 수 있다.



사장의 질문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3가지 질문

제프 스마트 외 지음 | 이주만 옮김 | 신국판 변형 | 232쪽 | 14,000원

1만 5천 CEO·임원에게서 뽑아낸 성공한 조직의 비밀

인재 채용의 필승 전략을 제시한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로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저자들이 이번에는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리더십의 성공 공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1만 5천 명 CEO 및 임원들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벌였고, 20여 년에 걸쳐 900만 건의 데이터 측정값을 취합했다.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은 적절한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파생금융 사용설명서

선물·옵션에서 구조화금융까지 쉽게 설명한 파생금융의 모든 것

권오상 지음 | 신국판 | 368쪽 | 17,000원

기본부터 핵심까지 '금융의 최첨단' 파생금융의 모든 것!

금융에 몸담은 사람들도차 어려워하는 파생금융을 기본부터 핵심까지 쉽게 설명하는 책. 파생금융의 개념과 유형, 역사와 구조, 가격 결정 원리, 글로벌 현황, 한국의 현주소 등 기초부터 핵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저자가 들려주는 파생금융 이야기에는 생생한 사례와 명민한 진단이 들어 있다. 복잡한 공식이나 그래프 하나 등장시키지 않고 이야기만으로 술술 읽을 수 있어 전공과 무관하게 파생금융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최선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또 금융업계 현직 종사자들, 파생상품투자상담사를 꿈꾸는 이들 역시 이 책으로 파생금융의 본질을 탐구하고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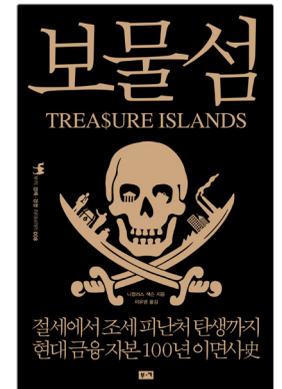
보물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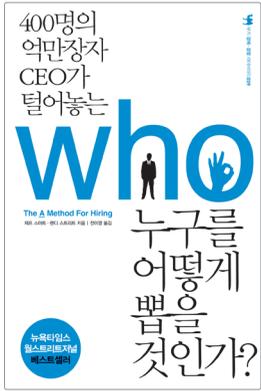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니컬러스 색슨 지음 | 이유영 옮김 | 신국판 | 560쪽 | 20,000원

조세 피난처는 어떻게 현대 금융 자본을 좌우하는가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중핵이나 다름없는 조세 피난처는 지배 엘리트 계급과 범죄자에게 환상적인 도피처이자 거대 금융 이권 세력의 더할 나위 없는 친구다. 이 책은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역외 체제의 지난 100년을 되짚어 보면서 전 세계에 걸쳐 끼친 해악을 드러낸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탈세 전략의 시초였던 영국 베스티 형제의 사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금융 비밀주의 국가로 급성장한 스위스, 역외 유로마켓의 탄생 등 역외 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역외 체제의 부작용과 지지자들의 논리 등을 파헤친다. 역외 비즈니스의 최일선 근무자들과 역외 정책을 입안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400명의 억만장자·CEO가 털어놓는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제프 스마트·랜디 스트리트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24쪽 | 16,000원

현장 노하우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분석력이 결합된 완벽한 채용법

이제 누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CEO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온 제프 스마트와 랜디 스트리트가 '채용'의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20명의 억만장자, 300여 명의 CEO를 대상으로 1300시간을 인터뷰한 자료를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캐플런 박사팀이 통계·분석하여 탄생시킨 채용 기법을 명료하게 소개한다.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비즈니스위크 선정 경영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5개국에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로버트 스킨스키·에드워드 스킨스키 지음 | 김병화 옮김 | 신국판 | 376쪽 | 16,000원

끝없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정신적 뿌리를 검토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 고찰한다. 나아가 오늘의 현실로 한 걸음 바투 다가와 끝없는 욕구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지점까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성장 지상주의에 맞서 활발히 활동 중인 행복 경제학과 환경주의의 논의조차도 진지한 비판적 성찰 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에 대한 반론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잃고 질문조차 포기한 '좋은 삶'이라는 과제를 되살리려는 묵직한 프로젝트다.

2013 시사인 독서 리더들이 꼽은 올해의 책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금융의 탄생에서 현재의 세계 금융 지형까지

이찬근 지음 | 신국판 | 528쪽 | 20,000원

금융 전문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의 전체 그림을 그려 준다!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돼 있는 금융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금융의 종합 개설서'. 금융경제학은 '금융 시장, 금융 상품, 금융 기관, 금융 규제에 대한 여러 이론'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고 역사적 발전을 추적한 뒤 현재의 양상을 소개하는 식으로 풀어 써냈다. 그 과정에서 금융공학에 쓰이는 수학 공식이나 그래프 등은 최소화하여 금융 입문자는 물론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회인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2011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부문 대상

2011 8월 복리펀드 선정도서

2011 한국경제교육협회 선정 '경제교육 추천도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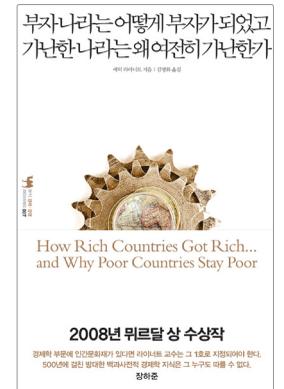
에릭 라이너트 지음 | 김병화 옮김 | 신국판 | 500쪽 | 20,000원

세계 빈부 격차와 국내 소득 양극화는 닮은 꼴이다

고등학교 시절 페루에 갔다가 빈곤에 충격받은 저자가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 가난한지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유럽은 경제 발전의 비결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럼에도 경제 발전에서 영국은 성공하고, 스페인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은폐했는지, 그 결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지가 지금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지난 500년 사이의 문헌학적 증언과 에콰도르, 몽골, 우간다 비극의 현장에 근거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2012 4월 복리펀드 선정도서

2008 워르달 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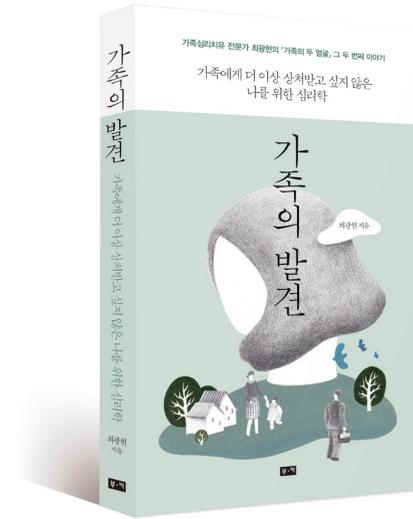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심리 전문가 최광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한없이 벗어나고 싶거나
늘, 거기, 그렇게, 그대로 있어 몰랐던
가족을 돌아보다

그는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가족 안에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 낮은 자존감, 불편한 인간관계 등의 뿌리가 가족 안에 있다고 보고 오랜 기간 가족 문제에 대해 공부하였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본대학교에서 가족상담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가족치료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트라우마를 통한 가족치료를 전공하였다. 트라우마 가족치료는 부부 서로가 나고 자란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감정이 얽히고설키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후 독일 본대학 병원 임상상담사와 루르 Ruhr 가족치료센터 가족치료사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갈등과 아픔을 목도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마음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해 어디에나 많았다. 현재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를 운영 하며 트라우마 가족치료 보급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 치유에 힘쓰고 있다.



가족의 발견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를 위한 심리학

최광현 지음 | 윤나리 그림 | 신국판 변형 | 288쪽 | 13,800원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2월의 입을 만한 책'
2015 2월 고도원의 아침편지 추천도서
2015 '한 책 하나된 용인' 선정도서
2015 진중문고 선정도서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심리학의 눈으로 바라본 가족의 모습에서
나의 진짜 행복을 찾다

《가족의 발견》은 수많은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수년째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족의 두 얼굴》의 저자, 가족심리치유 전문가 최광현 교수가 펴낸 두 번째 가족 이야기이다. 이 책은 '왜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할까?'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더 이상 가족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와 가족을 보듬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과 가족을 다시 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을 통해 늘, 거기, 그렇게, 그대로 있어 몰랐던 가족과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보듬고 공감하여 마침내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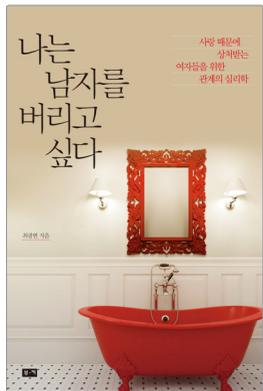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나와 가족의 심리테라피

최광현 지음 | 신국판 변형 | 264쪽 | 13,800원

저마다 건드리면 툭 터지는 상처가 있다
가족과 내 안의 상처, 그리고 치유에 대한 이야기

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을까? 가족에게 내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나고 자란 가족의 아픔이 왜 현재 가족에서도 되풀이될까? 나와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가족에게서 주고받은 상처가 원인일 때가 많다. 그때 자신의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직시하고 공감하다 보면 현재 가족의 문제도, 해결책도 보인다. 이 책은 가족과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상처 치유까지 명쾌하게 짚어 준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 사례는 내 가족 이야기인 듯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 나와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내 안의 상처를 다독이고 위로받을 수 있다.

- 2013 원북원부산운동 선정 올해 부산을 대표하는 원북
-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2012 5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나는 남자를 버리고 싶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들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

최광현 지음 | 신국판 변형 | 256쪽 | 13,800원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왜 상처를 주고받아야 할까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또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관계'는 열심히 노력한 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처주면서도 버릴 수 없어 길을 잃기도 하고, 반복되는 시행착오 속에서 아파하면서 또 마음 기댈 이가 생기면 다시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여자들에게 여 자라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녀 들을 위로하고 극복하도록 이끄는 책이다.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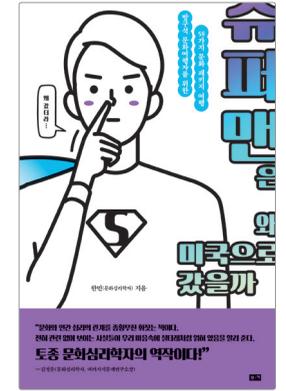
방구석 문화여행자를 위한 58가지 문화 패키지 여행

한민 지음 | 신국판 변형 | 436쪽 | 16,000원

토종 문화심리학자 한민이 알려주는 TV보다
생생하고, 예능보다 유쾌한 문화심리학 이야기

이 책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고 그 속에 숨은 역사적 배경과 시대상, 당대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주는 문화심리학 안내서다. 영웅·영화·피라미드·하얀 흑인·좀비·귀신 등 다양한 소재로 타국인의 마음부터 흥길동·노벨상·드라마·대통령·흙수저·무당·갑질·호갱·자존감 등으로 한국인의 마음까지 낯선 문화, 그 뒤편의 심리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알려준다. 세계 여러 곳의 문화와 관습을 살펴 보며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변화하는지 등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인 이자 세계인이 된 우리에게 '문화심리학'은 살면서 한번은 꼭 공부해야 할 필수 교양이다.

2018 세종도서 교양 부문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마리나 칸타쿠지노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 308쪽 | 13,800원

복수 대신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세계적인 국제자선단체 '용서 프로젝트 The Forgiveness Project'를 통해 용서 경험을 공유한 46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들은 학대나 폭력, 테러, 학살, 전쟁 등으로 물리적·정신적 외상을 입었지만 복수 대신 용서와 씨름해 왔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도 어떻게, 왜 용서를 결심한 건지 고통과 분노에서부터 원망과 자책, 연대와 위로, 용서와 치유까지의 힘든 경험을 담담히 털어놓는다. 그리고 '용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치인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종교적 미사여구에 가려진 용서의 본질을 탐구한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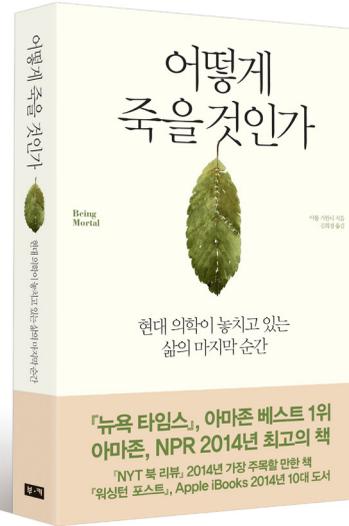




《타임》, 《프로스펙트》 선정
‘세계적인 사상가’
아툴 가완다

나와 당신, 가족을 위한 영혼의 고백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이어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 교수,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외과의이며 《뉴욕타임즈》지 전속 필자로 활동하고 있다. 첫 저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의 Complications》은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고, 《닥터, 좋은 의사를 말하다 Better》는 2007년 아마존 10대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체크! 체크리스트 The Checklist Manifesto》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라 저술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최고의 과학 저술가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 상을 비롯해 내셔널 매거진 어워즈를 2회 수상했고, 사회에 가장 창조적인 기여를 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5년 영국 《프로스펙트》지가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인’에 선정되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Being Mortal》은 《뉴욕타임즈》 논픽션 부문 54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아툴 가완다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00쪽 | 16,500원

2015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1위
2015 한겨레가 뽑은 ‘올해의 책’
2015 예스24 네티즌 선정 ‘올해의 책’
2015 시사인 선정 ‘독서 리더들이 뽑은 올해의 책’
2015 교보 50만 원 클럽 선정 ‘여름휴가 때 읽고 싶은 책’
매일경제 선정 ‘휴가철 읽기 좋은 책’
매일경제-교보문고 선정 ‘2016년을 여는 책’
포항시립도서관 추천 이달의 책(1월)
조선일보 선정 ‘숨어있는 최고의 책’
KBS <TV 책을 보다> 추천도서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그러나 인간다운 죽음은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인구 구조의 직사각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50세 인구와 5세 인구가 비슷하며, 30년 후에는 80세 이상 인구와 5세 이하 인구가 맞먹을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툴 가완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사회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현대 의학은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공격적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정작 길어진 노년의 삶과 노환 및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가 들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자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죽음은 비록 우리의 적일지 모르지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하나,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절박한 문제를 의학과 기술의 손에 맡겨 버렸다. 죽음을 일종의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약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역사가 짧은 셈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책을 처음 고를 때만 해도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달음에 읽고 난 뒤, 생각을 바꿨다.
_《조선일보》
눈물이 왈칵 솟구친다. 삶의 현 순간, 그리고 머지않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_《매일경제》

인간관계 심리 문제를
통렬하게 성찰하다

크리스텔
프티콜랭



모든 일에 의심 많고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조금 유별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병이라고 하소연하는 당신. 당신의 마음은 잠깐의 짝도 허락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돌아 가는 머리는 잠도 자지 않는다. 매사에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 사소한 것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 성미가 지긋지긋하다. 잠시라도 생각을 멈출 순 없을까? 그런데 당신이 진짜 괴로운 지점은 따로 있다. 어딘지 모르게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늘 상처받는 기분, 종종 혼자만 똑 떨어져 나오는 걸 느낄 때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난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사실 당신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지긋지긋한 그 생각들은 당신이 오리 새끼 무리 속의 어린 백조라는 증거대 못 믿겠다고? 당신다운 반응이다. 신경언어학, 에릭슨 최면요법, 교류 분석 등을 연구하며 심리 치료사,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텔 프티콜랭이 20여 년간 살아 온 임상 경험을 토대로 당신의 그 많은 의심과 의문을 잠재워 줄 것이다. 그녀는 현재 프랑스 국영 방송 및 지역 방송에 출연하고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독자들과 청중을 만나고 있다.

나는 왜 네가 힘들까

뻘하고 진 빠지는 '심리 게임' 탈출 프로젝트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국판 변형 | 200쪽 | 13,800원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너'와의 매일 똑같은 싸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구에게나 유독 '힘든' 사람이 있다. 문제의 그 사람과 싸울 때 우리는 종종 깨닫곤 한다. 내가 왜 이 말을 또 하고 있지? 왜 이 사람과 말하기 시작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지? 항상 답 없이 불쾌하게 끝나 버리는 다툼.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에, 마치 어떤 게임 안에서 저 사람과 내가 갇힌 기분이다. 이 뻘하고 진 빠지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까? 크리스텔 프티콜랭이 이 답답한 '심리 게임'을 풀어낼 명쾌한 처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정해진 사람과 정해진 싸움을 반복하는지, 게임을 주도하는 세 가지 유형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나와 상대방은 각각 어떤 유형을 선호하는지, 소모적이고 상처만 남기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 준다.



나는 왜 네가 힘들까 셀프 테라피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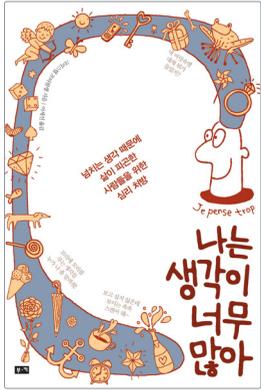
가깝지만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을 위한 100개의 질문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사륙판 | 200쪽 | 12,500원

직접 써 보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100개의 질문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전작 《나는 왜 네가 힘들까》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싸움을 '심리 게임'이라 정의하고 게임을 주도하는 세 유형(피해자·박해자·구원자)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선보였다. 이 책에는 전작의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도록 돕는 100개의 질문을 담고 있다. 책 속에 담긴 100개의 질문은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의 원인을 분석하고, 심리 게임에 대처할 자신만의 방법을 자연스레 찾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직접 써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워크북, 스스로 답을 찾게 도와주는 치유의 질문이기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기에 더없이 좋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넘치는 생각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신국판 변형 | 272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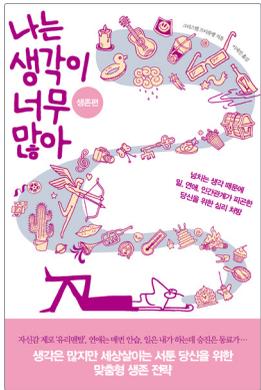
20만 독자가 공감한 우리 모두를 위한 심리 처방

항상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 가벼이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전. 저자의 20여 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즐겁고도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들이 '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 보통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 비상한 머리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 준다.

2016 진중문고 선정도서

2014 문화부 위클리 공감 선정 '휴가철 읽을 만한 책 Best 3'

201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10월의 책'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 생존편

넘치는 생각 때문에 일, 연애, 인간관계가 피곤한 당신을 위한 심리 처방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신국판 변형 | 264쪽 | 14,800원

생각이 너무 많아 삶이 힘든 당신을 위한 맞춤형 생존 전략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의 후속편. 전작 출간 후 쏟아진 독자들의 감상을 바탕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직장생활, 연애, 인간관계 등에 도움이 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생존편'이다. "넌 생각이 너무 많아 탈이야" "넌 너무 예민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삶이 좀 더 편안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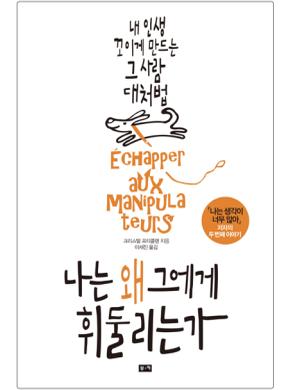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

내 인생 꼬이게 만드는 그 사람 대처법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신국판 변형 | 272쪽 | 14,800원

내 일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심리 조종자 극복하기!

우리 곁에는 늘 비열한 꿈수와 심리 지배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심리 조종자'들이 있다. 저자는 수많은 심리 상담 사례를 통해 심리 조종의 상황을 안개 걷어내듯 선명하게 드러내고, 괴로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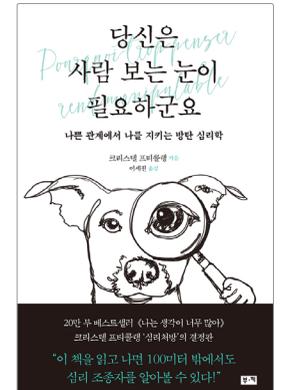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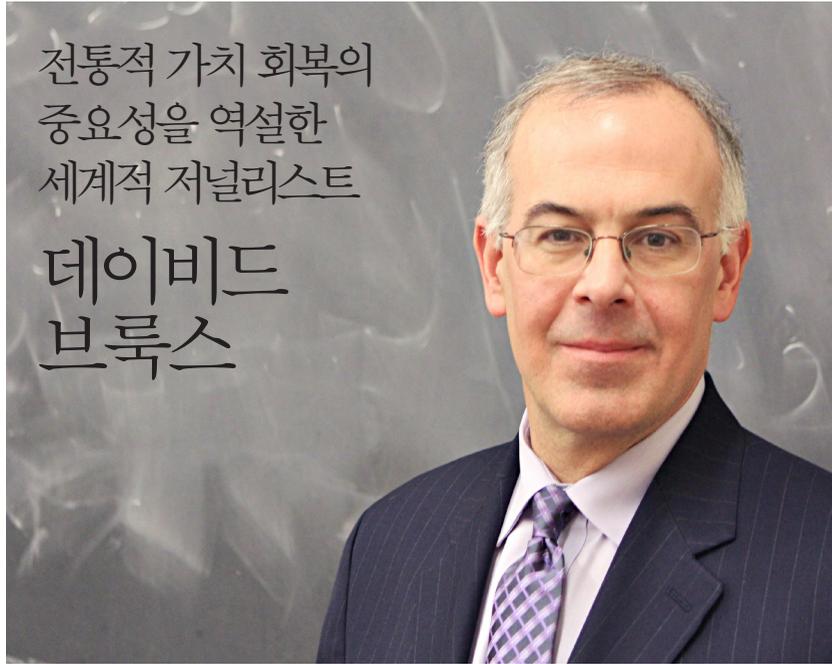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 | 이세진 옮김 | 국판 변형 | 316쪽 | 14,800원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왜 자꾸만 이용당하는 걸까?" 크리스텔 프티콜랭 '심리 처방'의 결정판

놀랍게도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영리한 사람일수록 심리 조종에 빠지기 쉽다. 역설적이지만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상대의 관점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에 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 조종자는 자신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거짓말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일부러 갈등을 조장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측은지심을 '악용'하여 자기 잇속을 챙기는 데 능하다. 심리 조종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의 자존감을 갇아먹고, '뺨도 못 추릴 만 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이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의 삶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심리 조종자의 실체가 보일 것이다. 그럼으로써 써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돈과 성공만 외치는 'Big Me'의 시대, 겸손과 절제를 말하는 'Little Me'의 가치를 일깨우다

《보보스》, 《소셜 애니멀》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타임스》 기명 칼럼니스트다. NPR의 시사 프로그램 〈울 싱스 컨시더드〉(All Things Considered)와 〈PBS 뉴스아워〉에 시사 해설자로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뉴스위크》, 《애틀랜틱 먼슬리》의 객원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예일대학교에서 철학적 경양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고, 《인간의 품격》에서 탐색한 몇몇 아이디어는 이 강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기애에 빠진 떠버리가 되어 실제보다 더 권위 있고 영리한 척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 왔다고 고백한다. 나이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세기 전 사람들에게 비해 지나치게 물질주의와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품격》은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단지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거기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물질주의와 오만이 팽배한 오늘날 개인의 도덕성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기과잉의 시대에 고전적 자기절제와 겸손의 미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뉴욕타임스》



인간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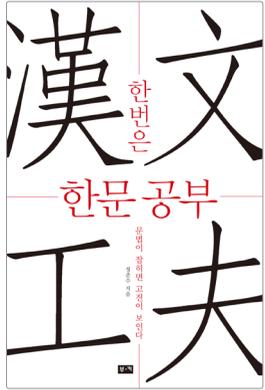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96쪽 | 16,500원

매경-교보문고 공동 선정 '2016년을 여는 책'
2016 서울시 선정 '새해와 함께 읽고 싶은 추천 도서'
2016 조선비즈 선정 '꼭 읽어야 할 책'
2016 교보문고·에스24 MD추천 '실 연후에 읽을 만한 책' 10권
2016 순천시 공무원 필독 도서 선정
2016 교보문고 북모닝CEO 선정 '직장인 필독서'
2015 빌 게이츠 선정 '올해의 책'
2015 동아일보 선정 '올해의 책'
환경·교보문고 선정 '대학생 권장도서'

인간은 모두 결함 있는 존재,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시하는 시대다. 이른바 능력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신을 부풀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한다. 나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을 광고하라고 권한다. 우리에게 점점 더 좁은 곳에 집중하라고 부추기며, 더욱 약삭빠른 동물이 되라고 독려하는 이 문화는 자기중심주의를 극대화한다. 성취를 중시하는 이 문화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만 몰두하고, 외적인 찬사를 삶의 척도로 삼게 만든다.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도덕적 능력은 위축시켜 버리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은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인간을 '뒤틀린 목재'로 보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결함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결함 있는 내면의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전통에서는 겸손과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숙에 둔다.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혼의 탄생을 만나게 된다. 퍼킨스, 아이젠하워, 마셜 등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결함 있는 존재였으나 치열한 내적 투쟁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장해 갔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인물이 되었다.



한번은 한문 공부

문법이 잡히면 고전이 보인다

정춘수 지음 | 신국판 변형 | 312쪽 | 16,000원

늦으면 늦은 대로 이르면 이른 대로
고전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문 독해에 필요한 기초 교양과 문법을 익혀 한문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입문서. 독해의 기초가 되는 문법 및 구문 해설이 핵심이지만 오늘날에도 새삼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336구의 명언 명구를 통해 배우도록 구성해 고전을 맛보고 공감하는 기회까지 더했다. 특히 논어를 비롯한 유가 경전은 물론 시경, 장자, 노자, 순자, 한비자, 사기, 좌전, 난중일기, 당송 시대 시 등에서 가려 뽑은 49개의 대표 구문의 경우 시대 배경, 인물, 사상과 함께 해당 어휘의 개념과 의미 변천 과정, 오늘날의 쓰임까지 두루 보여 줌으로써 고전의 문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86구의 연습 문제 역시 한문 고전에서 가려낸 것으로, 대표 구문으로 익힌 판단, 서술, 부정, 의문, 가정, 비교 등의 표현을 적용해 해석하면서 자신의 독해 실력을 점검하고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논어를 읽기 전

천자문에서 소학까지 한 권으로 배우는 고전 입문

정춘수 지음 | 신국판 변형 | 208쪽 | 12,800원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조선 시대 아이들 교과서로 쓰였던 대표 교재 여섯 권에서 가려 뽑은 구절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과 언어로 설명한다. 효, 충, 인의, 예의, 도덕, 본성 등 유학의 핵심 개념은 물론 음양오행, 선비 스타일, 중화, 우주, 요순시대 등 다양한 개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원인은 어디인지, 그런 사유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013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식탁 위의 세상

나는 음식에서 삶을 배웠다

켈시 티머먼 지음 | 문희경 옮김 | 신국판 변형 | 392쪽 | 16,500원

음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나는 어디에서 입는가》의 저자 켈시 티머먼이 이번에는 '나는 어디에서 먹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세계화된 식탁을 집요하게 파헤친 음식 탐사 르포다. 우리가 값싼 바나나와 예쁜 토마토를 먹을 수 있게 된 사연에서부터 음식 때문에 병들고, 죽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진실을 채집해 이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이 욕망하는 음식에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버무린 풍성한 식탁이자, 더 나은 세상과 음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직한 식탁이다.

2016 환경부 우수환경도서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철학이 묻고 심리학이 답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

로랑 베그 지음 | 이세진 옮김 | 신국판 변형 | 368쪽 | 16,000원

내 주위에 착한 사람뿐인데,
왜 세상은 이따위로 흘러가는 거야?

'착한 사람' '예의 있는 사람' '개념 있는 지식인'이라며 스스로 도덕적 인간임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자신의 도덕성을 굽어모아 곁에 포장해 SNS를 통해 진열하는 모습은 멀리 찾을 것도 없이 바로 당신의 옆 사람, 혹은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재치 넘치는 연구로 2013년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로랑 베그는 이 책에서 특유의 유머 감각과 깊이 있는 통찰로 '도덕적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고찰의 기록이다.

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2월의 읽을 만한 책'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바뀌는 철학 비타민

도마스 아키나리 지음 | 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56쪽 | 13,800원

서양 철학의 올스타와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철학 입문서

소크라테스부터 샌델까지 서양철학사 2600년을 빛낸 올스타 44명의 삶과 사유를 압축해 놓았다. 철학자 개개인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사상과 연계시켜 보여 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헤겔의 변증법을 ‘롤플레이팅 게임’에 비유하고, 현대 사상을 ‘트위터’에 비유하는 등 깨알 같은 비유와 일러스트를 통해 철학의 본질을 파악하고, 각 사상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2015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4월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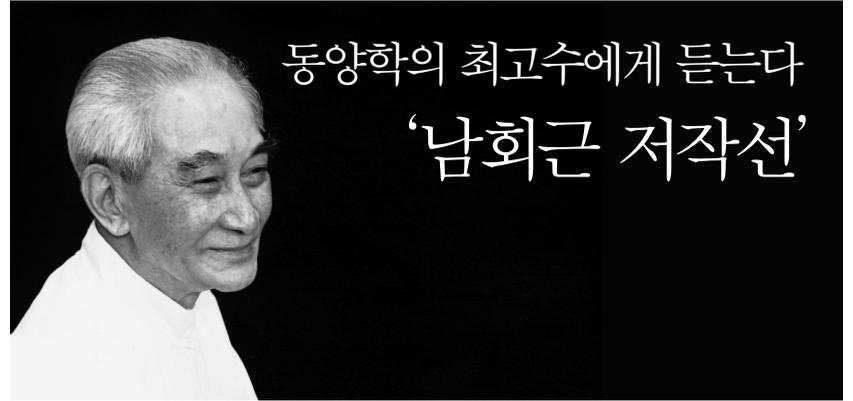


사전론

황지연화 지음 | 박형익 · 차이뜨용 옮김 | 신국판 변형 | 408쪽 | 20,000원

사전은 사회의 ‘거울’이다

사전이 무엇이고 그 기능과 역할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안목의 사전학 이론과 실제 사전을 편찬하면서 표제항은 어떤 기준으로 배열하고 각 항목 안 내용은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편찬 지침까지 제공하여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책이다. 사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사전의 기준을 제시하여 사전학 이론과 실제 편찬 지침까지 망라하는 이 책은 사서 편찬자들과 사전학 분야 연구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본서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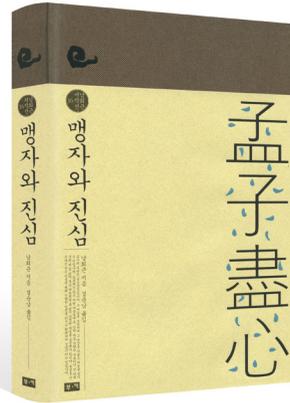
1918년 절강성 온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서당 교육을 받으며 사서오경을 읽었다. 17세에 항주국술원에 들어가 각 문파 고수들로부터 무예를 배우는 한편 문학, 서예, 의학, 역학, 천문 등을 익혔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사천으로 내려가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던 중앙군관학교에서 교관을 맡으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다. 교관으로 일하던 시절, 선생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 원환선을 만나 삶의 일대 전환을 맞는다. 1942년 25세에 원환선이 만든 유마정사에 합류하여 수석 제자가 되었고, 스승을 따라 근대 중국 불교계 중흥조로 알려진 하운선사의 가르침을 배웠다.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중국 불교 성지 아미산에서 폐관 수행을 하며 대장경을 독파하였고, 이후 티베트로 가서 여러 종파 스승으로부터 밀교의 정수를 전수받고 수행 경지를 인정받았다. 1947년 고향으로 돌아가 절강성 성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연각 사고전서와 백과사전인 고급도서집성을 열람하고, 이후 여산 천지사 곁에 오두막을 짓고 수행에 전념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49년 봄 대만으로 건너가 문화대학, 보인대학 등과 사회단체에서 강의하며 수련과 저술에 몰두하였다. 1985년 워싱턴으로 가서 동서학원을 창립하였고, 1988년 홍콩으로 거주지를 옮겨 칠일간 참선을 행하는 선철 모임을 이끌며 교화 사업을 하였다. 대륙이 공산화되자 대만으로 건너간 선생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가, 불가, 도가 경전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제자를 길렀고,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여 동서양 많은 독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선생의 강의는 유불도를 비롯한 동양 사상과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도 방대한 지식, 깊은 수행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엄중한 가르침,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머 담긴 화법을 두루 갖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6년 이후 중국 강소성 오강시에 태호대학당을 만들어 교육 사업에 힘을 쏟다가 2012년 9월 29일 세상을 떠났다.



맹자와 양혜왕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544쪽 | 25,000원

《맹자》의 제1편인 《양혜왕》에는 맹자의 사상 중 최고의 정치 원칙과 철학적 기초가 들어 있다. 저자는 중흥으로 사료를 엮으며 《양혜왕》의 맹자를 입체적으로 그려내, 정치철학과 역사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맹자와 진심

맹자, 수행의 경험과 수양의 실천 방법을 말한다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60쪽 | 20,000원

맹자, 수행의 경험과 수양의 실천 방법을 말한다

마음을 다하여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천명에 이른다

자신을 돌아보아 선을 행하고 욕심을 줄임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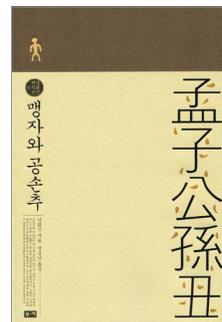
“마음을 다하다”는 편명의 《맹자》 마지막 장 〈진심(盡心)〉. 〈진심〉 편은 맹자가 평생 갈고닦은 학문 수양의 이치와 수행의 경험담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유가 사상은 세상에 나아가서 뜻한 바를 펼치는, 즉 입세의 도를 전하는 것이 궁극이다. 그러한 외용(外用)의 도를 이루는 바탕에는 심성을 닦아 세상에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내성(內聖)의 학문이 있다. 저자는 중국의 전통 문화에서 전해지는 심법(心法)인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결중”을 맹자가 어떻게 체득했는지를 이야기한다.

맹자는 “마음을 다하고(盡心)-본성을 알아(知性)-하늘의 뜻을 기다린다(天命)”라는 것으로 자신의 사상을 집약하고, “몸을 닦아 명을 세우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다. 저자는 맹자가 걸어간 수신 입명의 길을 불가의 심성 이론과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냈다. 맹자의 수양론을 말하면서 저자가 특히 강조한 것은 유가의 일상적인 수행이다. 스스로 심리 행위를 고쳐 나가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사이에 모든 생각이 선에 머무르게 하는 것.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니 욕심을 적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 서서히 욕망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실천한 수행이자 깨달음에 이르는 기초라고 말한다.

맹자와 공손추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96쪽 | 22,000원

남회근 선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편. 개인의 내적 수양 원칙과 방법, 외적 활용의 경지와 도량은 물론 중국 역사상 정치철학, 인사제도, 재정경제 문제 및 법률체계 등 ‘내성외왕’의 답을 찾는다.



약사경 강의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472쪽 | 25,000원

약사경 해설서가 전무한 오늘날, 이 책은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기초와 실재를 보여 주어 현실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한다. 또 불자에게는 마음을 오로지하여 기도하고 염불하지 않고 입으로만 외워서는 소용이 없음을 깨우치도록 한다.



능가경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496쪽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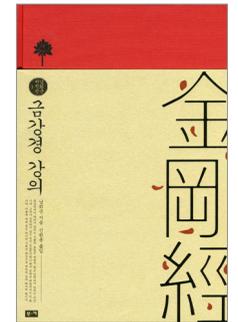
불교 교리 발전의 최정상에 놓인 유식학의 핵심 경전, 《능가경》을 남회근 선생의 해설로 만난다. 해독에 어려움이 많았던 《능가발다라보경》 중 4권본 《능가경》의 어조를 잘 살려 내면서 힘 있고 간명하게 핵심을 짚어 간다.



금강경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664쪽 | 25,000원

석가모니 부처와 제자 수보리의 대화를 엮은 책 《금강경》에 대한 강의를 수록한 책이다. 출가 수행자들조차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금강경을 남회근 선생은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도 명쾌하게 가르친다.



불교 수행법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800쪽 | 30,000원

재가 및 출가 수행자들이 올바른 견지에서 심신을 닦아 성취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 대선사들의 수행 과정과 견도 및 행원의 기록, 단계별 수증 경계 및 빠지기 쉬운 미혹과 타파 방법을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일일이 짚어 준다.





정좌수도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04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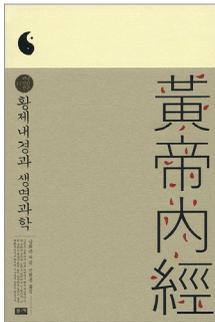
이 책은 도가, 불가, 유가, 요가의 정좌 수행법 종류, 각 파가 중시하는 것, 다른 파에서 그것을 부르는 명칭을 알아보고, 정좌를 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그 반응의 변화를 동서양 의학과 과학 개념을 곁들여 설명한다.



주역계사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592쪽 | 25,000원

〈계사전〉은 공자가 역경을 연구하여 얻은 바를 소개한 보고서로, 역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이자 지침서다. 역경을 보기 전에 먼저 읽으면 그 체계를 잡아 가는 데 도움이 된다.



황제내경과 생명과학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24쪽 | 18,000원

중의학의 기초인 노장 사상, 불학, 삼맥칠륜 수행법 등과 같은 동양의 철학과 수행법을 소개하고 이를 현대 과학과 접목하면서 황제내경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 준다. 황제내경을 통해 건강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문화 만담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28쪽 | 18,000원

2007년 하반기 중국 강소성 태호대학당에서 북경대학, 인민대 국학원 교수와 학생 및 각계 인사에게 행한 세 차례의 강의 기록이다. 일상적 경제 활동을 전통문화와 절묘하게 결합시켜 경제학, 경영학, 국학 및 중국 문화에 관한 다양한 기초 개념을 설명한다.

대학 강의 상·하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각 520쪽 · 392쪽 | 25,000원 · 22,000원

유가와 도가가 나누어지지 않았던 도통道統의 시대, 담백하고 논리정연한 ‘원본’〈대학〉을 강의한다. 심심 수양에 관심 있는 이라면 불가와 도가가 통합된 정밀한 견해의 유학 수증 과정을 접할 수 있고, 역사를 좋아하는 이라면 삼천 년 중국 문화와 역사 속 인물의 수신과 치국의 삶의 명암을 그려 볼 수 있다.

노자타설 상·하

남회근 지음 | 설순남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520쪽 · 608쪽 | 각 권 25,000원

이 책은 노자 사상의 진정한 함의를 드러내고, 가슴속 가득 나라와 백성을 근심했던 노자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능가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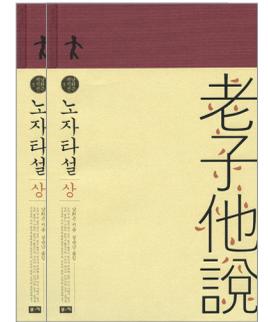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496쪽 | 25,000원

《능가경》은 불교 교리 발전의 최정상에 놓인 유식학의 핵심 경전이다. 이 책의 원본은 《능가아발다라보경》인데, 그간 해독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남회근이 해설한 이 책은 4권본 《능가경》의 어조를 잘 살려 내면서도 분석적 논증과 통합적 사고로 유식의 대표 경전을 이해하는 데 더없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역경잡설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382쪽 | 22,000원

저자가 역학을 공부해 스스로 터득한 바를 소개한 이 책은 역경 연구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 주는 동시에 《역경》의 참고서 격인 《십익》의 내용 전반을 소개해 광범한 역경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시대를 꿰뚫어 보는 안목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펼쳤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읽기, 고전 읽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는 주저한다. 책만 펼쳐 들면 줄음이 쏟아질 것 같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문학과 고전을 낯것 그대로 음미하게 해 주지 않고, 쪼개고 덧붙이고 해체하면서 '학문화'시켰기 때문에 생긴 지독한 편견일 뿐이다. 이 시리즈는 바로 그런 선입견을 깨며, '브런치'처럼 가볍지만 풍성한 인문학의 맛을 느끼게 해 준다. '철학' '세계사' '세계문학'이 출간되었고, '클래식' '뮤지엄' 등 다양한 주제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세계사 브런치 - 원전을 곁들인 맛있는 인문학

정시문 지음 | 신국판 변형 | 536쪽 | 18,000원

재미없는 교과서식 역사책은 그만!
45권의 고전으로 직접 만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

“역사는 재미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고자 기획된 이 책은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27가지 명장면을 45권의 고전으로 생생하게 전한다. 도표나 연표식 정리 같은 지루한 통사식 서술을 지양하고,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사마천의 《사기》,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 등 45권의 역사 고전에서 골라 뽑은 글들을 소개한다. 때론 장엄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묘사되는 역사의 명장면들과 핵심을 통찰하는 인류사의 명문들을 음미해 보자.

2016 세종도서 교양 부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철학 브런치 - 원전을 곁들인 맛있는 인문학

정시문 지음 | 신국판 변형 | 544쪽 | 18,000원

젠체하는 철학은 있어라
철학은 맛깔나는 삼페인 브런치다!

우리는 보통 '철학' 혹은 '철학자'라는 말에서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무언가 '세속과는 약간 거리를 둔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고담준론을 펼치는 이들이 철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렇듯 '철학'을 대하는 우리들의 선입견이 '무섭고도 끈질기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철학을 무척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며, 심지어는 암호로 가득 찬 불가사의한 문서라고 믿거나,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자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편견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가 수많은 철학 고전을 직접 맛본 결과, 철학이란 심오한 지혜의 샘이라기보다 차라리 '삼페인'을 곁들인 선데이 브런치'처럼 다양한 빛깔과 맛깔이 흘러넘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보따리에 가깝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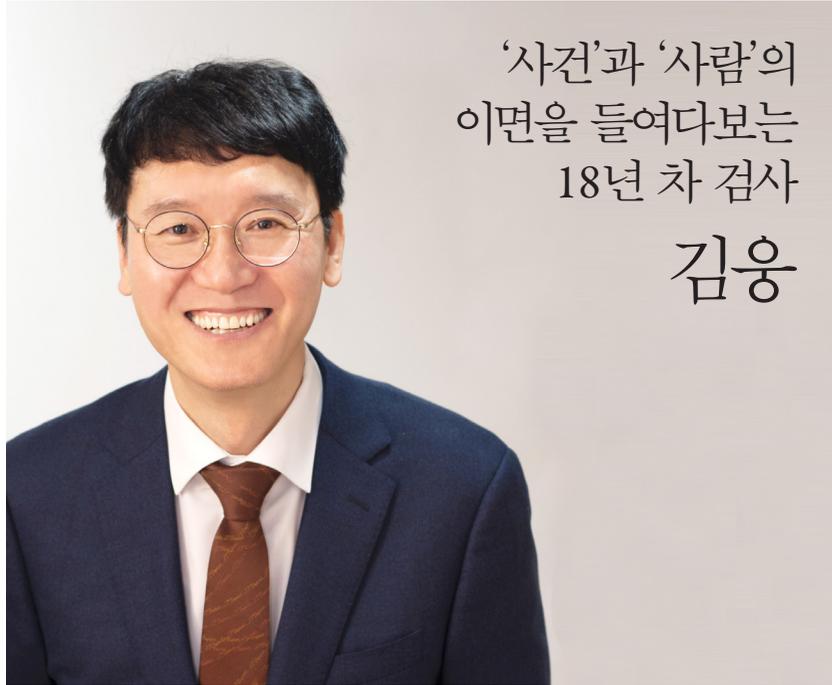
세계문학 브런치 - 원전을 곁들인 맛있는 인문학

정시문 지음 | 신국판 변형 | 544쪽 | 18,000원

짜릿하게, 은근하게, 유쾌하게, 음울하게
우리의 오감을 한껏 북돋는 문학의 축제!

소설이나 희곡 속 인물들의 기질과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 가는 과정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피날레가 가까워질수록 흥분은 증폭된다. 시에 담긴 어휘의 조화는 운문 고유의 리듬과 어울리면서 종이 위 잉크라는 2차원적 한계를 넘어 읽는 이의 '공감각 적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여야 한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면서 각종 비타민과 풍부한 섬유소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사과는 우선 맛으로 먹는 것이다. 이 책에 엄선된 세계문학의 명장면, 명문장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문학의 '맛'을 음미하는 기회를 누리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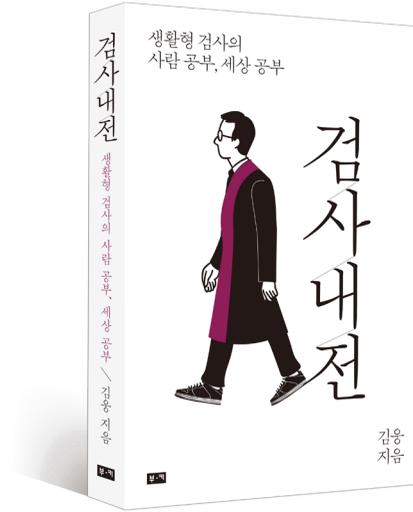


‘사건’과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18년 차 검사 김웅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와장을 거쳐, 현재는 첫 경력을 시작한 인천지검으로 돌아와 자신과는 평생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았던 공안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은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한 것처럼 검찰에서의 '직장생활'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검사로서 생활하는 데 별 탈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유연하고 열려 있는 조직 문화 덕분이었다. 그에게 검사라는 직분은 드라마 속에서만 볼 법한 가악의 근원도, 불의를 일거에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장치도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그저 '나사뿔'처럼 살아가겠다는 어느 선배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생활인으로서 검사'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비난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늘 보람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의 첫 책이 세상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이유다.

'나는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떤 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책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_김민섭 《대리사회》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전문직 에세이 중에 이렇게 웃긴 책은 처음 봤다. _《매일경제》 김슬기 기자
무협지와 판타지가 버무러지는 걸쭉한 입담 _《한겨레》 김지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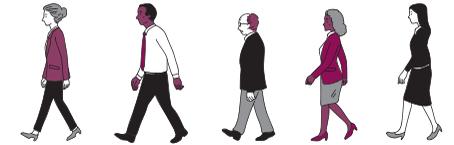


검사내전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김웅 지음 | 신국판 변형 | 384쪽 | 15,000원

2018년 정치사회 베스트셀러 1위



거대한 여객선의 나사뿔으로 묵묵히 살아온 생활형 검사의 세상 공부, 사람 공부 이야기

드라마와 달리 검찰도 일반 회사와 거의 같고,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의 직장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각광을 챙겨 정계에 입문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조직에 맞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하는 저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인물 군상은 어느 조직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생활로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는 것이고, 검사들도 마찬가지란 얘기다. 그렇기에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뿔'로 살아가겠다는 어느 선배 검사에게서, 소위 잘나간다는 그 어떤 선배들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존경'라는 감정을 느끼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저자 김웅은 말한다. 그의 첫 책 《검사내전》은 바로 그렇게 '생활형 검사'로 열심히 살아온 저자가 검찰 '안'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자, 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 사람살이를 둘러싼 그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자본주의의 이면을 파헤치는 현장형 저널리스트 바버라 에런라이크

“놀라운 오디세이! 에런라이크는
어떤 현대의 작가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미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이자 작가다. 1941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태어나 록펠러 대학에서 세포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에런라이크는 안온한 학계 대신 현장을 택해, 1970년대의 반전 운동과 여성 건강증진 운동부터 최근의 화이트칼라 운동에 이르기까지 활동가,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경험을 저널리즘의 밑천으로 삼아 왔다. 에런라이크는 2001년, 저임 노동자의 생활을 잠입 취재해 《노동의 배신》을 썼고, 2011년에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긍정주의의 폐해를 낱알이 파헤친 《긍정의 배신》으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12년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에 매달리는 화이트칼라 구직자들의 슬픈 초상을 그린 《희망의 배신》을 출간하며 10년에 걸쳐 집필해 온 현장 르포르타주 시리즈를 마무리지었다. 20여 권의 책을 집필하고, 현재 《뉴욕타임스》(타임) 《하퍼스》 《네이션》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며 현장에 밀착한 글쓰기와 노동자, 여성, 소수자 등을 위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면을 파헤치는 최고의 작가 _《뉴욕타임스》 북리뷰
에런라이크는 열정적이고, 공익적이고, 치열하도록 명쾌하고,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_《시카고 트리뷴》
에런라이크는 똑똑하고, 도발적이고, 재미있고, 무엇보다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 _다이앤 쇼어

긍정의 배신

긍정적 사고는 어떻게 우리의 발등을 짚는가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3,800원

자본주의와 철저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쳤다. 유행암 경험에서 시작해 넘쳐나는 자기계발서의 메시지, 초대형 교회의 모순적인 설교, 동기 유발 강사들과 기업들의 커넥션,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차근차근 짚어 가며 '긍정주의의 실체를 시종일관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파헤친다.'

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대학 신입생 추천도서' / 201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대학생독서토론회 선정도서 / 2011 교보문고 '올해의 책' / 2011 프레시안 '올해의 책' / 2011 7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워킹 푸어 생존기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최희봉 옮김 | 신국판 변형 | 312쪽 | 14,800원

에런라이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식당 웨이트리스, 호텔 객실 청소부, 요양원 보조원, 월마트 매장 직원 등으로 일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로 정말 살 수 있는지를 체험했다. 노동 환경, 식생활, 주거 실태에서 부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노동자들을 옥죄는 생활의 굴레를 저자 특유의 위트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파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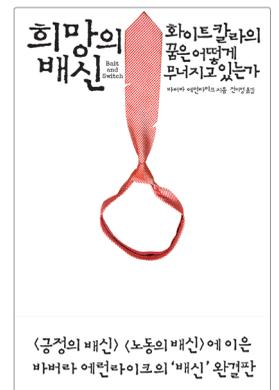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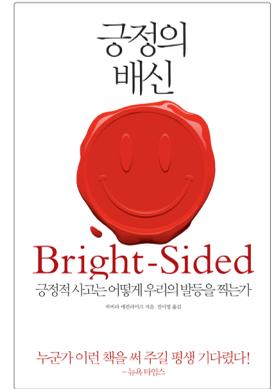
2012 시사인 '독서 리더들이 꼽은 올해의 책' / 2012 한국경제신문 '인문사회과학 분야 올해의 책' / 2012 9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희망의 배신

화이트칼라의 꿈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4,800원

에런라이크의 배신 시리즈의 완결편.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에 매달리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됨을 쓰는 화이트칼라 구직자들의 세계를 통해, 빈곤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살얼음 꺼지듯 무너져 가는 현실을 고발한다. 미국의 미성들을 각성시킨 이 시대 필독서.





오! 당신들의 나라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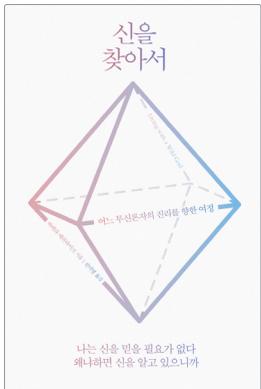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96쪽 | 13,800원

내부 고발자가 밝힌 심리산업의 '은밀한 진실'

에런라이크가 '1% 사회'를 정조준한다. 실적을 들먹이며 직원을 마구 자르더니, 주가가 떨어져도 자기 전별금은 챙기는 알뜰한 대기업 CEO, '경제력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며 가난한 아이들마저 내치는 병원과 의사, 보험료는 점점 더 올리고 보상은 점점 더 줄이는 이상한 보험사, 선거 때만 되면 똑같은 레퍼토리를 들고 나와 판을 뒤집는 보수주의자. 사회정의의 무너뜨리고 부를 독식한 이들 1%의 '꿈수'를 통쾌하게 꼬집는다. 웃다가 울다가 끝내 가슴이 서늘해지는 책이다.

1%를 위해 99%가 희생하도록 재편되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를 피부에 와 닿는 이슈들을 통해 풍자한다. 미국 얘기라는 데 한국과 똑같다. _ 《씨네21》

2012 3월 복리펀드 선정도서



신을 찾아서

어느 무신론자의 진리를 향한 여정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20쪽 | 14,800원

나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을 '알고' 있으니까

에런라이크가 무신론자이자 과학자로서 자신이 만난 '신'과 진리를 규명하고자 한 끈질긴 탐색의 기록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한 번도 말하거나 글로 쓰지 못했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책과 토론을 좋아했지만 '아동 학대'에 가까운 만큼 자신을 몰아세웠던 부모,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한 외로움, 문학, 철학, 과학, 수학 등에 대한 관심, 사춘기에 겪은 해리 현상과 일종의 '신비체험', 그로 인한 정신적 붕괴, 과학자에서 사회운동가로의 변신 등 일생에 걸친 탐색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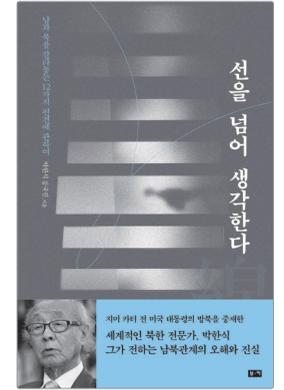
선을 넘어 생각한다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박한식 강국진 지음 | 신국판 변형 | 320쪽 | 16,800원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미국의 평화화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그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지는 편견들을 극복해 나간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여러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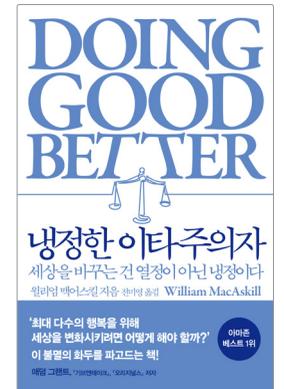
냉정한 이타주의자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

윌리엄 맥어스킬 지음 | 전미영 옮김 | 국판 | 312쪽 | 16,000원

선외와 열정에만 이끌려 무턱대고 실천하는 경솔한 이타주의의 불편한 진실

실효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선행 사례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 펌프스인터내셔널'은 선외와 열정만 앞세운 사업 운영으로 결국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폐업했다. 저자는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는 월드비전, 옥스팜, 유니세프 등 거대 자선단체도 보건사업에 비해 비용은 더 많이 들고 효율은 더 떨어지는 재해구호에 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의 선행도 효과가 없지는 마찬가지다. 공정무역 제품 구매, 노동착취 제품 불매,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소용없다는 수치가 넘쳐난다.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설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선행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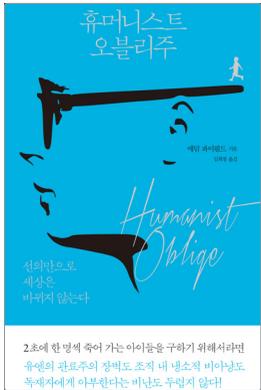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뉴스룸 뒤편에서 전하는 JTBC 작가의 보도 일기

임경빈 지음 | 국판변형 | 303쪽 | 13,000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던 그 이상한 뉴스, 뉴스룸 뒤편에서 전하는 JTBC 작가의 보도 일기

현재 JTBC <뉴스룸>의 메인작가인 저자 임경빈은 탄핵 정국 당시 팩트체크 코너 메인작가로, 취재 겸 광복문 촛불 집회에 나갔던 어느 날 자신이 만든 방송을 시민들과 함께 보는 귀한 경험을 했다. 그날의 먹먹한 감동을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JTBC <뉴스룸>의 성공 요인과 보도국 안에서 겪은 크고 작은 일들, 좌충우돌 뉴스 만들기 에피소드와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하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가슴에 새긴 세월호 참사 보도까지. 시사방송작가의 묵묵한 기록을 통해 참으로 이상했던 그때, 뉴스가 위로가 되어 주었던 날들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오블리주

선의로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애덤 파이프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504쪽 | 18,000원

인류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휴머니스트도 그 뜻을 실현하는 곳은 현실이다!

1980년에서 1995년까지 유니세프 총재였던 짐 그랜트가 재임했던 15년을 중심으로 그의 치열하고 대담했던 삶을 그린 에세이다. 저자는 '유니세프 미국 기금'에서 일하면서 짐 그랜트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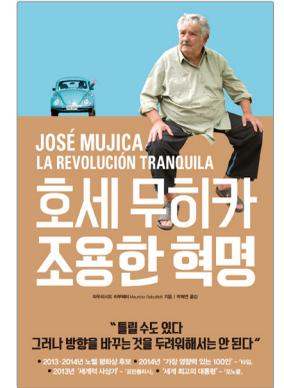
짐 그랜트는 고결한 신념과 이상을 가진 한 인간이 세상에서 그것을 실현해 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이고 치열한 삶으로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이상을 향한 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념과 이상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의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던져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호세 무히카 조용한 혁명

마우리시오 라부페티 지음 | 박재연 옮김 | 신국판 변형 | 336쪽 | 15,000원

무히카를 통해 우리 시대의 정치와 지도자를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사랑받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의 정치인과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집중 탐구한 첫 책으로, 그의 삶을 기록한 전기이자 우리 시대의 정치와 지도자에 대한 보고서다. 현직 기자인 저자는 소박하고 청렴한 생활로 널리 알려진 '인간 무히카' 너머 '대통령 무히카'의 모습을 세밀하게 포착해 낸다. 무히카가 시도한 개혁 정책들과 그 실행 과정에서 맞닥뜨린 현실의 벽, 대통령의 고민과 열정, 성공과 실패를 통해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지,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복지 사회와 그 적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 국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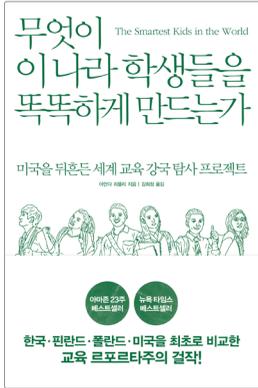
가오렌쿠이 지음 | 김태성, 박예진 옮김 | 신국판 | 416쪽 | 18,000원

왜곡된 사실이 '상식'으로 뒤바뀐 현실을 고발하다

이 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복지 축소에 앞장섰던 '탈복지화' 국가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고복지' 국가가 더욱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복지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로 인해 영미식 탈복지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다.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이러한 반복적 담론을 사회에 퍼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복지 사회의 적들'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9월에 읽을 만한 책'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미국을 뒤흔든 세계 교육 강국 탐사 프로젝트

아만다 리플리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32쪽 | 14,800원

한국·핀란드·폴란드·미국을 최초로 비교한 교육 르포르타주의 걸작!

‘교육 낙원’이라고 알려진 핀란드와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폴란드 등 선형 교육 강국들과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미국의 교육 상황을 밀착 비교 취재한 논픽션이다. 주요 4개국 동시 비교라는 입체적 잣대는 21세기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향 후 우리 교육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3월의 읽을 만한 책'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학교수업이 즐거워지는 9가지 인지과학 처방

대니얼 T. 윌링햄 지음 | 문희경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6,000원

인지과학자 대니얼 윌링햄이 제시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즐거운 수업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시험에 꼭 필요한 기술은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반복은 유용한 학습법인가?’ ‘학교에서 학생 별 맞춤 수업이 가능한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풍부한 사례를 들어 9가지 교육법을 알려 준다. 학부모들에게는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수업 기술을 찾거나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012 아침독서 추천도서 초중고 교사용

2011 10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채식의 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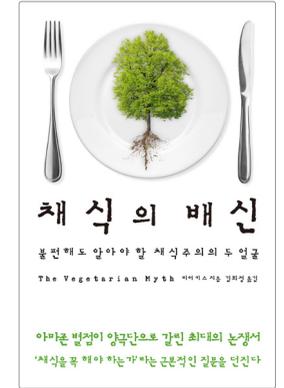
불편해도 알아야 할 채식주의의 두 얼굴

리어 키스 지음 | 김희정 옮김 | 신국판 변형 | 440쪽 | 15,000원

채식주의의 무지와 근거 없는 신화를 드러낸 최대의 논쟁서

20년간 극단적인 채식을 실천하던 저자가 채식주의의 주요 주장들이 무지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도덕적, 정치적, 영양학적 면에서 그 주장들을 논박하는 책이다. 저자는 채식주의가 생명 존중과 정의, 지속 가능한 사회 추구라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채식주의의 진영의 가치들을 검증해 나간다.

2013 한겨레가 뽑은 올해의 책



미래에서 온 편지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리처드 하인버그 지음 | 송광섭·송기원 옮김 | 신국판 | 276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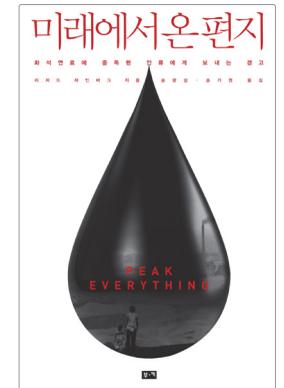
세계 최고 전문가이자 환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식인의 일침

‘인간은 어떻게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대답을 모색한다. 석유정점 문제뿐 아니라 유기농업에서 공업디자인, 다큐멘터리 영화, 언어학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심오한 예측이 조합된 도발적 생각들을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현대 문명의 모든 측면에서 한계와 종말의 징후가 보인다면서 현대 문명과 과거 문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2010 7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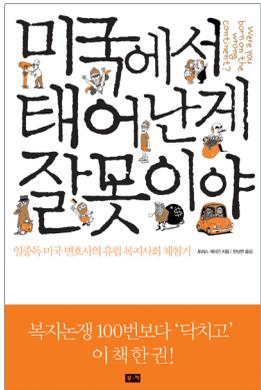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가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마틴 자크 지음 | 안세민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620쪽 | 25,000원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경우 세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저자는 지난 2세기 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서유럽과 미국이 그랬듯이, 패권 국가의 영향력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군사적 측면 등 전 방위적으로 발휘된다고 말한다. '서구 세계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화두로 전개되는 이 책에서는 중국의 미래와 그에 따라 변화될 세계를 올바로 조망하려면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문명과 과거 역사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인의 특성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문화 확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일종독 미국 변호사의 유럽 복지사회 체험기

토머스 게이건 지음 | 한상연 옮김 | 신국판 | 392쪽 | 15,000원

맥주처럼 톡 쓰고 소시지처럼 쫄득한, 유쾌한 복지사회 탐험기

세계 최강의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미국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기 그지없는 무한 경쟁 사회이며, 실사 중산층이라도 일자리를 잃는 순간 대책이 없는 미국인의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한편, 1년에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국가에서 보육과 교육을 모두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독일인의 상황을 생생하게 비교하여 보여 준다. 미국과 독일, 두 모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2 1월 복리펀드 선정도서
 2011 프레시안 '올해의 책'
 제11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고등부 단체전 대상도서

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 신국판 변형 | 240쪽 | 13,800원

28년간 노동 현장에서의 수수께끼를 풀어 해친다!

지난 10년 가까이 수많은 노동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그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본 저자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지, 왜 공기업마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지, 왜 일하라는 의무만 강조되는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의 답을 찾아 대한민국의 진짜 노동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시에 현 노동시장을 바꿔 나갈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 바꾸기'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하자고 손을 내민다.

수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권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책의 질문은 통렬하다. _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 한국인권재단 선정 '인권을 이야기하는 100권의 책'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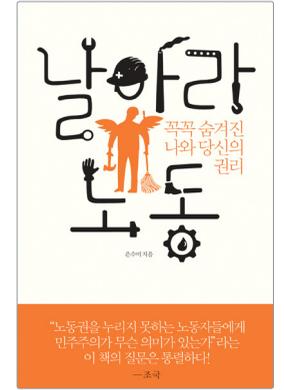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신국판 | 280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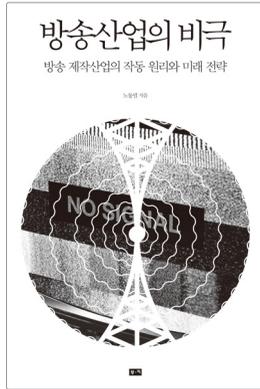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보여주는 '법의 새로운 사용법'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공감'의 지난 10년을 담았다. 인권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지난 10년, 공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뺨'이 되길 바랍니다.
 _박원순, 서울특별시장

2014 책따세 여름방학 추천도서
 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사업 선정 도서





방송산업의 비극

방송 제작산업의 작동 원리와 미래 전략

노동철 지음 | 신국판 | 408쪽 | 20,000원

현장 경험 풍부한 방송 전문가의 방송산업 작동 원리와 문제 해결책

〈하늘이시여〉, 〈왕꽃선녀님〉 등을 만든 노동철 교수가 우리 방송산업을 시장 내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책이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통계 자료 외에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방송사 및 관련 단체의 내부 자료, 작가와 연출자 및 방송사 관계자, 외주제작사 관계자, 광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방송 제작산업의 진화 과정을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 준다.



방송학의 이해

이론에서 적용까지 방송의 모든 것

노동철, 박인규, 오미영, 홍경수 지음 | 신국판 | 368쪽 | 18,000원

이론과 현장실무 사이의 괴리를 좁혀주는 방송학 입문서!

피디, 기자, 아나운서로 20여 년 활동해 온 현직 교수들이 집필한 방송학 개론서다. 반드시 알아야 할 방송의 개념부터 기초 이론은 물론 제작에 관한 지식과 한국 방송이 가지고 있는 현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방송 핵심 이론을 뽑아 그것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지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쉽게 읽힌다.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방송의 기초와 '실무 밀접형' 지식이 올바른 전문 방송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천재와 괴짜들의 일본 과학사

개국에서 노벨상까지 150년의 발자취

고토 히데키 지음 | 허태성 옮김 | 신국판 | 432쪽 | 18,000원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이 격찬한 과학사 이야기

일본은 노벨상을 받는데 우리는 왜 받지 못할까? 일본 과학의 발전 과정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 지금까지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2012년 야마나카 신야가 16번째로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기까지 일본 과학자들의 150여 년 분투 과정을 통해 그 해답을 말해준다. 이 책에는 물리, 원자핵 공학, 의학을 전공하며 연구자로 살았던 지은이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연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가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녹아 있다. 지은이는 과학자들의 삶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그린 이 책으로 제62회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상을 수상했다.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네안데르탈인에서 데니소바인까지

스반테 페보 지음 | 김경주 옮김 | 신국판 | 440쪽 | 18,000원

유전학자 스반테 페보의 고대 DNA 발견 이야기!

1980년대 초 이집트 미라의 DNA 해독부터 2010년 네안데르탈인 핵 게놈과 데니소바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까지, 세계적인 유전학자인 저자의 고대 DNA 연구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4년 미국 출간 즉시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 그해 아마존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실험실의 내밀한 풍경, 시료를 찾는 모습, 과학하는 사람들의 딜레마, 연구 기금 확보, 협업과 경쟁, 학술지 논문 출판 과정 등 과학계 외부인은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일화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한 권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 2016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 2015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선정 '올해의 추천도서'
-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12월에 읽을 만한 책'
-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 선정 '베스트 사이언스북 10'





현존하는 최고의 과학 스토리텔러 닐 디그래스 타이슨

닐 디그래스 타이슨은 미국 자연사 박물관 부설 헤이든 천문관의 천체물리학자이자,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그는 “내 목표는 우주를 지상으로 끌고 내려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을 좀 더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과학과 대중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데 평생을 바쳐온 인물로, 대중을 위한 천문학 책을 여러 권 써왔다. 특유의 발랄하고 활기찬 화법과 유머 감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명쾌하고 쉽게 전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온 그는 460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스거리가 될 만한 과학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매체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한다. 2014년에는 13부작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진행자이자 내레이터로 등장하여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광대한 시공간으로 시청자들을 안내하면서 생명의 기원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칼 세이건이 1980년에 진행했던 기념비적 시리즈를 새롭게 리부트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180여 개국에서 45개 언어로 방영되었고, 에미상 네 개 부문, 피버디상 등 여러 방송상을 수상했다.

또한 타이슨은 2000년 <피플>지에서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천체물리학자’로 선정, 2004년 NASA에서 공로 훈장 수여, 2008년 <디스커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10인’으로 선정, 2015년 미국 과학 학회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의 경이로움에 빠져들도록 빼어난 활약을 펼친 타이슨에게 ‘공익 메달’을 수여했다.



스페이스 크로니클

우주 탐험, 그 여정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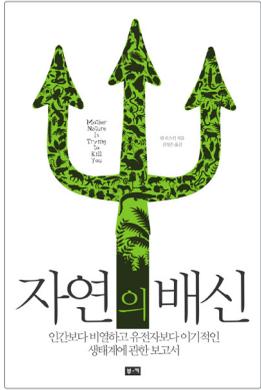
닐 타이슨 지음 | 박병철 옮김 | 국판 | 448쪽 | 18,000원

2016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칼 세이건의 후계자, 닐 타이슨 우주 탐험의 의미를 묻다



‘현존하는 최고의 우주 스토리텔러’인 타이슨의 장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 기술적 개념을 명쾌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내 목표는 우주를 지상으로 끌고 내려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을 좀 더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우주 탐험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더욱 많은 자원과 투자가 우주 개발에 쏟아지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런 자신의 꿈을 담아 펴낸 열 번째 저서 《스페이스 크로니클》에서 타이슨은 인류가 왜 우주를 동경하게 되는지, 왜 우주로 나가려 하고, 나가야 하는지 등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주 탐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한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인간을 최초로 달에 내려놓은 아폴로 11호, 우주왕복선, 허블 우주 망원경 등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를 탐사해왔는지 살펴보고, 반물질 로켓을 이용한 먼 우주로의 여행이나 웜홀을 통과하는 공간 이동과 같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우며, 인류의 삶과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주로 시선을 확장하고 나아가길 것을 촉구한다.



자연의 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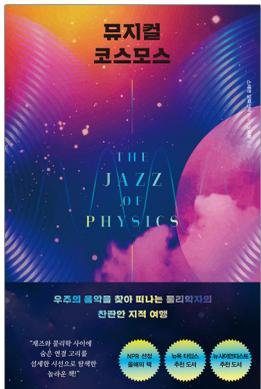
인간보다 비열하고 유전자보다 이기적인 생태계에 관한 보고서

댄 리스킨 지음 | 김정은 옮김 | 신국판 변형 | 304쪽 | 14,800원

자연은 한 장의 멋진 사진이 아니다
역동적인 삶과 죽음의 드라마다

우리는 보통 자연을 아름다운 것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박쥐 전문가이자 세계 유일의 일일 과학 프로그램인 <데일리 플래닛>의 진행자 댄 리스킨이 이처럼 기형적인 환상으로 포장된 자연을 낚듯 그대로 드러낸다. 탐욕, 색욕, 나태, 탐식, 질투, 분노, 오만이라는 인간의 7가지 죄악을 자연에 대입하는 저자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평온해 보이는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막장 드라마를 생생하게 감상해 보자.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6월에 읽을 만한 책'
2015 책따세 겨울방학 추천도서(과학/고2)



뮤지컬 코스모스

우주의 음악을 찾아 떠나는 물리학자의 찬란한 지적 여행

스테판 알렉산더 지음 | 노태복 옮김 | 신국판 변형 | 312쪽 | 16,000원

우주와 음악의 경이로운 유사성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

물리학자이자 재즈 음악가인 저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주의 음악' 또는 '음악적 우주'에 관한 탐색을 시도한다. 음악과 우주 사이의 관련성을 간파한 인물들, 즉 피타고라스,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의 발자취를 좇아 음악과 물리학의 보편적인 관련성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등의 옛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의 사상과 실천이 케플러와 뉴턴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노력을 거치면서 어떻게 끈과 파동의 역학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낳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리학과 음악이라는 두 분야를 '유비'라는 개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리를 통해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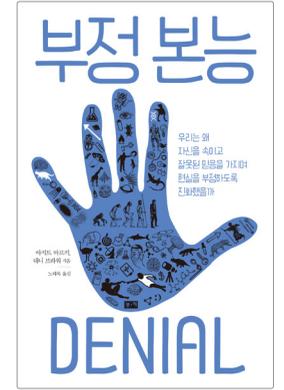
부정 본능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며 현실을 부정하도록 진화했을까

아지트 바르키, 대니 브라워 지음 | 노태복 옮김 | 신국판 | 400쪽 | 18,000원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 본능'이다

수백만 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춘 코끼리나 돌고래는 없을까?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진화한 것은 뇌의 발달 같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 즉 죽음에 대한 부정을 비롯해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덕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은 현실 부정이 암 환자의 낙관주의 성향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대담성 등 소중한 자질도 갖출 수 있게 해주었을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엄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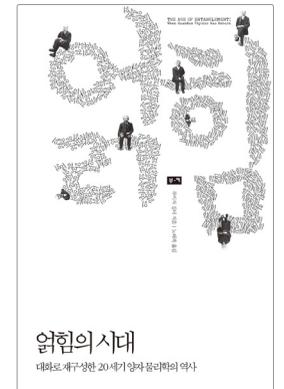
대화로 재구성한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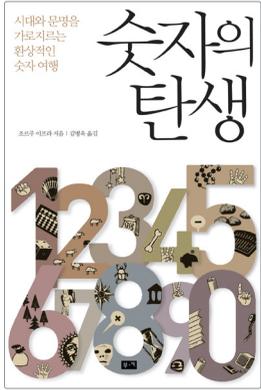
루이자 길더 지음 | 노태복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728쪽 | 25,000원

양자 물리학의 역사를
한 편의 대화 다큐멘터리로 만들다

양자 물리학의 근본 개념 중 하나인 양자 엄힘을 파헤친 독창적이고 풍성한 탐구의 기록. 이야기는 천재들이 다녔던 대학은 물론이고 아인슈타인과 막스 폰 라우에가 이야기를 나누는 취리히의 한 커피숍에서부터 데이비드 보姆과 리처드 파인먼이 맥주를 마시며 담소하는 브라질의 술집으로까지 들어간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논문, 편지, 회고록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마치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듯 그려냄으로써 이야기에 인간미와 극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2012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2012 프레시안 '올해의 책'





숫자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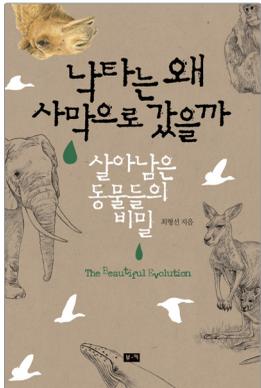
시대와 문명을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숫자여행

조르주 이프라 지음 | 김병욱 옮김 | 신국판 변형 | 464쪽 | 16,000원

동서양의 위대한 문명이 좇아온 숫자 발명의 역사

숫자는 어디서 온 걸까? 옛날에는 어떻게 셈을 했을까? 누가 '0'을 발명했을까? 숫자는 불의 사용이나 농경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발명을 거듭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숫자의 역사는 선사시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인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숫자의 탄생을 살펴보고 지성이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보가 인류의 집단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장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 준다.

2011 9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살아남은 동물들의 비밀

최형선 지음 | 국판 변형 | 256쪽 | 14,000원

생태와 진화로 풀면 동물이 새롭게 보인다

에베레스트를 넘는 줄기리기, 바다로 간 고래 등 지구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덟 동물을 통해 살펴본 아름다운 진화 이야기. 생태학 박사인 저자는 “생태계는 다양한 생존 노력이 모여 공존의 기쁨을 알려 주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등장 동물들의 신체 구조와 생존의 비밀을 자세히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고 인간 사회에 비추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자극하는 책이다.

2012 KBS한국어능력시험 선정도서

2011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2011 6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제30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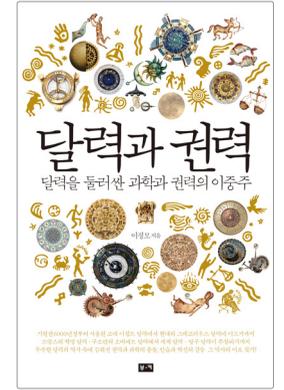
달력과 권력

달력을 둘러싼 과학과 권력의 이중주

이정모 지음 | 신국판 | 264쪽 | 12,800원

달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과학의 타협, 인습과 혁신의 갈등, 그 숨겨진 역사의 미로 찾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자, 이정모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의 흥미진진한 달력 이야기! 현대 달력의 기원인 고대 이집트 달력에서 시작하여 그레고리우스 달력에 이르기까지 달력의 굽적굽적한 변화상, 로마 공화정 관리들의 달력 조작, 무슬러니의 파소 달력과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소비에트 달력 등 달력에 관한 자연과학적 궁금증과 역사에 새겨진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 보자.



세계를 움직인 과학의 고전들

가타 히로키 지음 | 정숙영 옮김 | 이정모 감수 | 신국판 변형 | 256쪽 | 12,000원

쉽게 만나서 과학 고전, 생생한 과학 에피소드, 갈릴레오에서 왓슨까지 열네 권의 과학 고전

교토대 학생들이 뽑은 '가장 수업받고 싶은 교수' 1위에 빛나는 가타 히로키가 14권의 과학 고전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다. 갈릴레오의 《시데레우스 누치우스》부터 다윈의 《종의 기원》, 키슨의 《침묵의 봄》, 그리고 왓슨의 《이중나선》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본질과 내용을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열네 편의 칼럼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에 대한 소개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11 교육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2010 책따세 선정 '겨울방학 청소년 권장도서'

2010 12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미스터 풍 수학에 빠지다

왜 요리에도 수학이?

송은영 지음 | 김수민 그림 | 신국판 변형 | 264쪽 | 12,500원

호기심 넘치는 좌충우돌 수학 청년,
미스터 풍과 함께 수학 원리를 찾아보자

사람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송은영 작가가 유쾌하고 친근한 에피소드로 구성된 수학 이야기. 열혈 수학 청년 미스터 풍이 일상생활 속 갖가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수학으로 해결해 나간다. 90편의 만화 퀴즈와 풀이가 수록되어 있는 이 책에서 미스터 풍은 공원에 활짝 피어 있는 해바라기도, 식당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목소리도,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는 은하도, 세찬 폭우와 함께 번쩍거리는 번개도, 상대를 제압하려는 유도 선수의 자세도 원주율, 소수, 확률 같은 수학 원리에 따라 구성되거나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2018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과학도서



미스터 풍 과학에 빠지다

호기심으로 떠나는 창의력 여행

송은영 지음 | 박수영 그림 | 신국판 변형 | 272쪽 | 12,500원

호기심 충만 미스터 풍, 과학으로 놀고 뒹굴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과학 원리와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의문, 궁금증 등을 1~4컷짜리 카툰을 통해 제시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과학이라면 지레 부담부터 갖게 되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얻을 수 있는 '과학책'이다. 사소한 호기심에서 발전한, 과학사의 발명과 발견 에피소드도 장마दा 소개돼 있다.

2012 아침독서 추천도서

2012 1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200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권장도서'

아인슈타인의 생각 실험실 1, 2

1 빛을 쫓아 특수상대성이론에 이른다

2 엘리베이터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만나다

송은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각 권 250쪽 내외 | 각 권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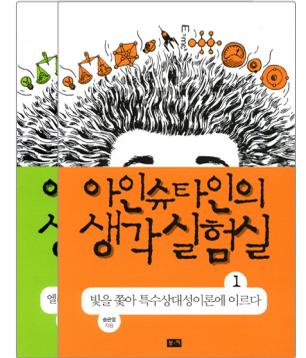
달력을 돌려싸고 벌어지는 권력과 과학의 타협,
인습과 혁신의 갈등, 그 숨겨진 역사의 미로 찾기

이 책은 특 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울렁증을 일으키는 수학식은 가능한 한 줄이고, 약간의 물리 상식과 중학교 졸업생 수준의 수학 실력만 있으면 총 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친절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과학 지식을 스스로 이해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2010 교육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2010 포스코 교육재단 학부모 권장도서

2010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도서'



New 과학은 흐른다 1, 2, 3, 4, 5

만화 신영희 | 글 정혜용 | 박성래 김수 | 사륙배판 | 각 권 210쪽 내외 | 각 권 12,000원

우리가 만들고 온 세계가 즐기는 과학의 역사 현장!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중국, 대만, 태국판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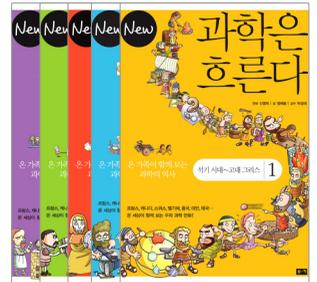
고대부터 근대까지 주요한 과학 발견의 현장을 만화로 구성해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도록 한 교양 학습 만화. 과학적 발견이 이뤄진 과정을 인류 문명사적 시각에서 풀어 나간다. 과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문·교양 지식까지 쉽게 체득할 수 있다.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중국, 대만,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 세계가 함께 읽고 있다.

2011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2005 과학기술부 우수과학도서

전국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추천 만화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수기획 실용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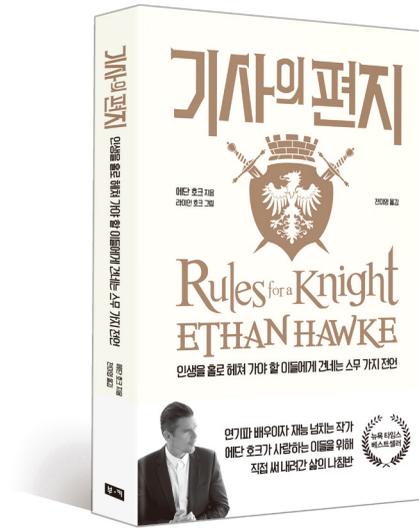


끊임없는 도전으로 독보적인 존재가 된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작가, 에단 호크

1970년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태어났다. 학창 시절에는 연기 수업을 받는 한편 작가를 꿈꾸던 문학 소년이기도 했다. 카네기멜런대학교에 입학해 연기를 공부하던 그는 1989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뜻밖의 미소년 토티로 등장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 후 <트레이닝 데이>(2001)와 <보이후드>(2014)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두 번 오르는 등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여 왔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 3부작의 주인공으로 활약했으며, 그중 <비포 선셋>(2004)과 <비포 미드나잇>(2013)의 시나리오 집필에 참여하여 두 차례 모두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작가로도 두각을 드러냈다. 배우 활동을 잠시 멈추고 뉴욕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기도 한 호크는 소설 <이토록 뜨거운 순간>(1996)과 <웬즈데이>(2002)를 발표하여 평단의 호평을 얻었다. 첫 번째 소설을 영화화한 <이토록 뜨거운 순간>에서는 직접 메가폰을 잡는 동시에 주인공의 아버지로 출연하기도 했다.

세 번째 책 <기사의 편지>에서 에단 호크는 자신의 개인적 체험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우화며 중국 고사, 불교 설화 같은 옛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재구성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중세의 기사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주인공 토머스 레뮤얼 호크 경과 똑같이 네 자녀를 둔 에단 호크의 사랑이 진하게 묻어 나오는 이 작품의 일러스트는 아내 라이언 호크가 그렸다.



기사의 편지

인생을 홀로 헤쳐 가야 할 이들에게 건네는 스무 가지 전언

에단 호크 지음 | 전미영 옮김 | 사륙판 변형 | 208쪽 | 12,000원

에단 호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직접 써 내려간 '삶의 나침반'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감독이며 작가로서 무게감 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단 호크가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우화. 1483년 겨울, 영국 콘월 지방의 기사 토머스 레뮤얼 호크 경은 험난한 전투를 앞두고 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한 그는 출전하기 전날 밤, 사랑하는 네 자녀에게 자기가 익혀 온 삶의 교훈을 담은 편지를 쓴다. 토머스는 천방지축 소년이었던 자기가 덕망 높은 기사인 외할아버지의 증자로 들어가 기사로 성장하며 겪은 사건과 일화를 풀어나가면서, 겸손, 협력, 사랑, 믿음, 우정, 용기 등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20가지 '기사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에단 호크는 개인적 체험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 우화며 중국 고사, 불교 설화 같은 옛이야기를 재구성한 에피소드들을 숨쉬 있게 엮으며 중세의 기사도를 재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 및 세상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자녀야 할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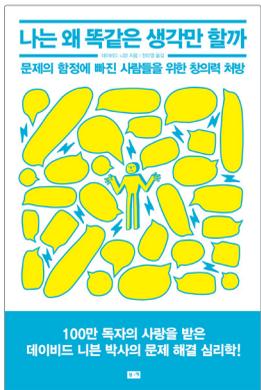
너답게 살아갈 너에게

위로 아닌 직설로 응원하는 20대의 홀로서기

이필재 지음 | 신국판 변형 | 368쪽 | 14,800원

힐링 따위에 기대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너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고민할 것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은 대한민국 20대. 학생 신분을 벗고 처음 마주하는 세상살이에 청년 실업을 악화, 비정규직 확산 등 참담한 현실까지. 막막하기만 한 20대에게 40명의 선배들이 냉정한 직설을 날렸다. 이 책은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자 강단에 서는 스승이기도 한 이필재 기자가 청년의 고민을 들고 각계각층 명사들을 찾아가 답을 청한 인터뷰 모음집이다. 청년의 언어로 직접 털어놓은 고민에, 우석훈·엄홍길·김태원·김수영·장하성·김미경·공병호 등 성공한 40명의 멘토가 솔직하게 답했다.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였다. “너만의 길을 가면 된다. 너답게 살아갈 너를, 우리가 응원한다.”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문제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창의력 처방

데이비드 니븐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288쪽 | 13,800원

1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데이비드 니븐 박사의 '문제 해결 심리학'

저자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느라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지나친 노력과 열정이 도리어 실패를 가져온다고 조언한다. 문제를 더 키우는 행동, 행복보다 불행에 끌리는 경향, 부질없는 노력과 의욕의 덫, 첫 번째 생각에 집착하는 사고 패턴에서부터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전환 관념, 정신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혀 주는 반대 관념, 더 근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생각법에 이르기까지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놀라운 통찰로 가득하다. 이 책은 제자리를 맴도는 똑같은 생각으로 삶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창의력 처방전이자, 해결 불가능한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사소 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삶의 악순환을 끊어낸 생생한 사례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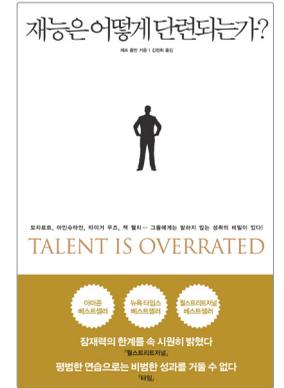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제프 콜빈 지음 | 김정희 옮김 | 신국판 | 304쪽 | 14,000원

모차르트와 타이거 우즈를 천재로 만든 동일한 원리는?

우리는 모차르트가 놀라운 음악 재능을 지녔고, 워런 버핏이 뛰어난 투자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대한 성과의 비밀은 무엇인가? 제프 콜빈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답한다. 이는 흔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할 때의 연습이 아니다. 이 연습은 어렵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분명 더 나은 성과를 보장한다. 이 책은 자녀교육과 기업의 인재육성에 필요한 실제적인 연습법을 제시한다.

2010 11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무취미의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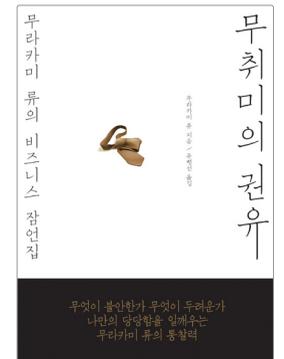
무라카미 류의 비즈니스 잠언집

무라카미 류 지음 | 유병선 옮김 | 사륙판 변형 양장 | 176쪽 | 12,000원

무라카미 류, 비즈니스맨의 고민에 답하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즈니스맨을 위한 일본의 월간지 《괴테》에 연재된 글을 엮은 책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류의 비즈니스 잠언집이다. 비즈니스맨이면 누구나 안고 사는 고민들의 본질을 날카롭게 짚어낸 새로운 시각이 돋보인다.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것들, 예컨대 옷차림, 접대, 메모, 독서, 스케줄 관리, 협상, 인맥, 동기부여, 부하 직원 관리, 전직, 충고, 업무상 글쓰기, 어학, 기획 등 구체적인 업무부터 리더의 역할, 사죄, 목표, 정열, 집중, 벤처, 파트너십, 세계화, 살아남기 등 추상적이고 폭넓은 개념까지 아우른다. 여기에 비즈니스맨의 일상적 소재인 취미, 좋아한다, 아우라, 최고 걸작 등도 다뤘다.

2012 5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나는 왜 늘 아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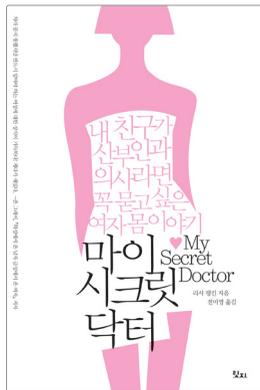
건강 강박증에 던지는 닥터 구트의 유쾌한 처방

크리스티안 구트 지음 | 유영미 옮김 | 국판 변형 | 320쪽 | 14,800원

건강 강박증에 걸린 현대인에게
삶의 즐거움을 누릴 것을 권하는 유쾌한 처방전

신경과 의사이자 의학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현대인의 건강 강박증을 진단하고 대안적 건강 가이드를 제시한다. 40대 초반 건강검진을 받기로 마음먹은 그는 압박적인 상담과 검사를 거치던 중 건강과 젊음에 집착하는 작금의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회의를 품게 된다. 이 모든 사안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기로 결심하고 여러 가지 취재와 조사, 내적 성찰에 매달린 끝에 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현대 의학의 한계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의학 전문가로서 건강 검진, 식이요법, 약물, 유전자 검사, 운동, 예방접종,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등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을 유쾌하게 풀어 준다.

매일경제 선정 '2017년을 여는 책 50'



마이 시크릿 닥터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꼭 묻고 싶은 여자 몸 이야기

리사 랭킨 지음 | 전미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424쪽 | 15,800원

여자로 살아 온 내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이 책이 해결해 주었다!

인간의 자기 치유 메커니즘을 담은 《치유혁명》으로 아마존 건강 분야 1위 및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석권한 리사 랭킨은 이번 책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 책을 가득 채운 250개의 질문 하나하나는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차마 묻지 못했던 궁금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질문도 처음이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저자의 태도 또한 지금껏 한국 독자들이 본 적 없는 솔직한 산부인과 의사의 모습이라 더욱 신선하다. 특히 성생활 영역의 경우, 고루했던 기존의 성(性) 실용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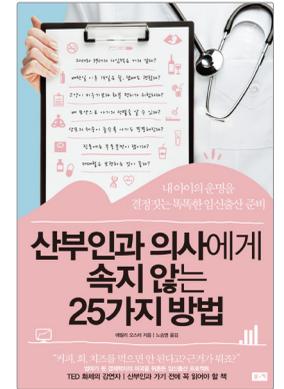
산부인과 의사에게 속지 않는 25가지 방법

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똑똑한 임신출산 준비

에밀리 오스터 지음 | 노승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84쪽 | 16,000원

미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똑똑한 '임신출산' 가이드북

시카고대학 MBA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2011년에 딸을 출산한 보건경제학자 에밀리 오스터가 수백 건의 의학 문헌을 비교 분석하여, 예비 엄마들이 꼭 알아야 할 '잘못 알려진 상식'과 '정확한 정보'를 정리한 책이다. 계획임신부터, 와인과 체중 문제, 기형아 검사와 무통분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임신출산 정보를 끌어 모아,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예비 엄마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해 주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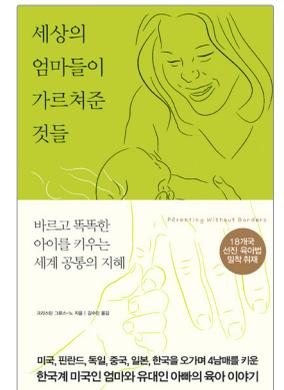
세상의 엄마들이 가르쳐준 것들

바르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세계 공통의 지혜

크리스틴 그로스-노 지음 | 김수민 옮김 | 신국판 변형 | 448쪽 | 15,000원

육아라는 현실과 마주한 엄마를 위한
공감 백배 육아 노하우!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미 교포 2세로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유대인 남편과 결혼해 4남매를 낳아 기른 크리스틴 그로스-노는 2년간 18개 육아 선진국의 엄마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하며 다양한 양육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스스로 독립심을 기르고, 환경에 적응하고,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지혜로운 엄마들을 만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기다려 주고, 아이의 실패를 응원하며, 필요 이상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나라의 이름을 딴 양육법이 홍수를 이루는 요즘, 세계 육아를 균형 있게 분석한 이 책은 육아라는 현실과 마주한 엄마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정보를 선사할 것이다.





1억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 갖기

전셋값으로 서울에서 1시간, 마당 있는 집 찾기 프로젝트

남이영 지음 | 크라운판 변형 | 360쪽 | 15,800원

최초의 시골집 매매 가이드북!

1억으로 경기도에 58평 집을 마련하기까지,

9개월간의 발품 노하우

우여곡절 끝에 이천에서 58평짜리 알짜 이층집을 마련한 평범한 아줌마의 시골 부동산 노하우를 생생하게 담은 '최초의 시골집 매매 가이드북'. 저자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개월 동안 500여 개의 집을 보러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시골집 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 동네 와 집의 장단점을 찾는 법, 시골 부동산 업자별 6가지 스타일 등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 낸다. 시골의 부동산 지식과 집 계약의 내밀한 속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벌 땀 벌고 쓸 땀 쓰는 여자를 위한 돈 버는 선택

이지영 지음 | 신국판 변형 | 320쪽 | 14,000원

갈림길 앞에 선 여자들을 위한 경제 내비게이션

카드 잘 쓰면 현금보다 낫지 않나? 구질구질하게 돈 빌릴 것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쓸까? 집값도 떨어지는데 이 기회에 대출받아 전세로 옮길까? 돈 모아서 결혼할까? 결혼하고 나서 모을까? 오랜 기간 가정경제 상담사로 일하며 많은 여성의 경제 문제, 제테크 문제를 해결해 온 이지영 저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사소한 돈 문제에 관한 망설임부터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제테크 딜레마 45가지에 대한 해법을 간단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제테크에 대한 잘못된 상식, 알뜰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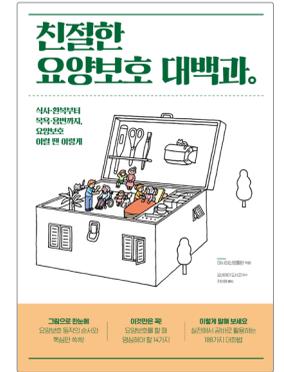
친절한 영양보호 대백과

식사 환복부터 목욕 용변까지, 영양보호 이럴 땐 이렇게

아사히신문출판 지음 | 지비원 옮김 | 요네야마 도시코 감수 | 240쪽 | 사륙배판 변형 | 18,000원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영양보호 동작의 핵심

요양보호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영양보호 동작을 할 때 지켜야 할 순서와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움직이는 방향이나 힘을 주는 법을 조금만 개선해도 동작이 훨씬 수월해진다. 《친절한 영양보호 대백과》는 상세한 그림과 친절한 설명을 통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동작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몸의 신체 역할을 바탕으로 각각의 동작을 할 때 보호자와 대상자가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짚어 주어 더 안전하고 원만한 영양보호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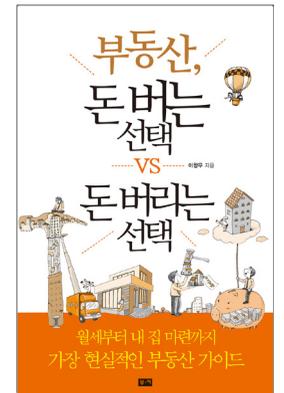
부동산, 돈 버는 선택 vs 돈 버리는 선택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가이드

이창우 | 신국판 변형 | 272쪽 | 13,800원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

건설 현장과 연구소를 누비며 부동산에 관한 균형 감각을 갖춘 도시공학 박사 이창우가 부동산 불황 속에서 부동산을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보여 주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 나아가 노후를 위한 투자까지, 돈 버리는 선택이 아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영국 판타지 소설계의 대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저예산 영화의 작가, 제작자, 감독으로도 일하고 만화를 그리기도 하다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다수의 책에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마치 발명가가 영감을 얻듯 문득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기는 데서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의 시작인 《모털 엔진》이 시작되었다. 처음과 끝에 관한 아이디어만 있었던 그는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작업실로 개조해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규칙적으로 이야기를 써낸 끝에 《모털 엔진》을 완성했다. 4부작에 대한 계획은 없었지만, 쓰다 보니 이야기 실태라가 자연스레 풀려가 《사냥꾼의 현상금》 《악마의 무기》 《황혼의 들판》 4부작과 《아서왕, 여기 잠들다》 《라크라이트》 '버스터 베일리스' 시리즈 등을 집필해냈다. 전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는 그의 바람대로 2001년 출간된 《모털 엔진》은 출간하자마자 곧바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또한 이듬해 이 책으로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최고 문학상인 '휘트브레드 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그의 소설들은 《가디언》 《데일리 텔레그래프》 《타임스》의 호평 속에서 메이저 영화사인 유니버설 픽처스에 판권이 팔렸고 《반지의 제왕》 《호빗》을 연출한 세계적인 감독 피터 잭슨 제작으로 영화화되어 2018년 말 전 세계 동시 개봉했다. 지구 종말 이후의 세계를 다룬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은 "필립 리브의 복잡다단한 상상의 세계는 해리 포터의 마법의 세계마저 단순해 보이게 할 정도"(인디펜던트), "SF 어드벤처계의 디킨스"(가디언)라는 평가를 받은 필립 리브의 역작이다.

- 2007 일본 SF대상 성운상星雲賞 해외장편부문 상
-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2005 최고의 장르소설'
- 영국서점연합회 선정 '2004 최고의 SF 소설'
- 2004 웨버 카운티 선정 '꼭 읽어야 할 SF 걸작'
- 2003 BBC 블루피터북 선정 올해의 책
- 2002 네슬레 스마트즈 어워드 금상 수상

모털 엔진 견인 도시 연대기-1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국판 | 436쪽 | 12,000원

핵전쟁으로 추정되는 '60분 전쟁'으로 종말을 맞은 지구. 종말 후 생존한 소수 인류는 자연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 작은 도시를 잡아먹으며 생존한다는 '견인 도시'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이 심각한 자원 고갈과 자연 파괴를 초래해 지구를 멸망시킬 거라 믿는 '반 견인 도시주의자'들이 그들과 강력하게 맞서는데…….

사냥꾼의 현상금 견인 도시 연대기-2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국판 | 448쪽 | 12,000원

앵커리지에 머물게 된 톰은 매사에 까칠한 헤스터와 달리, 함께 있으면 편안한 소녀 프레이아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톰의 행동에 상처받은 헤스터는 다른 도시들의 위치를 발설하면 현상금을 주는 사냥꾼 도시, '아크에인절'로 혼자 날아가 앵커리지를 밀고한다. 그리고 현상금 대신 톰을 넘기라고 요구하는데…….

악마의 무기 견인 도시 연대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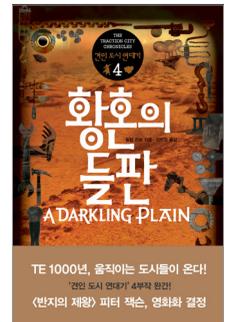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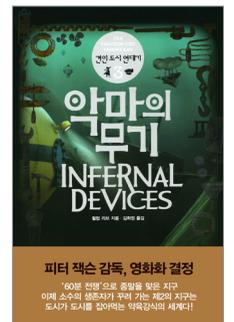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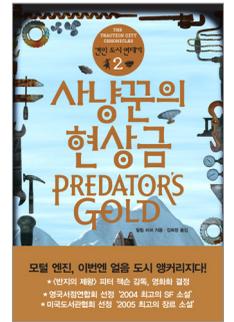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국판 | 464쪽 | 12,000원

《사냥꾼의 현상금》 이후 16년 뒤의 이야기다. 앵커리지에서 결혼하여 딸 렌을 낳아 키우던 톰과 헤스터. 어느 날 기생 해적 로스트 보이들이 '틴 북'을 찾아 앵커리지에 숨어들다. 그 책에는 견인 도시들과 반 견인 도시 세력 간의 전쟁을 종식시킬 가공할 무기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다고 하는데…….

황혼의 들판 견인 도시 연대기-4

필립 리브 지음 | 김희정 옮김 | 국판 | 656쪽 | 12,000원

지구는 또 한 번 대규모 전쟁과 멸망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한다. 톰과 렌,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헤스터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 견인 도시 연대기 4부작의 완결편이다.





마더

엄마라는 이름의 나의 구원자

사카모토 유지 | 이선희 옮김 | 국판 변형 | 656쪽 | 19,000원

“남자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엄마’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성과 인생에 대한 통찰

일본 드라마 사상 최고의 문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마더>의 원작 대본집. 레전드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의 국내 첫 출간작이다. 2018년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되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철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 나오는 근무하던 연구소가 폐쇄되면서 초등학교 임시코사로 부임하게 된다. 그곳에서 나오는 작고 마른 체구에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나 있는 1학년생 레나를 보며 아동학대를 의심한다. 어느 날 쓰레기봉투에 싸여 버려진 레나를 발견하고, 나오는 아이를 유괴하여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 작품은 ‘모성’뿐 아니라 엄마와 딸,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하여, 엄마로서의 여성에 대하여, 나아가 가족과 삶에 대하여 가슴으로 돌아보도록 이끈다.



시짱, 나의 시짱

고초반 지음 | 김지희 옮김 | 국판 변형 | 164쪽 | 12,000원

아마존재팬 육아일기 베스트셀러 1위
인스타그램 팔로워 30만 명이 사랑하는 시짱의 하루하루

일러스트레이터 엄마와 세 살배기 딸 시짱이 만들어 가는 엉뚱하고도 몽클한 하루하루를 담은 그림 에세이. 출간 즉시 아마존재팬 육아일기 부문 1위를 휩쓴 이 시리즈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엄마 고초반이 매일매일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육아 그림일기를 모은 것이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엉뚱한 시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어느덧 30만을 돌파하였다. “내일도 100번 ‘엄마 좋아해’라고 말할 거야. 괜찮지?”라고 깜짝예고를 날리거나, 잠들기 전 갑자기 “엄마, 곤란한 일은 시짱한테 얘기해줘.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라며 가슴 몽클하게 만드는 시짱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딸이 잠든 밤에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그림으로 옮겼다.

모스크바에서의 오해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최정수 옮김 | 국판 변형 | 144쪽 | 8,900원

현대 여성 지성의 상징,
시몬 드 보부아르의 빛나는 미발표작

1962~1966년 사이 사르트르와 함께 여러 차례 소련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부아르의 자전적 소설. 원래 1968년 출간된 소설집 <위기의 여자>에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이 작품을 고쳐 쓴 <분별의 나이>가 최종적으로 실렸다. 이 작품은 미발표작으로 남아 있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나이 60을 코앞에 둔 그녀가 겪게 되는 노화와 그에 따른 좌절, 젊은이들에 대한 질투,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솔직하게 녹아 있다. 50년을 함께한 사르트르와의 애정은 앙드레와 니콜의 끈끈한 관계로, 모스크바에서 만난 통역사 레나 조니나에 대한 질투와 우정은 마사와의 관계로 생명력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건 보부아르, 그녀 자신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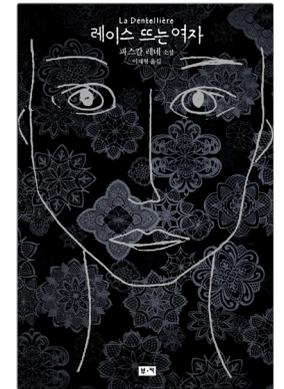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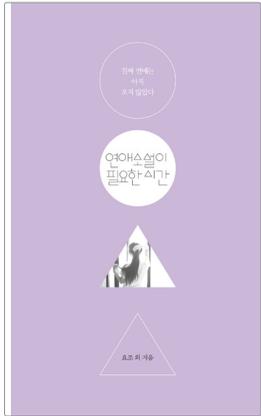
레이스 뜨는 여자

파스칼 레네 지음 | 이재형 옮김 | 국판 변형 | 192쪽 | 9,800원

이자벨 위페르 주연의 영화
<레이스 뜨는 여인>의 원작 소설

얀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제목을 따온 이 소설은, 한 여자와 남자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흔해 빠진 이야기를 통해 가면 뒤에 숨겨진 현실 세계의 맨 얼굴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만 15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세계 주요 언어로 두루 번역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60만 부가 넘게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68혁명의 소용돌이를 건너온 작가 파스칼 레네의 날카로우면서도 폭넓은 현실 인식과 문제의식이 문학으로 결실을 맺은 이 소설은, 연애 소설인가 하면 아주 섬세한 철학 소설이자 사회 소설이고, 또한 심리 소설이기도 하다. 가벼운 소설에 지친 이들에게 사유의 맛깔스러움과 청량감을 안겨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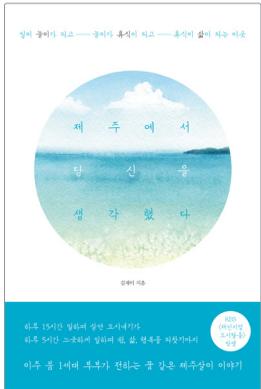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

진짜 연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요조 외 19인 지음 | 사륙판 변형 | 320쪽 | 12,000원

‘읽기’라는 만남, 새로운 방식의 연애를 만나는 시간

연애의 고프머리에서 건조해진 마음을 순도 높은 사랑 이야기에 꼭 담고 싶을 때, 우리는 연애소설을 찾게 된다. 그렇다.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이란 건 언제나 연애가 끝났을 때 시작된다. 심어송라이터 요조, 영화평론가 정성일, 시인 황인찬, 소설가 김중혁, 만화가 김보통 등 완전히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스무 명의 남자와 여자. 이들 앞에 ‘연애소설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제목만 쓰인 빈종이가 놓여졌다.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이 책은 그들이 했던 연애, 그들이 읽은 소설, 그리고 그들이 필요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연애 부재증’의 헛헛함, 건조해진 마음을 따뜻한 글에 꼭 담가 보자.



제주에서 당신을 생각했다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휴식이 되고 휴식이 삶이 되는 이곳

김재이 지음 | 국판 변형 | 248쪽 | 13,800원

생계에 쫓겨 살던 도시내기 부부의 ‘탈(脫)서울기

제주 이주 붐 1세대인 김재이 부부가 5년간 써 내려온 수수한 삶의 기록. 서울에서 영세 자영업자로 사는 삶이란 생존에 허덕이며 겨우 버텨내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다. 저자가 평생을 보낸 서울을 뒤로 하고 남편과 돌연 제주로 날아간 까닭이다. 저자는 제주에서 자연과 이웃을 보듬으며 도시살이의 갖은 후유증을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에 서서히 가 닿는다. 이제 막 ‘육지’에서 ‘제주’로 정체성이 바뀌었건만, 가까운 미래에 제주 남단의 가파도로 다시금 거처를 옮기려는 부부. 행복한 삶은 그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임을 부부의 제주살이가 웅변한다.

안녕, 누구나의 인생

상처받고 흔들리는 당신을 위한 뜨거운 조언

릴 스트레이드 지음 | 홍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 376쪽 | 14,000원

아파 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뜨거운 공감’과 ‘냉정한 충고’

《와일드》의 작가 세릴 스트레이드가 ‘슈거’라는 필명으로 연재한 칼럼 모음집. 아버지의 폭력, 이른 나이의 결혼과 이혼, 어머니의 죽음과 위임은 방향 등 저자는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가족 간의 갈등, 사랑과 이별, 상실의 고통 등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 문제에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가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슈거가 건네는 조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향한다. 그녀는 자기 가슴속에 반짝이는 빛을 따라 ‘지금 이곳’을 떠나라고 말한다.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라며, 외롭고 두려워하는 독자들을 뜨겁게 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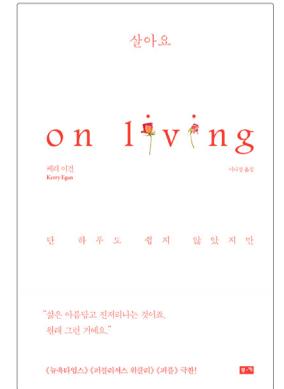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케리 이건 지음 | 이나경 옮김 | 288쪽 | 사륙판 | 13,800원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전하는 인생의 진실

수술 중 투여 받은 진통제의 후유증으로 얻은 정신병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던 저자가 호스피스에서 일하게 된다. 그녀는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는다. 온몸에 암이 퍼진 할머니, 대학 입학식 다음날 총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청년,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된 남자, 전쟁에 나간 동안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과거를 잊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들은 삶의 끝에서 각자의 후회와 아쉬움, 깨달음,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치유받은 저자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열세 개의 이야기로 엮어 독자들에게 함께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어떠한 위인이 전하는 명언보다 강력한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그 일, 정말 할 만합니까? 각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하는 직업의 세계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지, 실상은 어떤지,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인지, 대우는 어느 정도 인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전문성으로 무장한 '직업인'만이 살아남는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이 땅의 청소년과 대학생, 예비 사회인, 진로 지도에 고심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 직업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인지 미리 가능해 보는 잣대를 제공한다.

2003년 12월 《PD가 말하는 PD》를 시작으로 기자, 의 사, 간호사, 수의사, 디자이너, 요리사, 법조인, 만화가, 방송작가, 항공승무원, 광고인, 출판편집자, 건축가, 사서, 회계사, 사회복지사, 약사, 금융인, 공무원, 치과의사, 영화인까지 총 22권이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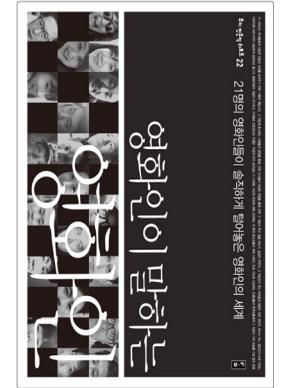
- 2014 세종도서 교양 부문
- 2014 아침독서 중3-고1용 추천도서
- 2013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 우수교양도서 선정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2011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 청소년 권장도서
- 2011 7월 북리펀드 선정도서
- 2007 아침독서 추천도서
- 2004·2006 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도서'
- 2004 책다세 선정 겨울방학 추천도서
- 2004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좋은 책'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인

21명의 영화인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영화인의 세계

장원석 외 20인 지음 | 신국판 | 236쪽 | 12,800원

영화를 둘러싼 현장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21명 직업인들의 솔직한 경험담이다. 영화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특수 분장사, 배급팀장, 영화평론가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는 '영화인'이라는 말에 가슴 뛰지만, 어떻게 하면 진짜 '영화인'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예비 영화인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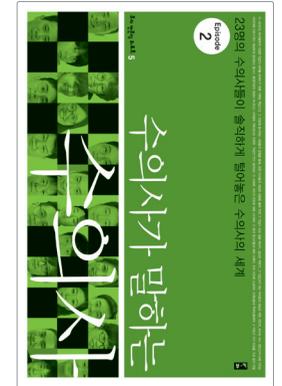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Episode2

23명의 수의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수의사의 세계

이학범 외 22인 지음 | 신국판 | 336쪽 | 14,800원

동물병원, 수족관과 동물원, 한국마사회, 야생동물구조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23인의 전·현직 수의사가 일과 일상, 보람과 애환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한 공중방역수의사, 동물 전문 치과·안과 병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수의 전문 변호사 등 초판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다채로운 직업군을 업데이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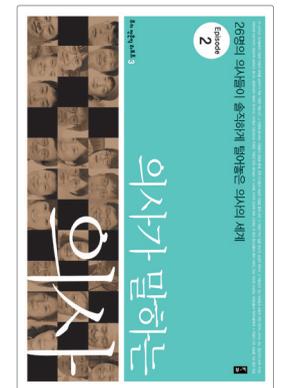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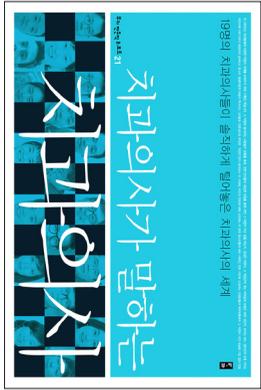
의사가 말하는 의사 Episode 2

2017년 신간 새로운 필진, 새로운 이야기

이현석 외 25인 지음 | 신국판 | 350쪽 | 14,800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물론이고 정신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 의사들의 이야기. 개원의부터 봉직의 등 다양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준다. 개정판 'Episode 2'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의사들의 세계를 반영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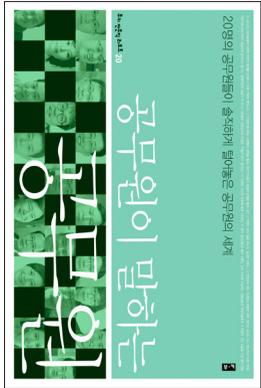




치과 의사가 말하는 치과 의사

안상수 외 18인 지음 | 신국판 | 280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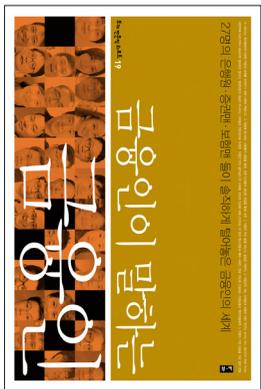
동네 치과병원에서부터 대학병원,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 국제보건의료재단, 나아가 미국 치과병원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치과 의사 19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치대생부터 인턴, 레지던트, 통합진료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외과·교정과·치과보존과·보철과·소아 치과·치주과 치과 의사, 기초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치과 의사 등을 통해 그들의 애환과 보람을 엿볼 수 있다.



공무원이 말하는 공무원

김미진 외 20인 지음 | 신국판 | 304쪽 | 13,000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직 공무원 20명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새내기들의 좌충우돌 업무 적응기를 비롯해 주민센터, 구청과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지방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 교도소, 우체국, 원자력발전위원회,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통해 그들의 애환과 애로, 기쁨과 보람을 엿볼 수 있다.



금융인이 말하는 금융인

강세훈 외 28명 지음 | 신국판 | 360쪽 | 13,000원

27명 금융인의 진솔한 이야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사, 투자자문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평가, 국민연금,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다채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순히 돈을 만지는 일을 하는 금융원이 아닌, 이 시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전문가로서의 애환과 노력, 보람 등이 곳곳에 녹아 있다.

약사가 말하는 약사

홍성광 외 25인 지음 | 신국판 | 344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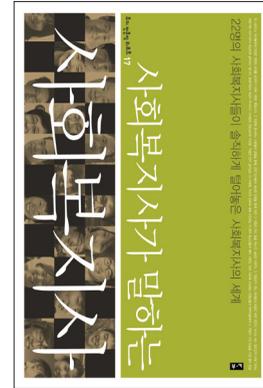
현직 약사 26명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애환과 애로, 보람 등을 이야기해 준다. 약국뿐 아니라 마트,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역할을 해 내는 약사의 세계를 조명하며, 메디컬 라이터,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도 다룬다. 더불어 의약분업이나 일반약 슈퍼 판매, 약대 학제 개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김세진 외 21인 지음 | 신국판 | 288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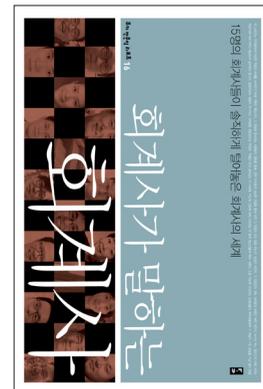
사회복지사 22인의 솔직한 이야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좌충우돌하는 '초보'에서부터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아동센터·정신보건 및 의료 기관을 비롯해 국회, 협동조합, 기업 재단은 물론 카페, 영상 제작, 국제 구호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기쁨과 보람, 어려움과 감동의 순간을 가감 없이 들려준다.



회계사가 말하는 회계사

강성원 외 15인 지음 | 신국판 | 248쪽 | 13,000원

15명의 회계사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회계사 생활 보고서다. 1, 2년 차 수습회계사부터 IT전문가, 기업가치평가전문가, 국제통상전문가, 국제조세 및 개인소득세 전문가로 활약 중인 회계사와 로컬회계법인 개업 회계사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그리고 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대검찰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들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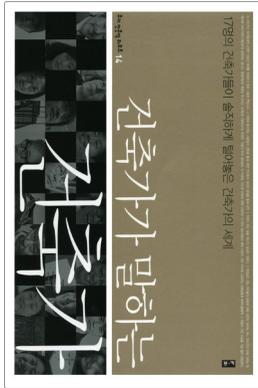




사서가 말하는 사서

이용훈 외 20인 지음 | 신국판 | 292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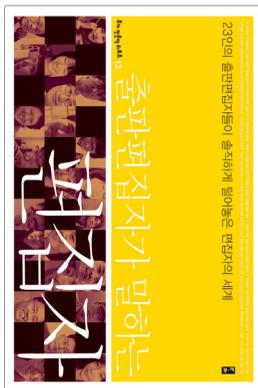
어린이도서관 사서부터 중·고등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를 비롯해 기업, 방송사, 인터넷 포털,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서들의 일과 생활을 생생하게 담았다. 사서로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더욱 넓은 분야로 진출한 2급 국가공무원, 연구원, 교수, 미국 도서관 사서들로부터 성공적인 조언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

이상림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22쪽 | 12,000원

새내기 건축가부터 공공 건축가, 상업 공간 건축가, 한옥 건축가와 김수근이 설립한 건축사무소 '공간'의 현 대표 이상림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국내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펼쳐놓았다. 건축가의 노동 강도, 보수, 전망, 건축가에서 건축사가 되는 과정 등 실제적 정보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건축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준다.



출판편집자가 말하는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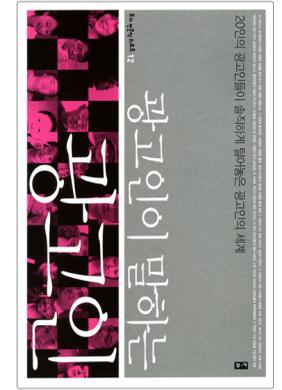
정은숙 외 22인 지음 | 신국판 | 256쪽 | 12,000원

1년 차 새내기부터 25년 차 베테랑까지, 문학, 인문, 예술, 경제경영·실용, 어린이·교육 분야를 비롯해 학습, 어린이 학습만화, 대학출판부까지 여러 분야에서 책을 만드는 출판편집자 23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편집자의 개성이 어떻게 저자의 원고와 어우러져 책에 반영되는지, 책 만드는 일이 장르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 디자인 제작 홍보 등 책 전반에 관여하는 편집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 준다.

광고인이 말하는 광고인

국정애 외 19인 지음 | 신국판 | 272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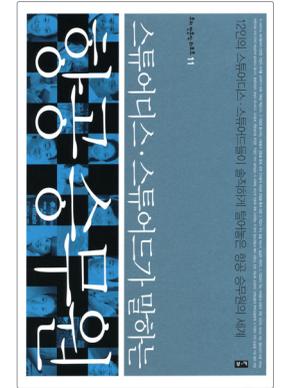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에 목숨을 거는 광고인의 다양한 세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광고의 생생하고 흥미로운 뒷이야기는 광고인이라는 직업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 밖에 제작 후기와 프레젠테이션 체험기, 공금증 14문 14답 등을 실어 광고인이 되려는 이들에게 선배 광고인들의 값진 조언을 전해 준다. 이를 통해 전문직의 화려함 뒤에 놓여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헌장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튜어디스·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원혜경 외 11인 지음 | 신국판 | 212쪽 | 12,000원

12명의 스튜어디스·스튜어드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항공 승무원 생활 보고서이다. 객실 승무원, 객실 팀장부터 외국 항공, 지역 민영 항공, 항공 훈련원, 승무원 양성 학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항공 승무원의 취업 과정, 보수와 전망 등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전한다.



방송작가가 말하는 방송작가

이정란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31쪽 | 12,000원

자상파, 케이블, DMB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방송작가들이 새끼 작가와 서브 작가를 거쳐 메인 작가로 활동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섭외와 아이템 전쟁을 비롯한 방송 뒷이야기와 방송작가 이면의 속살을 이야기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방송작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방송작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소개하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도전하라"는 따뜻한 당부를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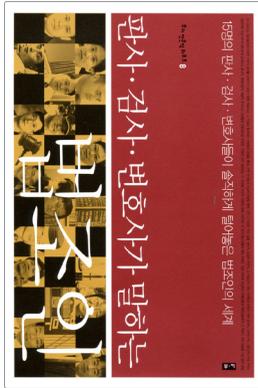




만화가가 말하는 만화가

나예리 외 16인 지음 | 신국판 | 256쪽 | 12,000원

17명의 만화가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만화가 생활 보고서. 순정, 학습, 소년, 성인, 생활 만화 등 전통적인 만화 분야는 물론이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만화, 언더그라운드 만화, 시사만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의 만화가들이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애환을 전한다. 또 스토리 작가, 만화 편집자, 만화 평론가 등도 필자로 참여해 더 넓은 만화가의 세계를 보여 준다.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박원경 외 15인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000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법조인의 삶을 알려 준다. 고등학교 생활을 방불케 하는 사법연수원 생활, 마음에 쏙기듯 '납품' 기일에 시달리며 수많은 서류와 씨름하는 판사의 모습, 부검 후에는 절대 밤 12시 전에는 귀가하지 않는 검사들의 습성,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등 법조 분야 종사자들의 생활과 고충, 보람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요리사가 말하는 요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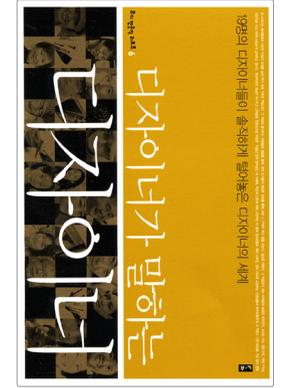
한영용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224쪽 | 12,000원

한식, 일식, 중식,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에서 외식 업체 메뉴 개발, 푸드 코디네이션, 식공간 연출, 약선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요리사들이 필자로 참여해 요리사의 세계를 보여 준다. 또 요리 유관 분야인 제과제빵, 소믈리에 종사자들도 필자로 참여했다. 요리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실용적이고도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제공한다.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오준식 외 18인 지음 | 신국판 | 28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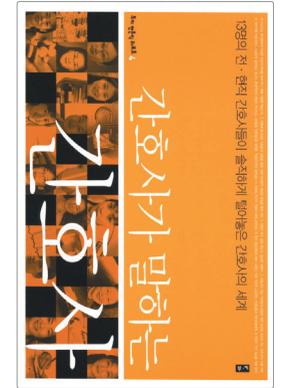
광고 아트 디렉터, 북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문구 소품 디자이너,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무대 디자이너, 인하우스 디자이너 등이 자신의 일과 생활, 보람과 고충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얼리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보도 그래픽 디자인 등 생소한 분야의 디자이너들도 참여해 새로운 세계를 보여 준다.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권혜림 외 13인 지음 | 신국판 | 204쪽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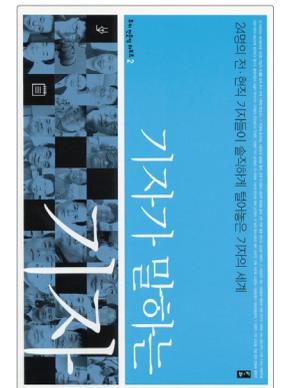
응급실, 수술실, 인공 신장실, 중환자실,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언더라이터, 의료 소송 매니저, 항공 전문 간호사, 미국 간호사, 호스피스, 남자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 이야기를 전한다. 필자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화자찬이나 자기비하 없이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이 책을 통해 여러 분야의 간호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람 과 애환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가 말하는 기자

임영주 외 25인 지음 | 신국판 | 318쪽 | 13,000원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비쳐지는 왜곡된 정보, 막연한 환상을 깨고 직업으로서의 기자, 생활인으로서의 기사를 조명한다. 폭탄주, 노동 강도, 보수, 사람 관리 등 기사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통해 기자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언론사의 인재 채용 경향과 함께 스케치기사, 논술, 작문, 집단 면접에 대한 선배들의 조언 등 기자 지망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싣고 있다.





이제 다시,
새롭게 배우는 기쁨

이 다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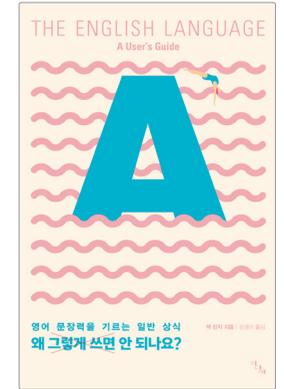
이 다 새는 부키의 어학 학습 브랜드. 이제 다시 새롭게,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자는 것이 이다새가 지향하는 목표다. 학생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공부를 한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계발을 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에 의해 공부를 하게 된다. '늦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공부일수록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왕 배우는 거, '이제 다시 새롭게' 공부하자는 게 이다새의 목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코르넬젠 비즈니스 영어' 시리즈를 비롯해 성인 독학자들을 위한 어학 학습 브랜드를 지향한다.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영어 문장력을 기르는 일반 상식

책 린지 지음 | 강경미 옮김 | 국판 | 376쪽 | 16,800원

최초로 영어사전을 편찬한 새뮤얼 존슨을 연구한 영문학자이자 출판사 편집자로서 도서·논문·학술지를 쓰고 엮고 편집해 온 저자가 엄선한 영어 글쓰기 비결, 글쟁이, 편집자, 글쓰기 선생으로 먹고살며 수많은 글을 읽고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고쳤는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파악한 글쓰기 요리를 유형별로 정리해 예문과 함께 실었다.



한영 번역, 이럴 땐 이렇게

분야별, 주제별, 용도별 영어 글쓰기 강의

조원미 지음 | 신국판 | 312쪽 | 14,800원

20년 차 통번역사인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한영 번역 입문서. 우리말과 영어의 구조를 비교해 가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겪는 어려움과 해결법, 우리말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용례를 통해 설명하고, 유의해야 할 표현을 알려 준다. 기사, 논문, 실용문, 수필 등의 우리말 원문을 제시하고 비전문가의 번역과 전문가의 번역을 번갈아 보여 주면서 '영작 잘하는 방법'을 꼼꼼히 짚어 준다.



번역, 이럴 땐 이렇게

분야별, 상황별, 주제별 영어 번역 강의

조원미 지음 | 신국판 | 268쪽 | 14,800원

번역사를 꿈꾸는 이들, 그리고 영어를 쓰거나 읽는 일이 많은 직장인을 위한 실제적인 번역 방법과 노하우를 담은 번역 기본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비교해 가며 어떤 때 직역하고 어떤 때 의역하면 좋은지, 영어의 부사, 형용사, 동사를 우리말로 옮길 때 겪는 어려움과 해결법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13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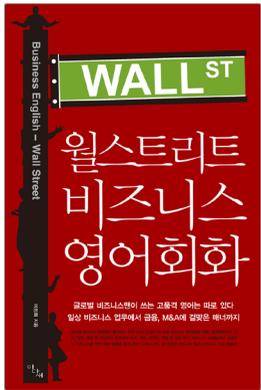
영어 동작표현사전

영미인들의 행동, 그 이면의 생각과 문화

고바야시 유우코 지음 | 정숙영·전선영 옮김 | 신국판 변형 양장 | 700쪽 | 35,000원

영미인들의 표정과 동작에 관한 표현 및 용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생각과 문화를 동양인의 시각에서 설명한 '동서양 비교문화 영어 동작 표현사전'이다. 2200여 개의 풍부한 용례와 250여 점의 일러스트를 통해 영미인의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엿볼 수 있게 집필되어 있다.

JACET(Japan Association of College English Teacher)상 수상



월스트리트 비즈니스 영어회화

이정희 지음 | 신국판 변형 | 244쪽 | 16,000원

세계적인 회계법인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뉴욕 본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비즈니스맨을 위해 쓴 영어회화 책이다. 현장감 있는 영어회화는 물론이고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저자만의 공부법과 비즈니스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다. 일상적인 회화 장면은 물론 복잡한 비즈니스 실무 장면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잇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한 영어회화 책이다.



단어를 보면 발음이 떠오르는 미국 영어발음법

전기선 지음 | 신국판 변형 | 224쪽 | 12,000원

과학자인 전기선 박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 집필한 새로운 영어 발음책이다. 그는 자신의 영어 발음을 개선하기 위해 '콩글리시'가 아닌 '잉글리시' 발음에 대해 공부하다가 영어 단어와 발음 사이에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책은 영어 단어와 발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콩글리시 발음을 교정하고 원어 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



독일 최대의 학습 교재 출판 그룹 프란츠 코르넬젠의 명품 비즈니스 잉글리시 교재

영어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공용어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분야에서는 영어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펼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기업 취업이 다반사가 되었고,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어는 이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업무 스킬이 되었다. 코르넬젠 Matters 시리즈와 Short Course 시리즈는 이미 유럽에서 최상의 비즈니스 현장 영어 교재로 각광받고 있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까지 콘텐츠가 보급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에도 상륙해 '명품 비즈니스 잉글리시 교재'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프란츠 코르넬젠 출판 그룹은 독일 최대의 학습 교재 출판 그룹으로 지난 60여 년간 학습 분야에 특화해 최고의 콘텐츠를 구축해 왔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서널 영어 분야에서 전 유럽을 상대로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교육 사업을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을 넘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까지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Cornelsen 프란츠 코르넬젠 출판 그룹은 독일 최대의 학습 교재 출판 그룹으로 지난 60여 년간 학습 분야에 특화해 최고의 콘텐츠를 구축해 왔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서널 영어 분야에서 전 유럽을 상대로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교육 사업을 선도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을 넘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까지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해외 기업 및 외국계 기업 취업에 최적화된 코르넬젠 Matters 시리즈

Matters는 '중요하다; 문제, 일, 사건'이라는 말로, '(해당) 실무', '(해당) 실무가 중요하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강의실 영어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영어 학습을 지향하는 시리즈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다. 코르넬젠 Matters 시리즈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사건과 시사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영어를 '현장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대화를 중심으로 한 학습
- Reading, Listening, Speaking, Grammar를 넘나드는 입체적인 학습
- 심화 영문 Text 읽기를 통해 영어 능력과 전문 지식 강화
- 필수 어휘 수록으로 직업 전문 분야 영어 능력 극대화

글로벌 시대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코르넬젠 Short Course 시리즈

Short Course는 말 그대로 '단기 속성 코스'를 뜻한다. 짧은 시간 안에 영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시리즈의 특성을 나타낸다.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제로 쓰이는 현장 영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분야'와 '상황'에 꼭 맞는 표현을 익혀야 한다. 실전 상황을 '문제풀이' 식으로 구성한 코르넬젠 Short Course 시리즈는 단기간에 비즈니스 영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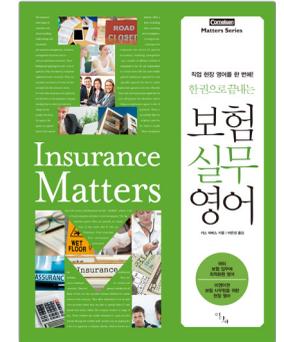
- 비즈니스 상황을 문제 풀이 중심으로 구성해 실전 능력 극대화
- 핵심 패턴과 표현 중심으로 구성된 최단기간 마스터 코스
- 주제 심화 Text, Listening, 필수 어휘 등을 연계한 입체적 구성

Matters 시리즈로 기본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실력을 다지고, Short Course 시리즈로 실전 능력을 배양하면 최적의 실무·실전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영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한국인에게 각자의 전공 분야나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를 익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한 권으로 끝내는 보험 실무 영어

키스 퍼비스 지음 | 이은경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80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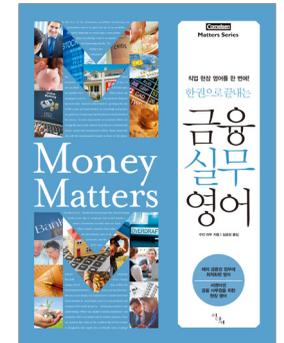
다양한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을 두루 다루고 있어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와 실무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보험업에 특화된 영어뿐만 아니라 사내 회의 및 컨퍼런스 참여, 고객 응대,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요구되는 영어를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 실무 영어

수잔 라우 지음 | 김금성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32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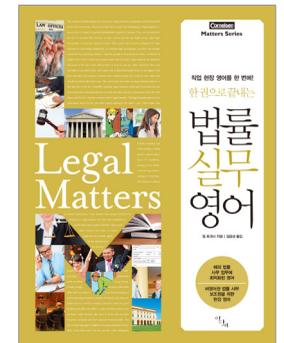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개인 금융 업무부터 현금 유동성, 해외무역, 화환신용장 등에 대한 금융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업 금융 업무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폭넓게 익힐 수 있으며 관련 전문 용어도 학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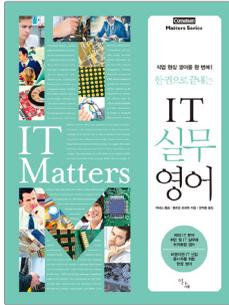


한 권으로 끝내는 법률 실무 영어

짐 포크너 지음 | 김금성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24쪽 | 18,000원

의뢰인 응대하기, 법무 관련 서신 주고받기, 법률 문서 읽기 등 법률 사무원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송무/자문 지원 업무부터 취업/이직을 위한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실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IT 실무 영어

케네스 톰슨, 볼프강 토와라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16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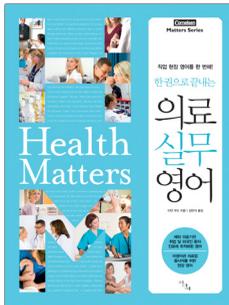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성, 네트워크 관리, IT 문제 해결 방법부터 IT 기업의 구조, IT 기업 박람회, 하드웨어 주문/불만 처리, 구직에 이르기까지 IT 산업 전반에 걸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실무 영어 표현을 두루 학습할 수 있다. 통상적인 IT 비즈니스 현장에서 오가는 대화 샘플 및 유관 과제도 풍부하게 제시한다.



한 권으로 끝내는 오피스 실무 영어

이소벨 윌리엄스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44쪽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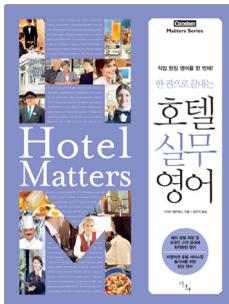
일상 업무, 회의, 프레젠테이션부터 무역, 출장, 회의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무직 업무를 폭넓게 다루어 직무 관련 표현을 두루 학습할 수 있다. 업무용 서신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에 이르는 다양한 쓰기 과제/샘플과 전화, 면접, 협상 등 각종 비즈니스 대화 샘플을 통해 작문 실력과 말하기 실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의료 실무 영어

이언 우드 지음 | 김민석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00쪽 | 18,000원

병·의원 접수대, 진찰실, 약국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 적용하도록 했다. 나아가 건강한 식단과 영양,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 원격 화상 진료 등 다양한 텍스트들을 실어 영어로 전공 지식을 학습하도록 했다.



한 권으로 끝내는 호텔 실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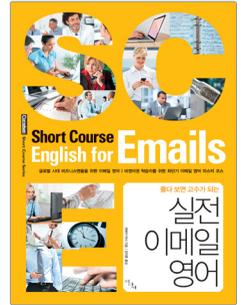
스티브 윌리엄스 지음 | 김민석 옮김 | 사륙배판 변형 | 232쪽 | 18,000원

호텔 프런트, 객실, 레스토랑 등 다양한 호텔 서비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해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세계의 호텔과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업 등 관련 텍스트들을 실어 영어로 전공 지식을 학습하도록 했다.

실전 이메일 영어

레베카 터너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 128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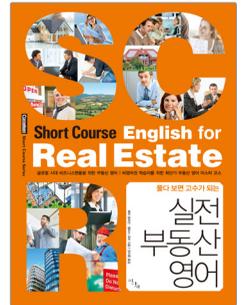
영문 이메일 작성 시 통용되는 관례 및 어법, 필수 패턴과 표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도록 했다. 샘플 이메일들을 풍부하게 수록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메일 영작 연습, 듣기 파일 청취, 심화 텍스트 읽기를 통해 입체적으로 학습하게 했다.



실전 부동산 영어

페터 알트만, 앨리스 조비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 116쪽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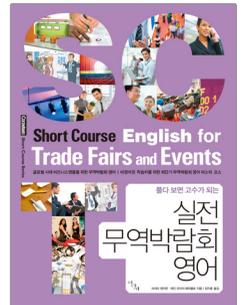
외국인 고객을 상대하거나 외국 기업에서 영어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영어 표현을 집중 공략하도록 했다. 가상의 부동산 매도·매수인, 중개인, 컨설턴트, 자산 관리인 등이 되어 현장에서 소통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바로바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실전 무역박람회 영어

브리타 랜더만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 146쪽 | 13,000원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역박람회 참가 시 각국의 영어 사용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악센트 및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대화 샘플을 풍부하게 수록했다. 또한 제품/서비스 홍보하기, 해외 바이어 맞이하기, 잠재 고객 유치하기 등 성공적인 전시 부스 운영에 유용한 필수 패턴 및 표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했다.



실전 자동차산업 영어

마리에 카바나 지음 | 양지훈 옮김 | 사륙배판 | 144쪽 | 13,000원

제조부터 판매까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각 부문별 실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동차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이는 영어회화 표현을 두루 담았다. 자동차 산업을 구성하는 각 핵심 부문 및 자동차의 구조, 자동차 제조 공정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전문 용어를 폭넓게 수록했다.

